



페미니리는

여성학 자치도서관 페미니리 feminary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페미니리를 함께할 사람을 찾습니다.

suny.yonsei.ac.kr/~feminary

학관 3층 충어실 인복방에 등지를 들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여성학 자치도서관 페미니리



페미니리 feminary

[상식 그리고 편견]

페미니스트는 설친다?

누가 페미니스트인가?

호주제도

[시선]

진보와 페미니즘

[논쟁 · 논쟁]

군가산점제 위험 결정과
여성에 대한 폭력

상식 그리고 편견 페미니스트는 설친다?

[기획의도] 그 교수님 난 싫어, 너무 설쳐 / 편집부 ● 3

임팩트는 옳어야 건강하다 / 남상화 ● 4

'설치는 그녀'들에 대한 보고서 / 전주영 ● 8

거부감 없이 동참하기 / 황윤호성 ● 12

누가 페미니스트인가?

페미니스트로 다시 태어나기 / 노래 ● 16

상처 입은 극렬 페미의 내 몸 하나 건사하면서 운동하기 / 별리 ● 19

나는 페미니스트인가? / 예강 ● 23

나의 페미니즘 / 콰이 ● 26

이슈 호주제

호주제가 만들어내는 성(姓)과 가족주의 / 뚝 ● 29

호주제는 우리의 전통? / 모비 ● 32

시선 진보와 페미니즘

[기획의도] 그 페미니즘이 묻는다 / 편집부 ● 36

소통 / 나사 ● 37

한국의 좌파 / 마루 ● 41

정치에서의 여성 / 무름 ● 43

정치적인 낱말들이 강간/아줌마/연애/포르노 ● 45

논쟁, 논쟁 국가산정제 위헌 결정과 여성에 대한 폭력

男本共和國 / 뚝 ● 48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간다 / 뚝 ● 50

여성 이미지에 대한 이중성 / 나윤경 ● 53

뒤집거나 혹은 거스르거나

[색깔끼] 역사는 누구의 기억인가 - (동맹주의 적식) / 나사 ● 56

[영화읽기] '변남자'와 섹스 / 김문연주 ● 58

[문화읽기] '아메리칸' 두 여녀의 유쾌한 상상력 / 정성경 / 뚝 ● 61

페미니스트로 태어나 일하기 ● 63

유카 ● 64 / 민혜1 ● 37 / 민혜2 ● 66

여성학 자치 도서관 '페미너리'. 많지도 않은 책을 갖다 두고, 굳이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단순히 책을 빌려주고 반납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여성운동의 살아있는 역사를 추적하고자 하는 다소 거창한 목적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시작된 여성운동, 특히 대학내에서의 여러 의미있고 가치있는 활동과 관련자료들이 제대로 모아지지 않은 채, 졸업식과 함께 흩어져 버리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도서관 페미너리의 출발이었습니다. 5년여의 시간동안 페미너리가 시도한 여러 작업들은 각기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자료집 '페미너리'도 그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여성운동의 역사를 쌓아가는 작업입니다.

자료집 '페미너리'에서는 여성운동에 대한 반대의 역사를 서술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성운동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 쟁점들, 논의들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왜, 어떤 논리로 여성운동에 반대하는가를 분석하는 작업입니다. 여성운동에 대한 반대들이 다양한 진영에서 다양한 논리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고 분석하고, 때로는 재공격할 수 있는 언어를 개발하고 추적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어떤 공격들은 논점이 바뀌어도 지리하게 반복되기 일쑤이거나, 너무 상투적이거나, 혹은 겉은 적당한 논리로 포장되어 있지만 속은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가득차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반박하고 비판하고 때로 재공격 할 수 있는 정교한 언어를 개발해내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여성주의 활동을 위해서도, 또 각자의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버릴 수 있는 언어를 개발하는 작업이니만큼, 대부분의 글들은 가능한 한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여성의 독자적 경험을 드러내는 데에 골몰했던 많은 대학내 여성학 관련 자료집들이 자칫 경험적인 글쓰기에만 치중해 왔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한편, 글의 소재들은 그간의 호주제 등 주요 사건부터, 일상적인 편견, 문화적 결과물, 특정 인물 등 가능한 한 다양한 영역을 다루려고 노력했습니다. 소재의 시의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일간지가 아니므로, 사건의 중요도를 우선 순위로 하여, 선택, 배열하였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지어줄 수는 없지만, 자료집 '페미너리'는 앞으로 꾸준히 발행될 예정입니다. 첫 하일에서 보이는 사문 흔적들은 다음 번 자료집에서는 보다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페미니스트는 설친다

03

기획의도 | 그 교수님 난 싫어... 너무 설쳐 | 편집부

04

암탉은 울어야 건강하다 | 남상희

08

페미니스트는
설친다?

상식 그리고 편견

'설치는 그녀'들에 대한 보고서 | 전주영

12

거부감 없이 동참하기 | 황윤호성

그 교수님 난 싫어... 너무 설쳐

기획의도
— 편집부

연세대의 교수님 중, 여성교수로서는 매우 드물게 많은 학문적 성과와 그에 못지않은 활발한 사회적 실천으로 폭넓은 인지도를 얻고 계신 모 교수님이 화제에 오르자, 문득 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적어도 페미니즘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학계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학자의 활발한 사회활동이 어떻게 '설친다'라고 쉽게 평가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단지 활발하다는 것이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내가 그에 반박할 말을 고르는 동안, 나는 그것이 이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활동적인 여성들, 특히 페미니스트들에게 붙여지는 수식어라는 것을 발견했다.

여성의 사회활동과 대외적 발언은 그 내용이 평가되기도 전에,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그 활발함 자체 때문에 '설친다' '나선다'라는 식으로 평가절하되기 일쑤다. 게다가 설치는 여성은 더 이상 좋아할 수 없는 여성이 된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속담이 공공연히 인용될 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인식은 여전히 강해서 특히 페미니스트에게는 아주 대표적인 수식어가 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에 생각보다 매우 다양한 이유와 함의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여성이 그런 표현을 쓸 때, 혹은 남성이 그런 표현을 쓸 때, 그 의미와 효과는 매우 다르다. 또한 어떤 맥락에서 그런 표현이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아주 교묘한 뉴앙스를 띄고, 페미니스트의 정치적 입지와 역할을 증히는 탁월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번 기획에서는 이 '페미니스트는 설친다'라는 화두를 가지고 다양한 논의를 모아 보았다.

암탉은 울어야 건강하다

남상희 | 연세대 사회학과 강사

페미니스트는 설친다

‘페미니스트는 설친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이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고 싶었다고 하자. 그래서 이 진술을 검증할 만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페미니스트의 몸짓이 과장되거나 옷차림이 요란한가?” “말하는 투가 직설적이고 예의가 없는가?” “표명하는 정치적 성향이 너무 과격한가?” 하지만 ‘설친다’를 가늠하는 정확한 잣대를 찾으려는 노력은 헛수고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 진술은 애당초부터 어떤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에 대해 그 집단 명칭에 의거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편견에 터해있기 때문이다.

편견의 요소 가운데에서도 신념의 측면인 고정관념(stereotype)으로서 어떤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에 속한다.

따라서 이 지식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자아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으로 이끌 소지가 다분하다. 편견의 형성을 설명하려면 자연스럽게 구성주의적인 사고에 근접하게 된다. 인간의 인식은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니고 있는 선입관(preconception)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개념과 경험이 상호작용하여 구성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론적 배경을 깔고 ‘페미니스트는 설친다’는 가치판단적 진술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집단의 구성원, 페미니스트들은 개성적인 결함, 특히 급진적인 정치성향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측되는 개인의 바람직하지 못한 품성을 들어서 사회적 오명(social stigma)을 쓰게 된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대로 이 ‘설친다’의 객관적 기준이 없다면 어떤 행위양식이나 인지양식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어떻게 가늠하는가? 사회적 공감대 또는 합의, 특정 집단이나 특정 이익을 옹호하는 이데올로기적 담론이라고 뭉뚱그려 볼 수는 있다. 이 메커니즘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의사소통 과정을 좇아서 진술이 지닌 의미론적 특성과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텍스트의 의미 분석

‘페미니스트는 설친다’가 전달되는 의사소통 상황에 간여한 주체는, 묘사 대상(페미니스트) - 말하는 사람(관찰과 판단) - 듣는 사람, 이렇게 셋이다. 이 의사소통에서 전달과 해석 과정에 간여하는 의미내용에는 개념정의, 지식, 행위자의 지식, 의도, 감정 등의 요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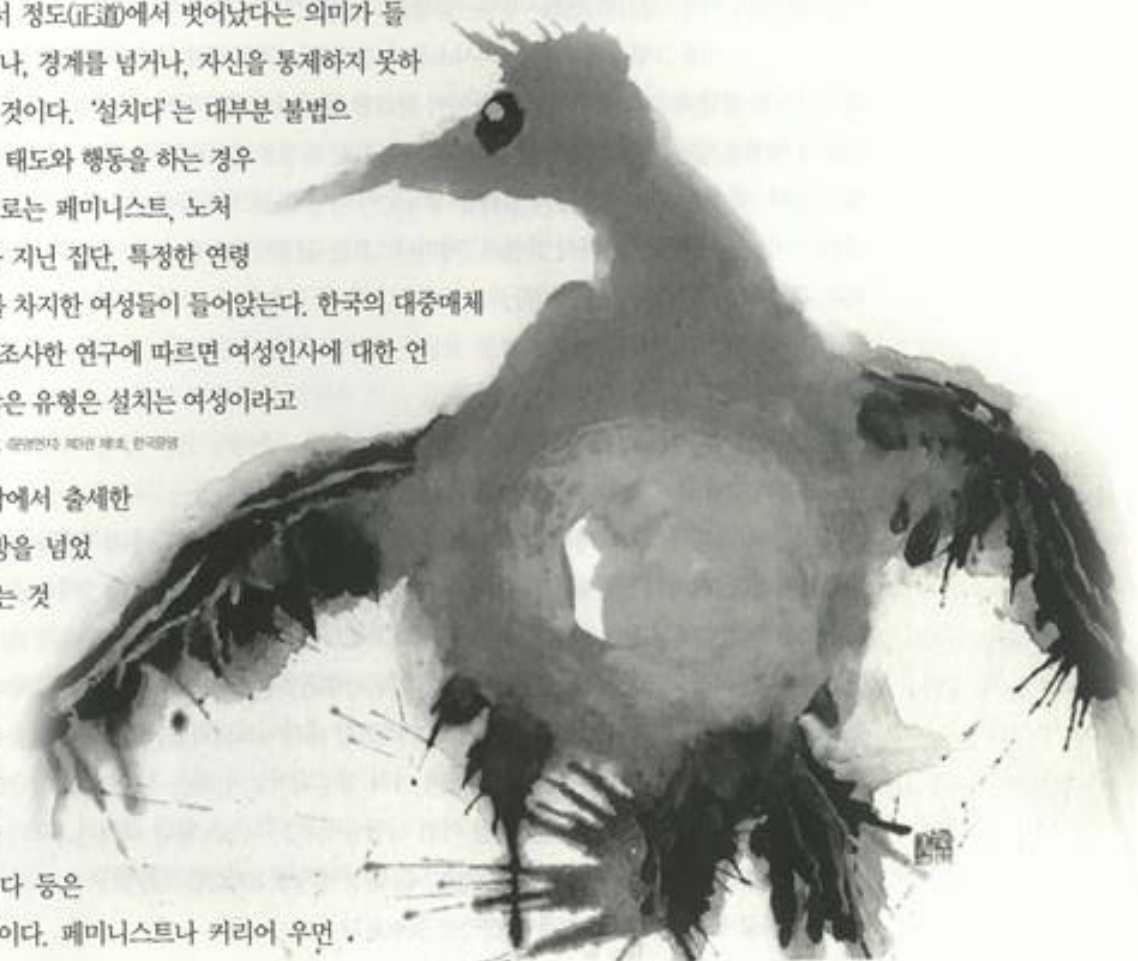
커뮤니케이션은 의미내용과 해석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명시적/의식적 의미내용	잠재적/무의식적 의미내용
전달내용	(A)	(C)
가능적 해석	(B)	(D)

(A) 국어사전을 펼쳐보면 ‘설친다’는 ‘몹시 날뛰다, 찬찬하지 못하고 참을성 없이 설레다’라는 뜻이다. 사회적 기대에서 어긋나서 정도(正道)에서 벗어났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행위주체가 오버하거나, 경계를 넘거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알맞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설친다’는 대부분 불법으로 낙인찍히지 않고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하는 경우에 많이 쓰인다. 설치는 주체로는 페미니스트, 노처녀, 아줌마 등, 특정한 성향을 지닌 집단, 특정한 연령 집단, 가족에서 특정한 지위를 차지한 여성들이 들어맞는다. 한국의 대중매체에 나타난 성에 대한 편견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인사에 대한 언론보도의 편견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설치는 여성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집박에서 출세한 여성에게는 감히 집안 문지방을 넘었다는 석연치 않은 딱지가 붙는 것이다.

(B) 하지만 경계를 넘어서서 평균에서 뛰다고해서 굳이 부정적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용감하다, 활발하다, 적극적이다, 앞장서다 등은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표현이다. 페미니스트나 커리어 우먼.



을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에 꿰어맞추면 언어의 폭력에 의한 사회적 제재 효과가 생긴다. 페미니스트는 침묵하고 순종적이며 우회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달성한다는 사회적인 여성성에 도전한다. 이런 여성들에게 설친다는 낙인은 일종의 경고장이나 다름없다. 압탸이 올면 집안이 망한다는 마당에 이들은 집밖에서도 공개적으로는 우는 압탸이기 때문이다. 페미니스트 자신이나 듣는 사람이 불확실한 자아 개념을 갖고 있을 때에 편견적 진술은 자기존중감과 자아정체감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

(C) 페미니스트에 대한 가치판단적 진술은 대부분 직접화법이 아니다. 곧, 제3자가 듣는 전달내용일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대화는 페미니스트와 발화자 사이에서 벌어지지 않는다. 듣는 사람은 자신과 발화자와의 관계 그리고 페미니스트 집단에 대한 평소 이론에 따라 발화자의 진술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일단 발화자가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면 듣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하지만 페미니스트 집단과 듣는 사람이 연대를 맺고 있을 때에 발화자의 가치판단적 진술은 역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페미니스트=설치는 여성'이라는 등식은 의사소통의 당사자들이 쉽사리 끊을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설치지 않는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는가?" "도대체 설치지 않는 페미니스트가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은 무언의 침묵으로 가라앉고 만다. 왜냐하면 '상식적 진리'이자 '상식적 편견'이라는 일상의 그물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D) 그렇다면 이러한 의사소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의식적 잠재적인 기능은 무엇일까? 페미니스트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은 자신이 확고한 페미니스트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면 이런 유의 편견적 언명에 의해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물론 사회적 오명을 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집단을 어떻게 보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자기맞이 아닌 편견으로 돌리거나 다른 차원에서 자기 집단의 우수성을 지각할 수 있다. 김혜숙, 2014년 20-21 다시 말해서 '페미니스트는 설친다'는 메시지는 의도치않게 페미니스트들의 자의식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여성운동에서 편견의 동학

의사소통에서 텍스트의 의미가 어떻게 변하는가는 사회의 가치변동과 관련이 깊다. 다시말해서, 페미니스트에 대한 이미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헤게모니 싸움은 여성운동을 구성하는 주요 부문으로 해독되어야 한다. 등장하는 행위주체는 묘사 대상이 되는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 집단을 관찰하고 판단해서 말하는 사람 그리고 이를 듣는 사람이다. 1) 만약 듣는 사람이 발화자와 똑같은 의견이라면 이것은 반(反)페미니스트적인 연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2) 만약 듣는 사람이 확고한 페미니스트라면 이 편견적 진술을 계기로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3) 듣는 사람의 의견이 아직 형성되어있지 않은 경우에 이 진술은 재사회화 과정의 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면 발화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일단 페미니스트가 아닌 사람들, 비페미니스트인 여성이나 남성이다. 다만 페미니스트가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편견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어쩔 수 없이 여성을 유도, 제재하고 동원하기 위한 전략인 것만은 틀림없다.

페미니스트가 설친다'라는 언명은 여성이 지켜야한다고 말해지는 덕목을 무시하거나 경계를 넘으면 도덕적으로 평가절하된다는 처벌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거꾸로 여자로서의 자기 분수를 지키고 조용히 가정적으로 살아가는 데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평가절상하여 동기부여를 한다. 만약 제재와 동기부여의 지렛대가 간헐적이어서 집단압력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면, 이 현상은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다른 사람들의 신념과 의견이 표현되는 것이라고 누워서 관망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한국에서 여성의 지위는 여유롭게 이러한 편견이 확산되는 것을 방관만 할 형편이 전혀 못된다. 여성 인권과 직결된 인신매매 문제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여성개발지수, 여성권한지수, 여성의 실질임금비율 등을 훑어보더라도 한국 여성이 지닌 사회경제적 지위는 앞으로 현저히 개선되어야 한다. 2000년 유엔개발계획(UNEP)의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이런 불평등한 양적 지표를 지탱해주는 법적, 이데올로기적 기제들은 도처에 널려 있어서 사회의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현상은 고프만이 말한 총체적 기관에서의 사회통제 수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총체적 기관은 사회통제가 가장 극단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무대이다. 김종필이문적, 2014년 20-21 "개인이 일단 총체적 기관에 수용되면 바깥 사회에서 형성했던 개인성을 상실하고 그 환경에 재사회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피터 로, 200

이 과정은 기존의 사회적 자아를 박탈하기 위해 고안된 '자아굴욕화' 과정과 기관이 바라는 새로운 자아를 심기 위한 '특권 제도'의 활용을 통해서 진행된다. 다시 말해서 자아상이 새로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다. 총체적 기관에 적응하기까지는 다음과 같이 4가지 형태를 보인다. 피터 로, 200 [상황적 위축 단계 → 비타협적 단계 → 식민화 과정 → 전환 과정]으로써 자아상을 바꾸려는 쪽의 시각과 행동 유형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모방하는 단계이다.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집단적 압력 및 회유를 통해서 개종하도록 통제된다. 사회가 규정하는 여성성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남자친구가 없다든가, 결혼을 못한다거나, 직장을 못 얻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외면당하여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에 위협을 받는다. 그리고 여성성의 자원을 갖고 잘 활용하는 사람은 구애와 구혼의 방식으로 자존심과 물질 자산을 보상받게 된다. 몇 번 이런 상황에 노출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자기도 모르게 "살다 보니 어른들이나 (페미니스트가 아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옳았다"는 마지막 고백을 내뱉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페미니스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 강화하고 사회운동으로 활성화시키려면 페미니스트를 도덕적으로 평가절하하는 편견을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널리 퍼져있는 편견의 조각들을 수집하여야 한다. 그리고 페미니스트 집단은 페미니스트가 아닌 여성들과의 대면적 접촉을 통해서 추상적인 편견의 확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물론 이와 함께 사회 경제적 구조와 법 환경의 변화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페미니스트들의 힘을 키워서 대항담론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이 편견없는 사회, 평등한 사회로 함께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압탸는 울어야 건강하다. 그리고 건강한 압탸이 행복한 일을 낳는다.

‘설치는 그녀’들에 대한 보고서

전주영 |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설친다

이 말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들은 그리 좋은 것들이 아니다. ‘난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체 떠벌리는 인간들’, ‘사소한 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크게 벌이고야 마는 족속들’, ‘안하무인’, 요즘 말로 ‘오버하는 사람’ 등등, 설명들은 다양하지만 하나같이 부정적인 의미들을 띠고 있다.

나 역시 이 말을 들었을 때, 처음 떠올린 건 중고등학교 때의 치맛바람 세던 어머니들이나 YWCA 아줌마들이었다. 모든 것을 자기 자식과 자신의 잣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움직이려는 이기적인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설친다’는 표현을 썼었다. 그런데, 방금 내가 아줌마들을 떠올린 것처럼 ‘설치다’라는 단어는 주로 가리키는 주체들이 있다. 이를테면 ‘아줌마’, ‘여자들’...등의 주체들 말이다. ‘둥’이라고는 했지만 한마디로 여자들이라고 하면 된다. 개인적으로는 대학 와서 ‘설치는 남자들’ 때문에 괴로웠던 기억이 많지만 안타깝게도 “남자들이 설친다”는 표현은 농담처럼 이해된다. 그들이 설칠 때는 활달하고 리더십이 강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합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아줌마 집단에 대해서도 ‘설친다’는 표현이 꼭 맞지 않은 표현이 되었다. 아줌마들은 페미니스트들과 더불어 ‘설치는 여자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던 집단 중 하나였다. 그러나 요 몇 년간 긍정적으로 보려는 사회적인 움직임이 일면서 “아줌마들은 설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의없는, 혹은 물지각한 표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아줌마들이 여성인 동시에 누군가의 어머니라는 목소리가 아줌마 마케팅과 더불어 좋은 호응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설친다’는 어휘는 참으로 사회적이다. 즉, 사용하는 주체의 가치관, 좀더 정확히 하거나 사회의 가치관이 무엇인가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 판단 동사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이 어휘가 지시하는 대상이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띠는 탓에 그러한 사실은 자주 간과된다.

페미니스트들은 설친다

아줌마들이 사회의 사랑(?)을 받기 시작한 이후, 페미니스트들은 명실공히 ‘설치는’ 최고 대표 집단으로 남게 되었다. (페미니스트들 중에도 누군가의 어머니인 사람이 있겠지만 좀처럼 그렇게 인식되지 않는다. 그네들은 누구누구의 어머니가 아니라 ‘나’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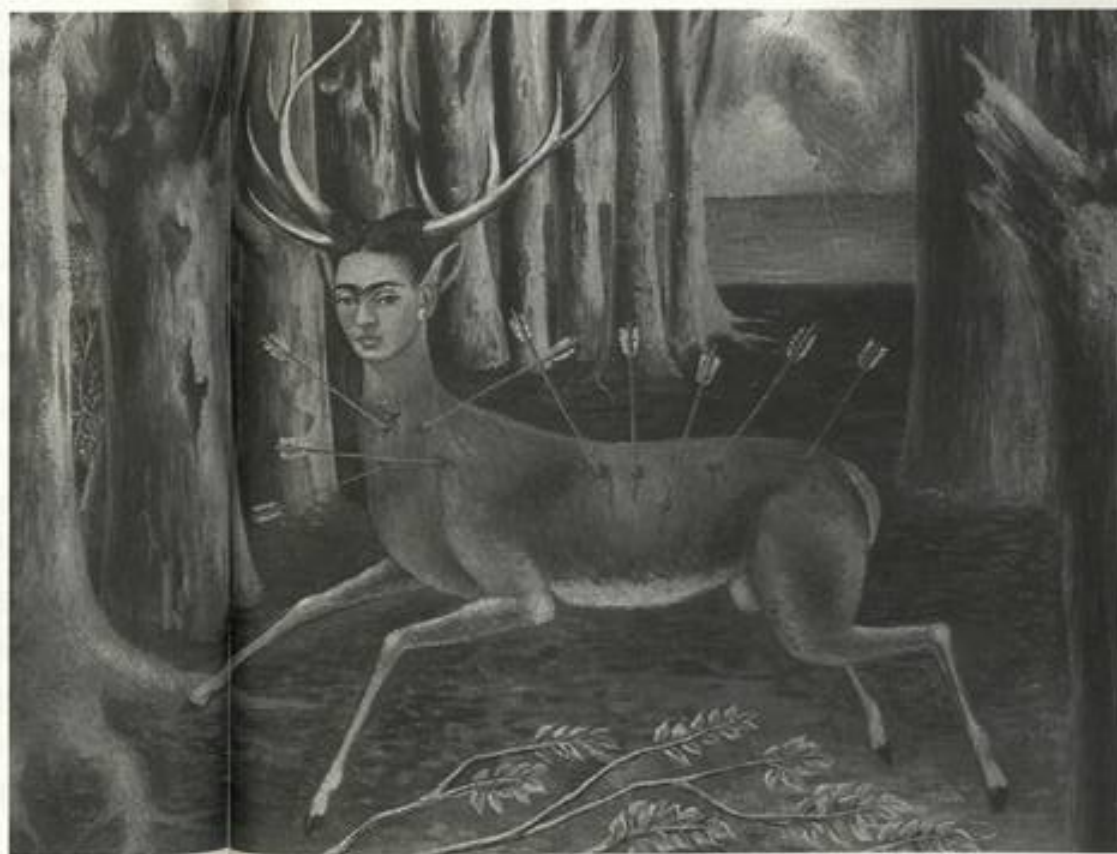
당연히 이것은 페미니스트들에게 달갑지 않은 현상이다. ‘설치는 주체’에 대해 한국사회가 표현하는 적의를 생각하면 당연하다. 심지어 ‘설치는 사람들’의 언행은 타당성의 여부를 따지기도 전에 쉽게 무시되는데, 이는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들은 사회적인 동의를 얻어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그들의 요구가 처음부터 외면당해 버린다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특히 “페미니스트들(=여성운동가들)은 설친다”는 말은 여성운동의 주체 일반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기에 심각하다. 가끔 엄밀한 표현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은 “모든 페미니스트들이 설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문제”라는 모호한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한정은 별로 의미가 없다. 도대체 그 일부와 나머지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진정한 페

미니스트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무릇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이들은 용감하다. 그리고 무지한 자들도 용감하다.)

그렇다면 페미니스트들의 행동거지 중 설친다고 지적되는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일단, 페미니스트들은 말이 많다.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일도 심각한 문제로 만들어 따진다. 또, 그네들은 자신들만이 가부장적 사회의 모순을 알고 비판할 수 있다는 듯 행동한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페미니즘의 기본강령에 동의한다해도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얘기하면 적대적으로 대한다. 게다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가 살벌하다. 그들에게 인간관계란 정치적 강령 앞에 하잘 것 없는 것일 뿐인 듯 하다.



이상의 것이 페미니스트들이 설친다고 할 때 지적되는 내용들이다. 짧게 정리하면 그네들은 오버의 대가들이고, 잘난 체가 도를 넘어 독선적이며, 싸가지가 없다. 이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은 다음과 같이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남들에게 사소한 것들이라고 해서 그것이 정말 사소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성차별, 성폭력의 문제는 강간, 성추행과 같은 형법 상의 범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 사회 일상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자라난 당신들에게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겠지만 그건 익숙해서 자연스러운 것이지 올바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일상의 문제가 가부장 사회의 수혜자가 아닌 이들, 그리고 그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에게 보이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단지 다른 생각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 맥락이 있는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다. 스스로는 페미니즘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는 알고보면 자신의 착각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위해 어지간한 건 참고 넘어가라는 말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간관계란 말인가? 그리고 정치적 입장을 말할 때는 좀더 부드러운 말로 하라는 주문은 한편으로는 고려해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당신들이 거슬리는 게 단지 말투인지, 내용 전체인지는 엄밀히 구분해 달라.

이렇듯 서로 오해이며 변명이라고 생각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입장을 굳이 여기서 모두 분석하지는 없을 것이다. 이 짧은 글의 목적은 '페미니스트들이 설친다고 보는 이들'에게 초점이 있기 때문이다. '페미니스트들이 설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페미니즘, 혹은 페미니스트들이 안주거리가 되는 자리에서 자주, 그리고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이 뻔하다.

페미니스트들이 설친다고 보는 이들

그들은 참으로 페미니스트들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다. 보고 있으면 뭔가 눈살이 찌푸러지고 아니 뎨 '굴뚝에 연기나지 않는다'는 속담을 되새기게 된다. 그들 중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둘 다 비슷한 정도로 거부반응을 보인다. 도대체 이 거부반응의 실체가 뭘까?

바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페미니스트들의 언행은 페미니즘적 세계관에 의거하는 것이다. 페미니즘적 세계관은 세계가 가부장적 질서로 움직인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한다. 그런 세계가 자연스러운 것이라 말하는 일상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페미니스트들은 기존의 세계관에 젖어있는 사람에게 설치는 존재들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결론이 온당치 못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자신들은 페미니즘에는 동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의한다면, 정말 동의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페미니스트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동의는 어떤 의견이 자신의 생각과 같다는 뜻인데, 페미니즘과 생각을 같이하고 그 세계관을 가진 이들을 우리는 흔히 페미니스트라고 하기 때문이다.(가끔 스스로가 '준페미니스트'라고 설명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것이 철저한 운동가가 되지 못함을 반성하는 의미인지, 아니면 착각하는 건지 분명치 않을 때가 많다.) 페미니스트라는 말이 부담스럽다면 기존 세계에 정면대치하는 페미니즘의 세계관에 동의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래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그런 당

신이라면 기존 세계의 평가(설친다)를 거부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다시 페미니즘은 옳은데 현실의 페미니스트들이 문제라고 거론하고 싶은가? 혹은 동의는 하지만 설치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고 싶은가? 나의 설명이 부실하거나 그쪽의 이해력이 팔리고 있는 모양이다. 다시 읽어도 마찬가지라면 어쩔 수 없는 문제니 그냥 넘어가자.

최종 결론

서로 무슨 말을 하는 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서로의 입장을 이해시키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충돌이 생겼다면, 그것은 둘 중 어느 하나가 물리칠 수 없는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논리체계가 서로 힘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자세는 서로의 세계관과 논리체계가 다르고 각각 자기완결성을 가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논리체계로 상대방의 논리체계를 평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비판이 원천봉쇄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다. 가부장적이라고 비판하는 게 당연하듯이, 반노동적이라든가, 환경 파괴적이라든가 비판도 가능하다. 혹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이나 기술이 서투르다는 식의 지적도 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세계관과 달라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성운동, 혹은 여성운동가 자체의 한계라는 식의 발언은 삼갈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앞서 얘기했듯이, '페미니즘을 잘 모르지만 페미니즘(혹은 페미니스트들)은 문제가 많은 것 같아.'라든가 '페미니즘을 잘 아는데(혹은 페미니즘에 동의하는데) 당신들은 문제가 많아.'라는 말은 둘 다 모순이기 때문이다. 잘 모르는데 문제를 알 수도 없거니와 '당신들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은 페미니스트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이 페미니즘을 잘 알고 그에 동의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결국 '페미니스트들이 설친다'는 말은 '난 페미니스트들의 행동과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하다. 그 행동과 말이 불편한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페미니스트와 페미니즘에서만 찾으려는 한에서는 분명히 그렇다.

이상, 여기까지 "페미니스트들은 설친다"에 대한 보고서를 마치겠다. 그간 이 말을 들으며 가슴 쓰려하고, 또 그런 소리 들을까봐 노심초사했던 불쌍한 자화상을 떠올리며 글을 마친다. 과거의 나처럼 마음 고생을 하고 있을 지도 모를 이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거부감 없이 동참하기

황윤호성 | 고려대 국문과 석사과정

정말이지, 페미니스트에 대한 편견은 참 광범위한 것 같다. 친구들과 얘기를 나눌 때도 그렇고, 페미니즘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마다 그 넘쳐나는 공격적인 글들, 그리고 호주제 폐지 서명을 받는다든지 해서 길에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때도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강한 거부감.

사실, 이런 거부감은 페미니스트만 받는 건 아닌 것 같다. 무언가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나부터도 이상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많기 때문이다.

대학 다닐 때, 학생회 임원들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학생회 활동가들에 대해서 다들 많이 못마땅해 했던 기억이 난다. 학생들이 지금 느끼고 생각하는 당면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 학생회 임원들 '자신'의 관심에 따라 활동을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학생회의 활동에 많이 동참하지 않았다. 학생회가 분명 잘하지 못한 측면도 많지만 이유없는 막연한 거부감의 영향도 컸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지금도 정치운동이니 환경운동 등등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조그만 잘못도 참 크게 보인다. 그들이 무언가 잘못이라도 저질렀단 소리를 들으면 "내 그럴 줄 알았어"라고 말하며 마음 속으로 주저없이 침을 뱉게 되기도 한다. 그 사람들에게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역시 많은 부분은 이유 없는 거부감인 것 같다.



그렇지만, 확실히 다른 사회운동가에게 가해지는 편견보다 페미니스트들에게 가해지는 것이 훨씬 강도가 세게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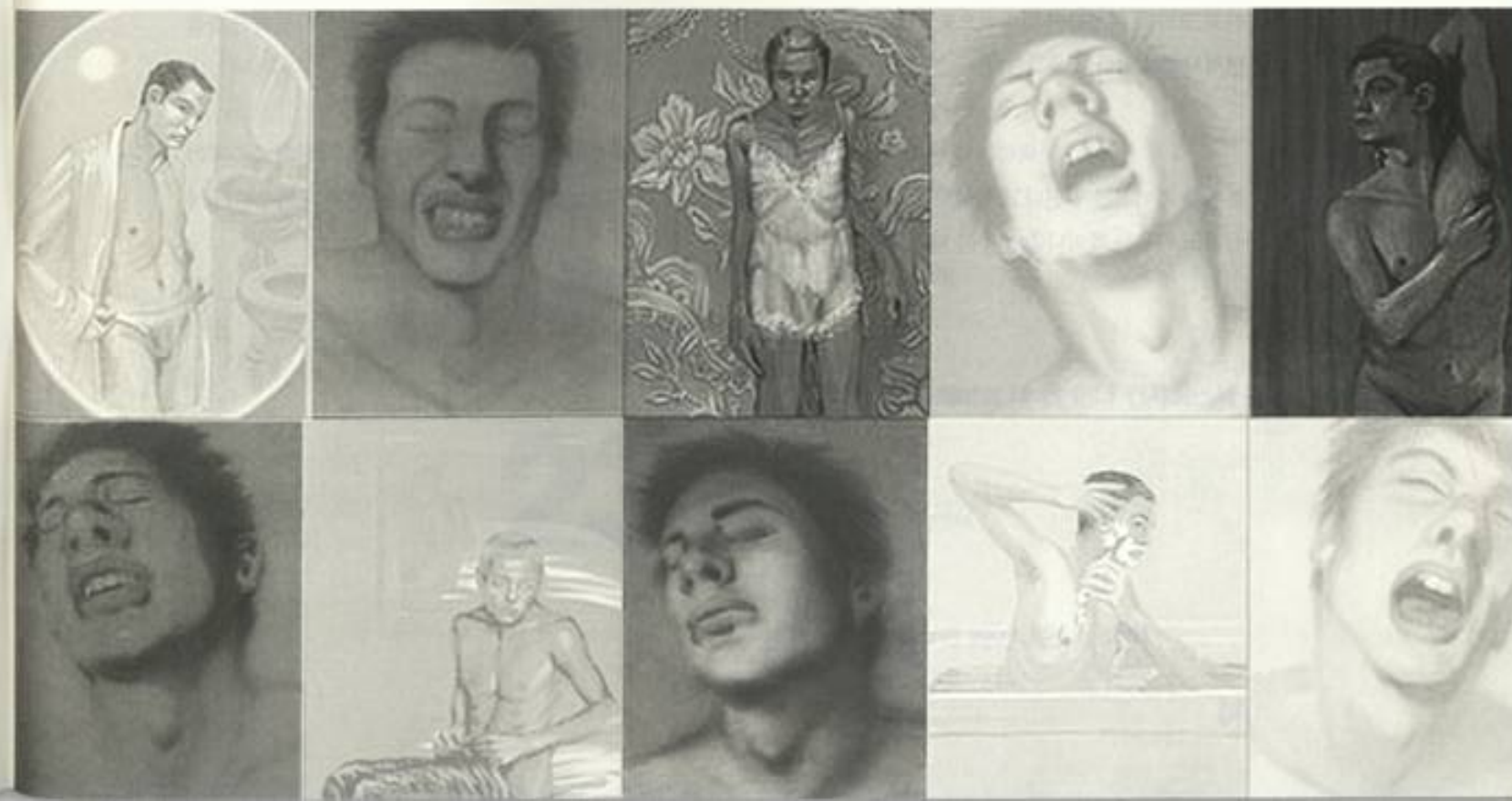
아무래도 남자친구들과 얘기를 나눌 때 이런 거부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많이

군대 얘기를 할 경우인 것 같은데, 대가없이 청춘을 희생한 억울함을 토로하는 끝자락에 반드시 끼어드는 얘기가 페미니스트 얘기다. 페미니스트들은 자기들 편한 대로만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 고생이나 의무는 하지 않으려 하면서 권리만 찾으려 한다는 것, 특히 군가산점 얘기를 할 때에 남자친구들은 무척이나 억울해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데 대한 보상을 좀더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정부가 잘못이지 마치 여성이 남성의 권리를 빼앗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된다고 얘기를 해봐도, 잘 수긍들을 안한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기엔 너무 분노가 큰 때문이라고 할까?

회사 얘기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회사에서 너무나 힘들게 혹사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여직원들의 행태에 대해 많이 성토했다. 그들은 화장에만 관심 있고 일 끝나면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는, 자기가 여자라고 힘든 일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고 얘기한다. 그러면서 이런 여직원들에 대해 확대되고 있는 각종 여성할당제나 모성보호조치에 대해서 적의감을 드러낸다.

한편, 여자친구들과 얘기할 때도 심심찮게 페미니스트에 대한 거부감을 발견할 때가 있다. 여자친구들의 주된 거부감은 '그들은 별 것 아닌 실천을 하면서 마치 자기가 대단한 양, 잘난 척을 한다'는 것이다. 여성운동을 하네 하는 여자들은 실제로는 여성으로서 당면하는 각종 고난을 직접 당하지 않는 사람이며, 그들이 관심있는 것은 상류층 여성의 관심사일 뿐이라며 그들은 말만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런 거부감이라는 것, 얘기를 좀더 깊이 해보면 친구들 스스로도 그것이 별로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이게 감정의 문제라 쉽게 극복되질 않는 것 같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친구들이 보이는 거부감은 '저들은 우리 편이 아니라'라는 생각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기는 것 같다. 여자친구들에겐 자신의 삶에 관심없는 것 같은 페미니스트에 대한 거부감(학생회에서 느꼈던 것 같은), 그리고 남자친구들에겐 자신들에게 공격적이고 무조건 여성만 싸고 도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거부감, 이런 광범위한 거부감이 이들로 하여금 '페미니스트는 별 게 아니야. 나도 페미니스트가 되겠다'는 생각을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페미니즘 운동진영은 자신 안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모습들이 없는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페미니즘 운동진영은 지금까지 너무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만 관심을 집중한 것은 아닌가? 엄연히 존재하는 여성단체 안의 성향에 관계없이 여성단체의 결속만을 강조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기타 사회운동 진영과의 연대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은 아닌가? 페미니즘이 대중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고학력 여성들이 일방적으로 이끄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던지고, 자신의 모습을 변혁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가 페미니스트인가?

나의 페미니즘 | 콰이

페미니스트로 다시 태어나기

서문 | 01 머리말 | 02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 03 페미니즘의 역사 | 04 페미니즘의 이론 | 05 페미니즘의 실천 | 06 페미니즘의 미래 | 07 페미니즘의 비판 | 08 페미니즘의 대중화 | 09 페미니즘의 교육 | 10 페미니즘의 문화 | 11 페미니즘의 정치 | 12 페미니즘의 사회 | 13 페미니즘의 경제 | 14 페미니즘의 환경 | 15 페미니즘의 건강 | 16 페미니즘의 가족 | 17 페미니즘의 종교 | 18 페미니즘의 예술 | 19 페미니즘의 스포츠 | 20 페미니즘의 여행 | 21 페미니즘의 요리 | 22 페미니즘의 패션 | 23 페미니즘의 뷰티 | 24 페미니즘의 라이프스타일 | 25 페미니즘의 미래

0. 들어가기 전에

나는 여성 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나와 같은 사람을 일컬어 '페미니스트'라고 부른다. 그렇다.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누군가 나에게 "너는 페미니스트이니?"하고 물으면 나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런데 내 입으로 직접 내가 페미니스트임을 말해본 적은 없는 듯 하다. 자기가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에 걸맞는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직접 언어화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말이다. 그것은 아마도 이제는 거의 반사적으로 생겨나는 어떤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내가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을 획득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까지 사람들과 혹은 세상과 부딪치면서 느꼈던 많은 두려움들... 많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그 두려움들의 흔적을 지워보기 위해 내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려고 한다.

1. 세상에 불만많은 소녀

내가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때는 그것이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몰랐을 때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가졌던 감정은 일종의 반발심이었다. 어느 정도 어린아이 티를 벗어나갈 무렵부터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 "여자는 이러저러 해야한다", "넌 여자애가 왜 행동이 그 모양이니?" 등등의 것들에 대한 반발심. 왜 꼭 '여자가...'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하는지에 의문과 반발을 갖기 시작했다.

딸만 있는 집에서 자라서인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남자 형제들과의 차별은 없었지만, 가끔 아버지께서, 혹은 아는 친척분들께서 나를 보며 "네가 아들로 태어났다면...", "아들 낳으려다 애 낳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싫을 수 없었다. 내가 딸이어서 뭐가 어떻다는 것인지, 왜 꼭 아들이 있어야 하고 대(代)를 이어야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화가 났다.

그 무렵,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내가 찬찬히 살펴본 세상은 모순투성이였다. 남녀 평등시대라고, 여자도 많이 배우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엄마가 밖에서 조금만 늦게 오셔도 불같이 화를 내시고 집안일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아버지의 기만적인 모습도 싫었고, 대학 진학을 위해 학생들을 닦달하면서도 때때로 "너 그러다 시집가서 남편한테 맞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의 무지막지함에 치를 떨기도 했다.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여학교에서 제시하는 모범적인 여성상은 신사임당과 같은 현모양처, 칼바람부는 추운 겨울에도 여학생들의 교복은 언제나 스커트, 여자 직업으로는 교사가 최고라면서 부득부득 교육대나 사범대에 원서를 쓰라고 하시던 선생님들... 시간이 갈수록 세상에 대한 나의 불만은 점점 커져만 갔다.

2. 두려움

세상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져갈 무렵, 나는 드디어 어른들 말씀에 '토'를 달기 시작했다. "왜 여자는 그러면 안 되요?", "여자는 그래야 하고 남자는 안 그래도 괜찮은가요?" 또래들 사이에서는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보여지기도 했지만 어른들에게는 그런 말들이 한낱 객기에 지나지 않았던 모양이다. 내 말이 있을 후, 어른들의 반응은 비교적 일관됐다. 왜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토를 다느냐, 내가 네 친구로 보이나, 어디 무서워서 말이나 제대로 하겠느냐... 내 말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그저 나는 '버릇 없이 말대꾸하는 애'로 인식되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가끔 어른들께 던지는 내 말에 속이 후련하다는 친구들도 있었던 반면, 그네들 사이에서 나를 소위 '잘 개기는 애' 혹은 '말 한 마디 잘못했다가는 큰 코 다칠만한 애'로 규정한다는 얘기가 내 귀에까지 들어왔다.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인식하던 나로서는 나에게 대한 그러한 평가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다른 친구들은 아무도 불만을 가지지 않는데 나 혼자만 돌출행동을 하는 듯한 느낌... 내 생각과 언어의 시비(是非)를 따져 내 주장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는 거의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나와 비슷한 불만을



어느 정도
어린아이 티를 벗어나갈
무렵부터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
"여자는 이러저러
해야한다",
"넌 여자애가 왜 행동이
그 모양이니?" 등등의
것들에 대한 반발심.
왜 꼭 '여자가...'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하는지의
문과 반발을 갖기
시작했다.

가진, 그런 불만들을 토로할 만한 대상이 내 주위에는 없었던 것이다.

사람들 생각 속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편견과 고정관념 또한 내가 두려워하던 것 중 하나였다. 하루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여성들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다니면 남자들은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자들이 노출 심한 옷을 입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하신 적이 있었다. 나를 비롯한 여러 학생들이 어이없어 했지만, 뭐라고 반박하기가 어려웠다. 논리적인 근거를 대기에는 나의 지식이 턱없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저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교사라는 사실이, 그리고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 나를 깊은 절망으로 물고 갔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나 혼자만 골머리를 썩힌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다. 질문은 많았으나 해답을 찾을 길이 없어 나는 점점 지쳐 갔고, 수능시험이 다가오면서 그러한 문제들을 완전히 접어두었다.

3. 새로운 만남들

대학에 들어와서 OT와 새터 기간을 거치는 동안, 나는 학내에 '총여학생회'라는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존재를 알게 되면서부터 고이 접어두었던 예전의 관심사들이 하나 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나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여성학 학교'를 한다는 학내 자보를 보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려봤던 총여학생회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었던, 알고 싶었던 얘기들을 하고 있었다.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같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큰 기쁨이었다.

여성학 학교가 인연이 되어 학내의 여러 여성주의자들을 만나고, 문과대 여성주의 모임 '모반' 활동을 지금까지 해 오면서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여성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책도 읽어보고, 사람들과 세미나도 같이 하면서 이제까지 중구난



페미니스트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확립할 때 가장 기본이 되었던 명제는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인간은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편견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하기에 나는 운동을 하는 것이다. 세상의 편견과 싸우기 위해.

방으로 내 머리 속을 떠돌던 생각들이 서서히 정리되어가고 있음을 느꼈고,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게 되었다. 무조건적인 반발심리가 아닌, 그것에 대해 내 사고의 틀에 맞추어 분석해보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가운데 나름의 주관을 갖게 된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나 역시도 이제까지 내가 가졌던 무수한 편견들과 부딪혔고, 그것과 싸워야 했다. 그러나 그러한 편견들을 극복하고, '모든 인간은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서, 나는 여성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도 눈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문제의 양상은 다를지라도 누군가가 부당하게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4. 두려움을 넘어서서

여성주의에 발을 들여놓고, 여성학을 공부하고,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예전에 내가 가졌던 두려움들은 서서히 사라져갔다. 나 혼자서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 힘을 모아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운다면 변화가 불가능하지 않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해 나가면서 편견의 벽을 허무는 일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는 것을 절감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다른 사회운동에 대한 편견보다 뿌리깊은 여성운동·페미니스트에 대한 편견을 접하는 일은 내가 느끼는 또다른 두려움이기도 하다.

페미니스트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확립할 때, 가장 기본이 되었던 명제는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인간은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편견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하기에 나는 운동을 하는 것이다. 세상의 편견과 싸우기 위해...

내가 위에서 했던 말을 반복해야겠다. 내가 느끼는 '두려움'들은 결코 '두려움'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맞서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일 뿐이다.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상처 입은 극렬 페미의 내 몸 하나 건사하면서 운동하기

별리 — 부산대 총여학생회

어디 간들 안그렇겠냐만은 부산이라는 대한민국 대표 꼴보수 도시에서 여성주의를 실천하는 것은 말 그대로 '참 힘든 일'이다. '가시밭길' 많지만, 그때마다 내 삶의 길섹에서 따뜻하게 손잡아 주는' 동지들이 많다면 이토록 힘들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제대로 운동하지 못해서인지 동지는 눈을 씻어도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 변방의 여성주의자로서 가장 힘든 점은 바로 수적 열세 바로 그것이다.

한동안 나는 "내가 즐겁지 않더라도 해야한다"는 식의 운동관은 이미 운동이 아니라 자학이라고 생각했었다. 자기 한 몸 건사도 못하면서 무슨 운동을 한다는 말인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운동을 하면서 괴롭기만 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짜증만 부리는 나 자신을 보면서, 참담했다. 내가 여태껏 남들한테 큰소리치며 자학을 해왔던 것인가?

cool함을 내동댕이치기

최근에서야 이 문제의 원인을 차근차근 따져볼 수 있었다. 불과 1~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성운동보다는 여성인권운동이 맞는 것이며, 여성성을 지향해야 할 가치로 보고 그것을 추구하는 여성주의보다는 남녀의 평등과 모든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휴머니즘이 맞다며, 성폭력 피해의 경험이 있는 활동가들의 급진성 내지 과격함은 버려야 할 자세라고 우아하게, 쿨하게 말하던 나였다. 그러나, 그 '쿨' 함은 상처를 겪지 않아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의 '쿨' 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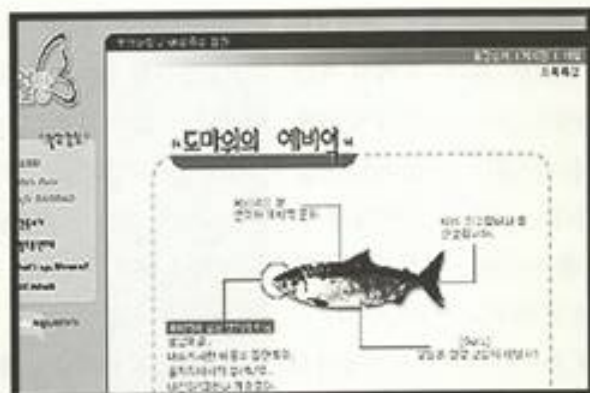
어쩌면 나도 여성주의 운동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목청만 높이면 장땡인 기존의 운동판보다 문화적으로 풍부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여성운동의 변지르르한(?) 걸모습에서 문화적 우월감 같은 걸 기대했던 것 같다. 물론 이것이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러한 걸모습과 함께, 힘겨운 투쟁의 속사정에는 관심 가지려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실제로 내가 뛰어든 여성운동은 기존 운동판이 겉으로 내보이는 치열함보다 두 배 세 배 치열했다. 그런 공간에서 미치지 않고서는 '쿨' 할 수 없었다. 월장 사태를 통해 사이버 상에서 어마어마한 숫자

의 사람들로부터 사이버성폭
력을 겪고서 언제부터인가 그
'굴' 함은 내 증오의 대상이 되
어버렸다. 그래서 여성운동에
대해 너무도 편하고 우아하게
결론 내어 말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이유의 화가
치밀어 오르곤 한다. "그래,
니넨 안 겪어봐서 모를 테지.
무슨 일을 당하건 남의 일이
니 관심 없을 테지. 똑똑한 당
신들은 그렇게 높은 곳에서
아랫것들이 하는 얘길 듣고는
판결만 팽팡팡 내리면 모든
것이 끝나겠지. 엄병할."

최소한의 의무감만 가지기

첨엔 그러면서도,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라는 의무감 탓에 그들을 쉽게 무시할 수는 없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똥똥 담긴 글을 내뱉어 버리곤 하는 나에 대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어렵게 하나고, 그냥 대중 무시하던가, 아니면 비아냥대지 말고 얘기하라고 했다. 냉정하게 따져서 그 말이 맞다. 말투야 남들이 뭐라 하건 내 스타일이지만, 나는 운동하는 사람 이기에



그 말을 듣고 오기를 줄이고 사과도 했다. 하지만, 내가 변한다고 해서 그들도 변하진 않았다. 사이버성폭력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이젠 만만해졌는지 사과의 태도를 고치라는 식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급할 만큼 급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은 사건의 해결 따위는 참부터 관심도 없었던 것이다. 싸가지 없는 '극열 페미'를 성도하여 입을 막게 하면 끝이었을 게지. 우리는 성폭력 피해자라는 것을 살짝 잊고 있었던 것 같다. 그 당시에는 2차 가해 따위는 머리 속에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 월장의 네 명의 편집진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게시판에서의 태클을 막고, 폭탄 맞은 게시판판을 백업하여 성폭력적인 글들의 종류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전국각지에서 요청되는 인터뷰를 하고...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왜 그렇게 겁도 없이 몸들을 사리지 않고 댄버냈는지... 어쩌면 불모의 땅에서 여성주의 운동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겪어야만 하는 숙명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힘들다고 내버려둔다면 똑같은 폭력을 다시 당할 테니까.

그렇지만 너무 힘들었다.

운동은 육아가 아니다.

여성의 몸으로 하는 우리의 싸움은 언제나 '성폭력'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행위이다. 여성으로서 말하는 자가 극소수인 탓에 일대 다의 부담스런 싸움을 각오해야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러다가 남자에게 사랑 못 받아서 히스테리 부린다는 소리도 들어야하고, 하고 싶은 말 다하면 학내에서 미친녀로 새대장 당하는 것 역시 각오해야한다.

“밤길 조심해라, 면상이나 한번 보자, 더럽고 아니꼬워서라도 발언해
아한다고 나의 오기를 부추기는 것은, 그런 상황을 충분히 직면하지 않

아 본 사람들, 다시 말해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토론이나 싸움에서 여성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발언만 했다면 논리와는 거리가 먼 인신공격과 비난을 일삼는 홀리전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페미니스트들더러는 온갖 충고를 다 한다. 대체로 "그런 건 여성운동이 아니다."라는 식이다.

그리 답답하면 여성운동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 여성운동 하면 될 것을... 심지어 페미니스트라 떠돌고 다니는 사람조차 남자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자세를 낮추고 발언의 폭을 한정해야한다고 말한다. 왜냐면, "우리는 그들을 바꿔내야 하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인정받는 순간 우리의 주의와 주장이 온전할 가능성은?

페미니스트가 바뀌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역시 우리의 발언에 무조건적으로 태클을 걸고, 반대를 하는 남성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존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바뀌어야 할까? 솔직히 말해, 욕심이 많았던, 그리고 멋모르던 처음엔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콘돔서약식'이라는 이름의 피임총응(行) 행사를 연다고 했더니, 우리 단체 앞에서 하지 말라고, 그 저의가 뭐냐고 오토바이로 확 밀어버리겠다고 욕지거리를 하더니, 그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장소를 바꾸겠다고 하니, 이제 아예 하지 말라고 고집 피우던 기계공학부 남성동지들을 무슨 수로 바꾸려고? 애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을 어르고 달래고 해야하는 게 운동하는 사람의 숙명인가? 그들을 바꾸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시간 아까운 짓이다. 적의 입맛을 끝까지 맞춰주다 우리의 노선 우리의 주장은 뒷걸음질치고 엉클어지게 마련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상처입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지키면서 적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계몽(?)활동은 그들의 엉성한 논리를 비꼬고 약올려서 최대한 기분 나쁘게 하고, 페미니스트의 존재를 느끼게 하여 마초짓을 못하도록

자기검열을 하게 하는 것 이
상은 없다고 본다.

남자 눈치 안 보기

하나, 우리의 운동 타깃이 여성이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안타깝게도 여성의 언어는 기득권 남성의 언어에 감염되기가 너무도 쉽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해, 대부분의 여성은 자신의 의견을 가진다는 것조차 만만찮은 용기를 담보해야 가능하다. 권력이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남성들이 욕하면 대부분의 여자들도 멋모르고 동조한다. 특히 20대 여대생이라는 위치는 여자로서 받는 부당함을 느끼기가 어렵다. 자주 들곤 하지만, “나도 여자지만 니네 너무 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정말 곤욕스럽다. 여태껏 여성운동의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무임승차자적인 발언을 하는 인간들 역시 변화하기 힘들 거라고 본다. 나는 이들을 여성으로 보고 싶지 않다. 그냥 기득권남성에 빌붙는 기회주의적인 인간부류라고 생각하고 싶다. 물론, 어



성운동은 이런 여자들까지 바
꿔내야 한다고 말하면 할 말
없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적
들 외에, 여성운동에 호의적
인 여성, 정말 여성운동에 목
달라하는 여자들 얼마나 많
은가? 그 수많은 여성들의 목
소리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
서 그녀들이 없는 것은 아니
다. 페미니스트들이 정작 무
서워해야 하는 것은 남자들
따위가 아니라, 상처받고 배
제되었지만 아무 말 할 수 없
는 용기 없는 여성들이다. 다
바꾸려다 다 망치는 수가 있
다. 이 여성들을 놔두고 적들
을 어르고 달래는 비효율적인
노동을 택하는 것, 정말 시간
아까운 것이다. 페미니스트들
이 이 여성들과 함께 할 수만
있더라도 여성의 정치세력화
는 충분히 어렵거나 먼 일 만
은 아니라고 본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즐거
운 싸움이 아닌 것은 모두 자
학이라는 것 역시, 내가 그 동
안 갈혀있던 '쿨' 함의 환상인
듯하다. 어찌 싸움이 즐겁지
않다고 피할 수 있으랴. 살다
보면 이기는 싸움도 있고, 지
는 싸움도 있고, 짜증나는 싸



페미니스트들이 정작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남자들 따위가 아니라,
상처받고 배제되었지만
아무 말 할 수 없는
용기 없는 여성들이다.
다 바꾸려다
다 망치는 수가 있다.

움도 있는데, 극소수의 이기는 싸움만 고르는 건 운동이 아니다. 그리고,
힘든 싸움이라고 해서 뛰어들지 않는다는 것도 여성주의자 자존심 심히
구기는 짓이다. 중요한 것은 싸움에 지치거나 잘못된 싸움의 방법을 택
해서 적들에게 휘둘러서는 안된다는 것. 요즘 조금은 현실적인 된 나의
운동관은 "최대한 싸움을 즐기고, 즐길 수 없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상처
복구가 힘들만큼 힘든 길을 택하지는 말자."로 바뀐 거 같다.

잃어버린 싸움 자체의 즐거움 대신 함께 할 동지가 곁에 있음으로 인
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다. 싸우는 과정에서 입는 상처를 최소화하고
용기와 내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함께 싸울 동지를 늘리는
일 밖에 없는 것 같다.

서로의 피와 살이 될 동지를 찾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또 하
나의 숙제일 것이다.

음. 어렵다.

나는 페미니스트인가

예감 | 김미연 98

다양한 페미니스트 혹은 여성주의자라..

내 안에 나는 여성주의자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는 지
를 되짚어본다.

내가 이 선택받은 지면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무
엇일까.

나와 함께 여성주의 문화모임을 했고 총여학생회 활동
을 했고 그리고 그 외에 여성주의로 만나게 된 사람들이 떠
오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했으며,
열심히 했는지 그래서 만족했는지 생각해본다.

..... 구체적인 그것도 지난 경험들을 쓴다는 것이 꽤
어렵군. 왜 사람들은 그걸 사실 그대로 말하지 못할까 생각
하곤 했었는데 막상 내가 그런 일에 닥치니 조금이나마 이
해가 간다. 그건 이미 다른 이들에게도 당연한 듯 느껴지며
세세히 살펴보고자 할 때마다 나의 감상이 뒤따르고 그곳
에 있었던 나의 존재를 느끼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 뭘 느
끼고 있었는지 어디쯤에 서 있었는지 자연스럽게 떠오르
는 것이다.

그래서 기억을, 나의 경험들을 거슬러 가는 일은 쉽지
만은 않은 일인 듯 하다. 내가 여성주의 활동으로 접어들게
된 건 먼저 1학년 새내기 때 뭇 모르고 총여실에 안토니아
스 라인 영화보러 친구랑 간 것이 그 시작이었다. 총여실이
뭐하는 곳인지도 잘 모르고 영화를 보여준다길래 갔고 그
곳에서 재밌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함께 간 그 친구
와 함께 난 '옴'이라는 모임에 들게 되었다. 여성주의 문화
실험모임 '옴' 사실 그 모임을 열심히 하진 않았다. 선배의
마음도 모른 채 나는 학교에 적응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들
을 하고 있던 때였다.

그러다 선거를 함께 하고 여전히 어려운 이야기인 듯

하여 특히 선거 공약 자료집을 볼때는 즐기기도 했다. 불성실하고 그리 적극적이진 않았지만 다른 어떤 대학 내 활동보다 즐겁고 신선한 일들이었다. 선거를 함께 준비하고 못하는 '올동'도 배우고 여성주의는 어려워도 사람들과는 더 친해지고 싶었다. 젊은 혈기라고도 할 수 없는 시기였지만, 그것이 재밌었다.

3월 8일이 세계여성의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 5월 1일 메이데이에 참여하게 된 것(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리를 활보했던 신기해했던 경험 중 하나), 그리고 가을에 다른 학내 여성주의자들이랑 함께 여성제를 치른 것, 백주년 기념관 앞에서 영화 보고 공연하고 밤 늦게까지 축제를 벌였던 것..... 움에서 여성주의 무크지를 냈던 일..... 다른 이들과 만나고 나와 만나는 일인지라 재밌지만도 쉽지않은 일들이었다. 그러나 나의 대학생활들을 살피었던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그렇게 난 여성주의와 함께 해나갔고 몸을 사리고 싶



여전히 여성주의가 나를, 여성주의와 내가 다시 깊게 조우하게 되리라 믿는다. 그 길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때도 있었지만 다시 돌아오곤 했다. 그리고 작년에는 기지촌 현장활동에 참여했다. 기항에서는 '봉사'를 했다고 보다 그 곳의 언니들이 우리를 위해 수고로운 것도 참았다고 하는 편이 맞을 듯 하다. 그곳은 내가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나의 책임을 느낀 곳이었고 학교에서 벗어나 세상에서 내가 어디쯤 어떤 모습으로 서있는 것일까를 확인한 곳이었다.

여성주의자로 무엇을 해야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했던 곳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 그곳에서 일주일간 머물며 이곳을 잊지 않으리라 했던 그 다짐조차 서서히 지워져 갔다.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는, 기지촌 활동이 어땠냐고 물으면 친구들이 쉽게 대답해주지 못했다. 일주일간이지만 꽤나 복잡한 감정들이 오고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 보다. 정확한 뚜렷한 개념없이 참여했던 나도 어땠냐고 물으면 한마디로 간단히 정리할 수가 없다. 고작 코끼리 발동만을 만지고 온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일까. 그러나 난 여성으로서 여성이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느끼고 온 것 같다. 자신의 삶을 돌보고 앞으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싸우기도 하고 서로 다독여주며 함께 해나갈 행복한 삶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그녀들이 존경스러웠다.

그 이후로 한번도 다시 가보지 않은 게 마음에 켜져 기항에 대해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진다. 다른 일들도 그렇지만 내가 해야 했던 것과 내가 했던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엉켜, 이것저것 말하려 했다가도 글을 써갈수록 짧은 문장으로 간략히 정리되어 버린다.

(), -, ..., .. -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그래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 그저 얻어지는 것은 정말 없다는 걸 나 자신에게 새삼 일깨우고 있는 중이다. 여러 여성주의 활동을 했고 다른 여성주의자들과 함께였지만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였고 무엇을 찾았는가를 묻는다면 난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할지도.....(약간의 오버와 패러디였음)

이런 조금 부족한 여성주의자인 내게 그래도 묻는다면 "여성주의자가 무어냐고?" 그렇게 물어온다면 쉽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수식어 버리고 사족 다 버리고 말하면

여성주의자들의 공통분모는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세상에 대해, 자신에 대해 나름의 기준을 세워가며 그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는 이들이다.

용기있게 자신을 말하고 여성주의에 대한 견고한 나름의 틀로 세상과, 다른 이들과 소통하려 하는 이들이 페미니스트 '들' 이다.



라고 말할란다. 내가 얻은 것들도 이 안에서 나왔고 내가 찾아갈 것들도 이 안에 있다고 말할란다. 아직도 멀고 어둡고 힘들지만 내겐 그래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다.

이젠 조금 다른 발걸음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아마도 나에게 그건 다이렉트(direct)하게 열리지 않을 듯 하니. 그래서 원망하기도 했고 쉽게 지쳐 주저앉기도 했지만 여전히 여성주의가 나를, 여성주의와 내가 다시 깊게 조우하게 되리라 믿는다. 그 길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나의 페미니즘

과이
신방
98

난 왜 페미니스트가 되었으며(혹은 되려고 노력하며), 페미니즘 운동을 하며, 나의 페미니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을까.

대학 들어오기 전에 특별한 페미니스트 입문(?) 경험-남성들의 경우 폭력적인, 권위적인 아버지를 둔다거나, 심한 폭력의 경험, 남성 폭력 문화에 대한 혐오 등등이 있겠다-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1학년 여성학 세미나 때는 은근한 반발감을 가졌기도 하였다. 생각 없이 여성 차별적 발언도 했었다. 이러던 내가 페미니즘 운동을 생각하고, 하게 된 것은 주변의 페미니스트 선배들과 여성학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페미니스트 선배들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여성들의 성폭력에 대한 불쾌감, 공포/젠더적 차별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었으며, 나는 그것을 의식/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더불어 여성학은 나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 시켜주면서 더욱 페미니즘 운동으로 나를 끌어(?)들었다.

그러다가 나는 총여학생회 활동을 하게 되었다.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서, 나는 여성학에 대한 지식만으로, 여성의 경험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나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규정한다는 것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난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남성'이었기 때문이다. 일단 남성이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것을 주변에서는 '이상하게'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이기적'이라거나 '편협'하다고는 보지 않는다. 오히려 여성 운동한다는 남자들에게는 '배려'와 '휴머니즘'의 이미지가 첨가되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 할 때가 많다. 그래서 난 실제적인 활동과는 상관없이, '여성 운동하는 남자'라는 기표 하나로만 내가 과대평가 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실제로 요즘 대학에서 여성학 강좌들이 개설되고, 남자들도 많이-수강생 반 이상이 남자인 경우들이 많다- 듣게 되면서, 여성학 담론에 빠삭하고, 이런 것이 여성주의적이라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남성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많은 남성들이 자신이 사회적으로 수혜자적 위치에 대한 성찰은 없이, 그런 여성학 지식을 상대와의 관계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내가 여성학을 배워서 얘기해보는데 말야...), 더 나아가 아주 주제넘게 여성들을 계몽하는(난 왜 좀 더 당당

하지 못 했나, 왜 이럴 땐 이렇게 하지 않았나) 방편으로 사용할 위험에 빠질 수 있을 것 같다.

여성학에 관심이 있고, 여성운동을 하는 남성들이 자신의 '사회적 남성'이라는 위치, 남성적 특권에 대한 성찰 없이, 여성학적 지식을 차용하고 운운하며 여성학과 여성운동을 교묘하게 자신의 이력서를 치장하는 수단으로서 이용하게 되는 걸 피하길 바랄 뿐이다. (나 스스로도 다짐하는 바이기도 하고)

내가 페미니즘을 하는 '남성'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또 하나 돌아보게 된 것은, 내안의 '남성성'이다. 그것은 섹슈얼리티적인 '남성성'-남자는 섹스를 '당하지' 않고 '한다'-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일상에서의 문화적인 '남성성'-남자는 이래서는 안 된다-이 될 수도 있다. 그러한 남성성이 단지 개인의 특질상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 권력을 지속시키는 기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내 안의 남성성을 성찰하는 데에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여성학적 지식을 여성과 얘기하는 데에 쓰기보다는, 남성들과 '남성성'과 '남성의 폭력'에 대해 얘기하고, 여성 차별 의식을 깨 나가는 데에 쓰는 것이 요즘 나의 페미니즘이다.

남성이 하는 페미니즘이 같이 집회를 나가거나, 지지를 해준다거나 하는 등의 것이기만 한다면, 그런 것은 누구나 조금만의 노력과 신경만 쓴다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남성이 하는 페미니즘은 그러한 내부자-여기선 잠시 자신의 남성을 괄호 치면 그만이다-의 위치를 넘어서, 남성의 위치, 특권들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자신 안의 남성성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하지만 그 성찰이 자학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생각하며, 자신의 활동에 생산적인 부분으로 전환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운 일이긴 하다)

지식으로 시작한 나의 페미니즘은 내 안의 성찰로 이어지며, 남성들에 대해 말 걸기로 진행되고 있다. 남성의 페미니즘이라는 것에 대한 따라야 할 엄격한 모델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내가 겪어오며 바뀌고



나는 여성학에 대한 지식만으로, 여성의 경험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나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규정한다는 것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난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남성이었기 때문이다.

있는, 지향하는 페미니즘일 뿐이다. 하지만 여성학에 관심 있다고, 여성운동을 실천한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이 조그마한 실천 안에서도 자신이 '남성'이라는 걸 의식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애꿎게 주변 여성들에게 설교하기 보단, 주위의 마초 남성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며, 같이 회개합시다!! ^^

여전히 지금도 여러 계기를 통해 나의 '남성'을 발견하며, 괴로워하면서도, 그것을 깨 나가는 즐거운(?) 경험을 하고 있다. 지면을 빌어 옆에서 많이 힘이 되어 주었던 분들께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

호주제도

*질문: 문제가 많긴 한 거 같은데, 그렇다면 호주제 폐지하면, 당장 제사는 누가 지내야 하나요?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에 대한 정당한 발표를 하고 난 후, 나의 발표를 들은 어떤 남학생이 인터넷의 게시판에 통해 나에게 이렇게 물어왔다. 호주제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에는 공감하지만, 폐지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29 호주제가 만들어내는 성(姓)과 가족주의 | 독

32 호주제는 우리의 전통? | 모비

戶主制

이슈] 호주제

독 | 인문 98

호주제가 만들어내는 성(姓)과 가족주의

나의 성(姓)의 역사

어렸을 때 불만이었던 것 중에 그 수많은 위인전이나 역사적 인물들 중에 나랑 같은 성씨의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자기 조상 중에 누구누구 있다고 자랑하는 친구들 앞에서 별로 찬란하지 않은 가문의 역사 때문에 웬지 초라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리 위대한 일을 안한 조상 한분을 찾아 세세히 조사한 다음 거창하게 자랑하면서 약간의 희열을 느끼기도 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나의 뿌리찾기' 같은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조사해오라는 것은 같은 성씨의 할아버지나 시조 이름이었다. 학교에서 내준 숙제 때문이라며 엄마랑 아빠한테 물었더니, 모르는 한자로 가득 채워진 정말 대단해 보이는 책을 펴 보이시며 가르쳐 주었다. 공책에 한글이랑 한자로 너무나 생소한 옛날식 이름을 몇 번씩 적어보면서, 이름 첫 글자가 같다는 사실에서 웬지 모를 뿌듯함을 느끼며 조상은 이런 거구나라는 생

각이 들었다.

같은 성씨의 좀 나이든 분들을 만나면 본(本)이나, 파(派), 시조(始祖) 이름이나 몇 세손(世孫)인지에 대해 묻곤 했다. 이런 물음에 자신 있게 토박토박 애길 못해서 조상도 없는 못배운 상놈 집안이란 애길 들을까봐 자꾸만 잊어버리는 그 어색한 이름을 열심히 외우고 다녔다. 그리고 학교에서 새로운 학년이 되면 반친구 중에 같은 성을 가진 애들이 있나 보고 본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면서 핏줄을 확인하곤 했다.

중학교 역사시간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조선시대에 실제 양반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30퍼센트도 안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혹시 우리집안도 공명첩 사고 양반된 거 아니냐?란 의문이 들었다. 아버지 고향 집이라고 가본 초라한 초가집은 <토지>에 나오는 양반 대갓집하곤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리고 <장군의 아들>에서 어린 김두한이 가진 안동 김씨라고 자랑스럽게 애길 하는 것이 어찌나 당당해 보였는지...

시사주간지에서 대선이나 총선이 가까워지면 유력 정치인들이 여러 종친회를 찾아다니며 같은 성씨라며 지지를 부탁하는 기사를 자주 볼 수 있었다. 종친회가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시간 보내는 복덕방 같은 곳인지 알았는데, 이름깨나 있는 정치인들이 급실거리며 찾아다니는 것을 보니 뭔가 다른 게 있는 듯 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우연한 기회에 족보만드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국립 도서관 7층 족보서고에서 갓 쓴 할아버지들이랑 조상 찾아주는 일을 하였다. 수십 권의 족보를 보면서 신기했던 것은 고려시대나 조선초기에는 딸의 이름도 족보에 기록했다는 사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족보에서 여성들은 이름도 없이 단지 부인의 위치에 그것도 누구 성씨 집안의 딸로만 적혀있었다.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딸은?

부모성 함께쓰기 애길 들었다. 잊혀진 어머니의, 여성의 이름을 찾는다면 말을 듣고 아버지와 같은 성 하나에 그토록 얽매었던 과거가 부끄러워졌다. 집안에서 남편,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면서 보냈던 어머니의 존재만큼이나 어머니의 이름은 초라한 위치에 있고 쉽게 잊혀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따져보면 남성의 성이긴 하지만 엄마가 가지고 있는 성을 함께 쓰면서 잠시나마 그 존재를 확인시켰다.

병원에 갈일이 있어서 의료보험증을 보게 되었다. 할머니, 누나들 이름까지 들어가 있던 자리에 이젠 부모님하고 내 이름 단 세줄 밖에 남아있지 않다. 결혼하더니 일년에 몇 번 보기 힘든 사이가 되었고 부모님이나 나와 그네들의 관계를 증명하는 기록 또한 지워져 버렸다. 이젠 누군가의 치의 자리로 들어가 있겠지만,

어느 날 결혼한 누나가 조카를 데리고 놀러 왔다. 엄마는 자신의 손녀 이름을 부르며 매형의 성이 아닌 누나의 성을 붙여서 불렀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조카가 할머니에게 왜 그런지를 묻자, '너는 엄마 딸이니까 엄마 집에서는 엄마 성으로 부른다'고 애걸 해댔다.

호주제

성씨를 둘러싼 상황은 너무나 폭력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르트르는 사생아로 태어난 자신에게 아버지가 없었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애길 했다고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부모 중에 자신과 성이 같은 사람 - 아버지, 父 - 이 없다는 것은 커다란 결격 사유로 인식된다. '예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은 심한 욕이었으며 큰 상처를 남기는 말이었다. 같은 성씨를 가진 아버지의 부재는 또다른 거세 공포증으로 커다란 두려움의 대상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둘러싼 이러한 얘기들은 단순한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 여성에 대한 제도적인 차별로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근원에는 호주제가 있다.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

고 부가에 입적하며(민법 781조), 혼인하면 아내의 시가에 입적함으로써(민법 826조 3항) 출가외인이 되며, 처가 부의 혈족 아닌 자녀를 입적시킬 때는 그 자녀의 호주의 동의와 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민법 784조) 반면에, 부는 그의 혼외자를 임의로 입적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민법 782조) 부와 모를 차별하고 있다. 여성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갖고 있다 해도 자녀들은 계속 아버지의 호적에 남아 있어야 하므로, 함께 사는 어머니와의 관계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표시될 뿐이다. 이렇듯 호주제는 여성에 대한 일방적인 차별을 기초로 이루어졌다. 하나의 가족(호)에 대표(주)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여성은 그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는가? 남성만이 뿌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男根사상'을 왜 그대로 신봉하는 것인가?

호주제 폐지 주장에 석고대죄로 협박하고 있는 유림, 종친회들은 호주제가 폐지되면 죽어서 조상들 볼 낫이 없다며 기필코 지켜내겠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호주제 폐지를 민족 고유의 전통 파괴로 호도하고, 핏줄에 근거한 족수와 이에 근거한 뜻대로 정치인들의 결정을 막고 있다. 물론 이



들이 모시는 조상에 여성의 자리는 없다. 제삿날 조상한테 절하는 자리에 부정 타기 때문에 여성이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그토록 중시하는 조상님의 자리에도 여성은 끼지 못한다. 철저한 남성 중심적인 생각과 권위주의 속에서 실제적인 제도의 피해자인 여성의 목소리가 들릴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남성만이 호주가 되고, 아들이 대를 이어야 한다는 유럽들의 주장은 사라져 가는 과거의 회미해지는 메아리가 아니라, 현대에 있어서도 견고한 가부장주의로 재현된다. 같은 자식인데도 딸을 낳으면 울어야하고, 웬지 죄를 지은 것처럼 느껴야 하고, 아들을 얻기 위해서선 낙태도 당연한 일이다. 여자는 출가와인이니깐 키워놔야 소용없다는 생각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가정에서 남성의 외도는 호주이기 때문에 잠시 한눈판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여성의 외도는 남성의 재산권 침해로 철저히 처벌받는다.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도 당연히 남성 명의로 보관된다.

남성만이 호주가 된다는 호주제를 전통의 상징적 유물로서만 볼 수는 없다. 오늘날에도 호주제는 여성의 지위를 낮게 여기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 분위기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아무런 잘못도 안했는데도 잘못된 제도 자체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 제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떠나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특히 성별구별에 의지해서 한 성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http://antihoju.jinbo.net>

□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 운동 본부
http://no-hoju.women21.or.kr

여성주의 VS 작가주의 1



by 단단

호주제는 우리의 전통?

들어가며.

질문: 문제가 많긴 한 거 같은데, 그렇다면 호주제 폐지하면, 당장 제사는 누가 지내야 되나요?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에 대한 장황한 발표를 하고 난 후, 나의 발표를 들은 어떤 남학생이 인터넷의 게시판에 통해 나에게 이렇게 물어왔다. 호주제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에는 공감하지만, 폐지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최근 TV드라마나 각종 언론을 통해, 재혼한 여성과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 호주제로 인해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재혼할 경우, 현행 호주법하에서는 그 자녀가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없다. 이로 인해 겪는 고통은 다시금 이혼을 결정할 만큼 심각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호주제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또 그에 대한 심정적, 암묵적 지지도 별도로 줄어든 것 같지는 않다. 그 바탕에는 호주제가 '비종양속의 보존과 전통의 계승'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 일제 식민지라는 쓰라린 경험 탓에, 일단 '전통'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착도 있거니와, 호주제의 경우, 수십년 유지해온 '관습'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 폐지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은 상당히 크다. 앞서의 남학생의 질문은 단순한 것 같지만, 그러한 거부감을 잘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통의 수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혼가정의 복지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호주제 폐지의 정당성을 가족의 행복 추구권에서 일차적으로 확보하려는 방식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과연 호주제가 우리 고유의 전통이며 관습인가 라는 문제가 그것이다. 호주제 존치론과 이에 대한 암묵적 지지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우선 과연 호주제가 식민역사속에서도 호트러지지 않은 채 고유하게 유지되어온 우리의 전통인지에 대해서 질문해야 한다.

미리 말하자면 결론은 다소 엇박(?)이다. 호주제는 우리의 전통이 아니다. 관습도 아니다. 호주제는 일제 식민의 잔재이다. 그것도 매우 교묘하게 만들어진.

호주제도의 역사적 궤적

호주제는 구체적으로 '가' 개념, 호적의 편제양식, 장자승계제도, 상속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전국적 범위의 호구조사가 이루어진 고려시대부터 간략하게 그 궤적을 더듬어 보면 조선시대까지의 호적제도는 현재 우리가 전통이라고 인식하고 보존하고 호주제와는 그 양상이 매우 다르다.

우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혈통의 연속성을 위한 개념인 일제식 '가' 개념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이 시기 호적조사의 주요한 목적은 요역부과나 조세징수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가족상

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호구조사였으며, 따라서 노비나 친척들도 한 가구에 거주하는 한 함께 기재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당시 가장 등의 용어와 함께 쓰인 호주라는 말은 자식 뿐만 아니라 노비 등 함께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말이었으며, 대개의 경우 최연장 남성을 가리켰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모나 과부가 된 여성, 최연장 할머니 등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였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제사를 불교식으로 사원에서 지내는 것인 관습이었으며, 이 역시 딸들이 아닌 딸아들 구별없이 돌아가면서 맡는다는 등, 각자가 제사의 특정 부분을 분할하여 담당하는 형태를 띠었다. 재산역시 자녀 균분상속이었던 고려시대에는 현재와 같은 말 아들 중심의 상속, 제사상계의 관습은 존재하지 않았다. 조선시대도 고려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특히 경국대전을 보면, "혹시 부모가 모두 죽은 후 같은 어머니의 형제이면서, 노비와 재산을 다 차지할 욕심으로 혼인한 여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기를 꺼려하는 자는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라"(세종)고 하여 혼인한 딸이라도 그 상속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성리학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중국식 제사상계관행이 굳어지나, 현재와는 매우 다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호적제도는 일제 식민기에 근대적인 민법안에 규정되며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는데, 바로 이 시기 실제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부분이 왜곡된다. 여기에는 흡스름이 말한 바와 같이 전근대사회에서의 임의적 관습이 근대적 법체계속으로 해석, 분류, 보편화되는 근대적 사회 변화의 측면이 있으며 우리의 경우 일제의 왜곡이라는 변형이 하나 덧붙여지게 된다.

일제에 의한 관습의 왜곡

식민지 초기였던 1912년에 발표된 조선민사령은 식민지 한국에서 가족관계 법규는 기본적으로 '관습'에 따른다는 원칙을 도입하였다. 실제로 일제는 1908년부터 1910년까지 한국 민사·상사 관습 전반에 걸쳐 전국적인 규모로 관습을 조사하여 1910년 한국 관습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호구조사 문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일제는 조선의 관습을 조사함과 동시에 조선에 일제식의 호주제를 도입하기 위해 당시까지 조선에 있지 않았던 호주권등에 관한 내용을 조선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왜곡시키며, 문서화하였다.

당시 고등법원 판사로서 조선의 관습에 대

하여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했던 野村調太郎는 다음과 같이 관습의 왜곡 내용과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시인했다.

"조선에는 가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 지위는 가독 상속에 의하여 취득 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존친이기 때문에 취득하는 것이며 혈연상 부친 부 또는 인척관계상 존친등의 지위에 있음으로서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즉 조선인의 친족적 공동생활의 통솔 중심력은 호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존친 또는 부에게 있는 것이다. 조선인인 민법상가의 관념에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으며 호주권의 존재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고 아직 백지일 것이다."

"조선왕조까지의 상속제도는 제사상속과 유산상속의 2종이었는데 일제는 호주제도를 이식함과 동시에 호주의 지위 내지 호주권의 상속인 호주상속제도도 이식하기 위하여 관습조사에서 상속을 3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이것은 일본식 가독상속제도를 조선에 강제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것이었다"

출처: 한국사 연구자료의 기원, 한국사 연구자료

왜 일제는 조선의 관습을 왜곡하면서까지 호주제도를 강제로 이식하려 했을까? 그 원인을 박병호 교수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



“부권외에 아들을 포괄하는 통일적인 지배권으로서의 가장 가부장제도는 일제에 의하여 비로소 강제된 것이며 그것이 지배권의 내용에 있어서 빈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상징적 의미 이상의 가족국가이념, 즉 가부장제 가족 제도에 있어서의 가족원의 가부장에 대한 절대적 공순의 윤리인 효를 군주에 대한 절대적 공순의 윤리인 충에게까지 매개하는 정신적 지주로서의 의미가 있다.”²¹⁹

실제로 일제의 가족법을 통한 식민지 지배는 1939년 씨성명 변경에 관한 제령(일명 창씨개명)에 이르러 극에 달한다. 즉 가 제도에 기반한 일제식 호주제는 일본과 조선은 하나의 몸이라는 내선일체를 구현하는데에 더없이 좋은 구실이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일제는 우리의 관습을 왜곡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왜곡된 내용을 우리의 관습이라고 끊임없이 주지 시킴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통치를 꾀하는 교묘한 책략을 구사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호주제를 우리의 전통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이유이다.

해방 이후

이러한 호주제도는 1945년 해방을 맞아 다시금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식민지배의 청산과 함께 근대적 개혁을 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헌법과 법률이 정비되는 시기에는 당면한 몇가지 과제 즉 식민지배의 청산, 민주주의적 입법, 전통의 복원이라는 세가지 과제를 당시의 여러 정치적, 사회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했다.

결국 우리 민법은 제대로 된 근대적 변혁은 커녕, 오히려 일제가 만든 민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일제 잔재로 남게된다. 당시 일제가 우리의 관습이라고 왜곡했던 호주제의 내용이 해방후에 제정된 민법에 그대로 실리게 된 것이다. 실제로 해방후의 민법전 제정과정에 참가한 위원들은 친족, 상속법의 초안을 작성하는 데에 일본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보듯, 호주제는 우리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는 역사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일제 식민시기, 일제의 통치의 편의를 위해 일제의 제도가 이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 교묘한 것은 이식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일본에 의해 끊임없이 호주제가 '조선의 전통'이라고 하는 담론이 '고안'되었다는 주지의 사실이다.

호주제의 큰 틀인 가 개념은 우리 고유의 것이 아니라 일제 시기, 일제가 통치의 수월

성을 목적으로 메이지 유신이후의 일본의 제도를 들여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우리의 관습이라는 것 역시 일제가 가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안해 낸 관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왜곡된 관습이 해방이후에도 친일파청산과 식민지배에 대한 고찰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한 탓에 그대로 마치 우리의 전통인 것처럼 인식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탈식민화된 한국에서 관습이 새로이 정립되지 않는 한 그것은 식민지 시기에 확정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

²²⁰ ²²¹ ²²² ²²³ ²²⁴ ²²⁵ ²²⁶ ²²⁷ ²²⁸ ²²⁹ ²³⁰ ²³¹ ²³² ²³³ ²³⁴ ²³⁵ ²³⁶ ²³⁷ ²³⁸ ²³⁹ ²⁴⁰ ²⁴¹ ²⁴² ²⁴³ ²⁴⁴ ²⁴⁵ ²⁴⁶ ²⁴⁷ ²⁴⁸ ²⁴⁹ ²⁵⁰ ²⁵¹ ²⁵² ²⁵³ ²⁵⁴ ²⁵⁵ ²⁵⁶ ²⁵⁷ ²⁵⁸ ²⁵⁹ ²⁶⁰ ²⁶¹ ²⁶² ²⁶³ ²⁶⁴ ²⁶⁵ ²⁶⁶ ²⁶⁷ ²⁶⁸ ²⁶⁹ ²⁷⁰ ²⁷¹ ²⁷² ²⁷³ ²⁷⁴ ²⁷⁵ ²⁷⁶ ²⁷⁷ ²⁷⁸ ²⁷⁹ ²⁸⁰ ²⁸¹ ²⁸² ²⁸³ ²⁸⁴ ²⁸⁵ ²⁸⁶ ²⁸⁷ ²⁸⁸ ²⁸⁹ ²⁹⁰ ²⁹¹ ²⁹² ²⁹³ ²⁹⁴ ²⁹⁵ ²⁹⁶ ²⁹⁷ ²⁹⁸ ²⁹⁹ ³⁰⁰ ³⁰¹ ³⁰² ³⁰³ ³⁰⁴ ³⁰⁵ ³⁰⁶ ³⁰⁷ ³⁰⁸ ³⁰⁹ ³¹⁰ ³¹¹ ³¹² ³¹³ ³¹⁴ ³¹⁵ ³¹⁶ ³¹⁷ ³¹⁸ ³¹⁹ ³²⁰ ³²¹ ³²² ³²³ ³²⁴ ³²⁵ ³²⁶ ³²⁷ ³²⁸ ³²⁹ ³³⁰ ³³¹ ³³² ³³³ ³³⁴ ³³⁵ ³³⁶ ³³⁷ ³³⁸ ³³⁹ ³⁴⁰ ³⁴¹ ³⁴² ³⁴³ ³⁴⁴ ³⁴⁵ ³⁴⁶ ³⁴⁷ ³⁴⁸ ³⁴⁹ ³⁵⁰ ³⁵¹ ³⁵² ³⁵³ ³⁵⁴ ³⁵⁵ ³⁵⁶ ³⁵⁷ ³⁵⁸ ³⁵⁹ ³⁶⁰ ³⁶¹ ³⁶² ³⁶³ ³⁶⁴ ³⁶⁵ ³⁶⁶ ³⁶⁷ ³⁶⁸ ³⁶⁹ ³⁷⁰ ³⁷¹ ³⁷² ³⁷³ ³⁷⁴ ³⁷⁵ ³⁷⁶ ³⁷⁷ ³⁷⁸ ³⁷⁹ ³⁸⁰ ³⁸¹ ³⁸² ³⁸³ ³⁸⁴ ³⁸⁵ ³⁸⁶ ³⁸⁷ ³⁸⁸ ³⁸⁹ ³⁹⁰ ³⁹¹ ³⁹² ³⁹³ ³⁹⁴ ³⁹⁵ ³⁹⁶ ³⁹⁷ ³⁹⁸ ³⁹⁹ ⁴⁰⁰ ⁴⁰¹ ⁴⁰² ⁴⁰³ ⁴⁰⁴ ⁴⁰⁵ ⁴⁰⁶ ⁴⁰⁷ ⁴⁰⁸ ⁴⁰⁹ ⁴¹⁰ ⁴¹¹ ⁴¹² ⁴¹³ ⁴¹⁴ ⁴¹⁵ ⁴¹⁶ ⁴¹⁷ ⁴¹⁸ ⁴¹⁹ ⁴²⁰ ⁴²¹ ⁴²² ⁴²³ ⁴²⁴ ⁴²⁵ ⁴²⁶ ⁴²⁷ ⁴²⁸ ⁴²⁹ ⁴³⁰ ⁴³¹ ⁴³² ⁴³³ ⁴³⁴ ⁴³⁵ ⁴³⁶ ⁴³⁷ ⁴³⁸ ⁴³⁹ ⁴⁴⁰ ⁴⁴¹ ⁴⁴² ⁴⁴³ ⁴⁴⁴ ⁴⁴⁵ ⁴⁴⁶ ⁴⁴⁷ ⁴⁴⁸ ⁴⁴⁹ ⁴⁵⁰ ⁴⁵¹ ⁴⁵² ⁴⁵³ ⁴⁵⁴ ⁴⁵⁵ ⁴⁵⁶ ⁴⁵⁷ ⁴⁵⁸ ⁴⁵⁹ ⁴⁶⁰ ⁴⁶¹ ⁴⁶² ⁴⁶³ ⁴⁶⁴ ⁴⁶⁵ ⁴⁶⁶ ⁴⁶⁷ ⁴⁶⁸ ⁴⁶⁹ ⁴⁷⁰ ⁴⁷¹ ⁴⁷² ⁴⁷³ ⁴⁷⁴ ⁴⁷⁵ ⁴⁷⁶ ⁴⁷⁷ ⁴⁷⁸ ⁴⁷⁹ ⁴⁸⁰ ⁴⁸¹ ⁴⁸² ⁴⁸³ ⁴⁸⁴ ⁴⁸⁵ ⁴⁸⁶ ⁴⁸⁷ ⁴⁸⁸ ⁴⁸⁹ ⁴⁹⁰ ⁴⁹¹ ⁴⁹² ⁴⁹³ ⁴⁹⁴ ⁴⁹⁵ ⁴⁹⁶ ⁴⁹⁷ ⁴⁹⁸ ⁴⁹⁹ ⁵⁰⁰ ⁵⁰¹ ⁵⁰² ⁵⁰³ ⁵⁰⁴ ⁵⁰⁵ ⁵⁰⁶ ⁵⁰⁷ ⁵⁰⁸ ⁵⁰⁹ ⁵¹⁰ ⁵¹¹ ⁵¹² ⁵¹³ ⁵¹⁴ ⁵¹⁵ ⁵¹⁶ ⁵¹⁷ ⁵¹⁸ ⁵¹⁹ ⁵²⁰ ⁵²¹ ⁵²² ⁵²³ ⁵²⁴ ⁵²⁵ ⁵²⁶ ⁵²⁷ ⁵²⁸ ⁵²⁹ ⁵³⁰ ⁵³¹ ⁵³² ⁵³³ ⁵³⁴ ⁵³⁵ ⁵³⁶ ⁵³⁷ ⁵³⁸ ⁵³⁹ ⁵⁴⁰ ⁵⁴¹ ⁵⁴² ⁵⁴³ ⁵⁴⁴ ⁵⁴⁵ ⁵⁴⁶ ⁵⁴⁷ ⁵⁴⁸ ⁵⁴⁹ ⁵⁵⁰ ⁵⁵¹ ⁵⁵² ⁵⁵³ ⁵⁵⁴ ⁵⁵⁵ ⁵⁵⁶ ⁵⁵⁷ ⁵⁵⁸ ⁵⁵⁹ ⁵⁶⁰ ⁵⁶¹ ⁵⁶² ⁵⁶³ ⁵⁶⁴ ⁵⁶⁵ ⁵⁶⁶ ⁵⁶⁷ ⁵⁶⁸ ⁵⁶⁹ ⁵⁷⁰ ⁵⁷¹ ⁵⁷² ⁵⁷³ ⁵⁷⁴ ⁵⁷⁵ ⁵⁷⁶ ⁵⁷⁷ ⁵⁷⁸ ⁵⁷⁹ ⁵⁸⁰ ⁵⁸¹ ⁵⁸² ⁵⁸³ ⁵⁸⁴ ⁵⁸⁵ ⁵⁸⁶ ⁵⁸⁷ ⁵⁸⁸ ⁵⁸⁹ ⁵⁹⁰ ⁵⁹¹ ⁵⁹² ⁵⁹³ ⁵⁹⁴ ⁵⁹⁵ ⁵⁹⁶ ⁵⁹⁷ ⁵⁹⁸ ⁵⁹⁹ ⁶⁰⁰ ⁶⁰¹ ⁶⁰² ⁶⁰³ ⁶⁰⁴ ⁶⁰⁵ ⁶⁰⁶ ⁶⁰⁷ ⁶⁰⁸ ⁶⁰⁹ ⁶¹⁰ ⁶¹¹ ⁶¹² ⁶¹³ ⁶¹⁴ ⁶¹⁵ ⁶¹⁶ ⁶¹⁷ ⁶¹⁸ ⁶¹⁹ ⁶²⁰ ⁶²¹ ⁶²² ⁶²³ ⁶²⁴ ⁶²⁵ ⁶²⁶ ⁶²⁷ ⁶²⁸ ⁶²⁹ ⁶³⁰ ⁶³¹ ⁶³² ⁶³³ ⁶³⁴ ⁶³⁵ ⁶³⁶ ⁶³⁷ ⁶³⁸ ⁶³⁹ ⁶⁴⁰ ⁶⁴¹ ⁶⁴² ⁶⁴³ ⁶⁴⁴ ⁶⁴⁵ ⁶⁴⁶ ⁶⁴⁷ ⁶⁴⁸ ⁶⁴⁹ ⁶⁵⁰ ⁶⁵¹ ⁶⁵² ⁶⁵³ ⁶⁵⁴ ⁶⁵⁵ ⁶⁵⁶ ⁶⁵⁷ ⁶⁵⁸ ⁶⁵⁹ ⁶⁶⁰ ⁶⁶¹ ⁶⁶² ⁶⁶³ ⁶⁶⁴ ⁶⁶⁵ ⁶⁶⁶ ⁶⁶⁷ ⁶⁶⁸ ⁶⁶⁹ ⁶⁷⁰ ⁶⁷¹ ⁶⁷² ⁶⁷³ ⁶⁷⁴ ⁶⁷⁵ ⁶⁷⁶ ⁶⁷⁷ ⁶⁷⁸ ⁶⁷⁹ ⁶⁸⁰ ⁶⁸¹ ⁶⁸² ⁶⁸³ ⁶⁸⁴ ⁶⁸⁵ ⁶⁸⁶ ⁶⁸⁷ ⁶⁸⁸ ⁶⁸⁹ ⁶⁹⁰ ⁶⁹¹ ⁶⁹² ⁶⁹³ ⁶⁹⁴ ⁶⁹⁵ ⁶⁹⁶ ⁶⁹⁷ ⁶⁹⁸ ⁶⁹⁹ ⁷⁰⁰ ⁷⁰¹ ⁷⁰² ⁷⁰³ ⁷⁰⁴ ⁷⁰⁵ ⁷⁰⁶ ⁷⁰⁷ ⁷⁰⁸ ⁷⁰⁹ ⁷¹⁰ ⁷¹¹ ⁷¹² ⁷¹³ ⁷¹⁴ ⁷¹⁵ ⁷¹⁶ ⁷¹⁷ ⁷¹⁸ ⁷¹⁹ ⁷²⁰ ⁷²¹ ⁷²² ⁷²³ ⁷²⁴ ⁷²⁵ ⁷²⁶ ⁷²⁷ ⁷²⁸ ⁷²⁹ ⁷³⁰ ⁷³¹ ⁷³² ⁷³³ ⁷³⁴ ⁷³⁵ ⁷³⁶ ⁷³⁷ ⁷³⁸ ⁷³⁹ ⁷⁴⁰ ⁷⁴¹ ⁷⁴² ⁷⁴³ ⁷⁴⁴ ⁷⁴⁵ ⁷⁴⁶ ⁷⁴⁷ ⁷⁴⁸ ⁷⁴⁹ ⁷⁵⁰ ⁷⁵¹ ⁷⁵² ⁷⁵³ ⁷⁵⁴ ⁷⁵⁵ ⁷⁵⁶ ⁷⁵⁷ ⁷⁵⁸ ⁷⁵⁹ ⁷⁶⁰ ⁷⁶¹ ⁷⁶² ⁷⁶³ ⁷⁶⁴ ⁷⁶⁵ ⁷⁶⁶ ⁷⁶⁷ ⁷⁶⁸ ⁷⁶⁹ ⁷⁷⁰ ⁷⁷¹ ⁷⁷² ⁷⁷³ ⁷⁷⁴ ⁷⁷⁵ ⁷⁷⁶ ⁷⁷⁷ ⁷⁷⁸ ⁷⁷⁹ ⁷⁸⁰ ⁷⁸¹ ⁷⁸² ⁷⁸³ ⁷⁸⁴ ⁷⁸⁵ ⁷⁸⁶ ⁷⁸⁷ ⁷⁸⁸ ⁷⁸⁹ ⁷⁹⁰ ⁷⁹¹ ⁷⁹² ⁷⁹³ ⁷⁹⁴ ⁷⁹⁵ ⁷⁹⁶ ⁷⁹⁷ ⁷⁹⁸ ⁷⁹⁹ ⁸⁰⁰ ⁸⁰¹ ⁸⁰² ⁸⁰³ ⁸⁰⁴ ⁸⁰⁵ ⁸⁰⁶ ⁸⁰⁷ ⁸⁰⁸ ⁸⁰⁹ ⁸¹⁰ ⁸¹¹ ⁸¹² ⁸¹³ ⁸¹⁴ ⁸¹⁵ ⁸¹⁶ ⁸¹⁷ ⁸¹⁸ ⁸¹⁹ ⁸²⁰ ⁸²¹ ⁸²² ⁸²³ ⁸²⁴ ⁸²⁵ ⁸²⁶ ⁸²⁷ ⁸²⁸ ⁸²⁹ ⁸³⁰ ⁸³¹ ⁸³² ⁸³³ ⁸³⁴ ⁸³⁵ ⁸³⁶ ⁸³⁷ ⁸³⁸ ⁸³⁹ ⁸⁴⁰ ⁸⁴¹ ⁸⁴² ⁸⁴³ ⁸⁴⁴ ⁸⁴⁵ ⁸⁴⁶ ⁸⁴⁷ ⁸⁴⁸ ⁸⁴⁹ ⁸⁵⁰ ⁸⁵¹ ⁸⁵² ⁸⁵³ ⁸⁵⁴ ⁸⁵⁵ ⁸⁵⁶ ⁸⁵⁷ ⁸⁵⁸ ⁸⁵⁹ ⁸⁶⁰ ⁸⁶¹ ⁸⁶² ⁸⁶³ ⁸⁶⁴ ⁸⁶⁵ ⁸⁶⁶ ⁸⁶⁷ ⁸⁶⁸ ⁸⁶⁹ ⁸⁷⁰ ⁸⁷¹ ⁸⁷² ⁸⁷³ ⁸⁷⁴ ⁸⁷⁵ ⁸⁷⁶ ⁸⁷⁷ ⁸⁷⁸ ⁸⁷⁹ ⁸⁸⁰ ⁸⁸¹ ⁸⁸² ⁸⁸³ ⁸⁸⁴ ⁸⁸⁵ ⁸⁸⁶ ⁸⁸⁷ ⁸⁸⁸ ⁸⁸⁹ ⁸⁹⁰ ⁸⁹¹ ⁸⁹² ⁸⁹³ ⁸⁹⁴ ⁸⁹⁵ ⁸⁹⁶ ⁸⁹⁷ ⁸⁹⁸ ⁸⁹⁹ ⁹⁰⁰ ⁹⁰¹ ⁹⁰² ⁹⁰³ ⁹⁰⁴ ⁹⁰⁵ ⁹⁰⁶ ⁹⁰⁷ ⁹⁰⁸ ⁹⁰⁹ ⁹¹⁰ ⁹¹¹ ⁹¹² ⁹¹³ ⁹¹⁴ ⁹¹⁵ ⁹¹⁶ ⁹¹⁷ ⁹¹⁸ ⁹¹⁹ ⁹²⁰ ⁹²¹ ⁹²² ⁹²³ ⁹²⁴ ⁹²⁵ ⁹²⁶ ⁹²⁷ ⁹²⁸ ⁹²⁹ ⁹³⁰ ⁹³¹ ⁹³² ⁹³³ ⁹³⁴ ⁹³⁵ ⁹³⁶ ⁹³⁷ ⁹³⁸ ⁹³⁹ ⁹⁴⁰ ⁹⁴¹ ⁹⁴² ⁹⁴³ ⁹⁴⁴ ⁹⁴⁵ ⁹⁴⁶ ⁹⁴⁷ ⁹⁴⁸ ⁹⁴⁹ ⁹⁵⁰ ⁹⁵¹ ⁹⁵² ⁹⁵³ ⁹⁵⁴ ⁹⁵⁵ ⁹⁵⁶ ⁹⁵⁷ ⁹⁵⁸ ⁹⁵⁹ ⁹⁶⁰ ⁹⁶¹ ⁹⁶² ⁹⁶³ ⁹⁶⁴ ⁹⁶⁵ ⁹⁶⁶ ⁹⁶⁷ ⁹⁶⁸ ⁹⁶⁹ ⁹⁷⁰ ⁹⁷¹ ⁹⁷² ⁹⁷³ ⁹⁷⁴ ⁹⁷⁵ ⁹⁷⁶ ⁹⁷⁷ ⁹⁷⁸ ⁹⁷⁹ ⁹⁸⁰ ⁹⁸¹ ⁹⁸² ⁹⁸³ ⁹⁸⁴ ⁹⁸⁵ ⁹⁸⁶ ⁹⁸⁷ ⁹⁸⁸ ⁹⁸⁹ ⁹⁹⁰ ⁹⁹¹ ⁹⁹² ⁹⁹³ ⁹⁹⁴ ⁹⁹⁵ ⁹⁹⁶ ⁹⁹⁷ ⁹⁹⁸ ⁹⁹⁹ ¹⁰⁰⁰

답 ; 제사는 원래대로 그냥 지내시면 됩니다. 제사는 '제주'가 지내는 것이지 호주가 지내는 것이 아니니까요. 호주제가 없어져도 우리 고유의 제사문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현행 호주제 하에서 시간만 누나는 가족이 아닌데, 그렇다고 누나를 가족이 아닌가요? 누나는 그냥 누나지요. 호주제랑 상관없이 가족은 그냥 가족이죠. 마찬가지로 호주제가 없어져도 그와 상관없이 제사는 그냥 제사인 거죠.

36 그 페미니즘이 묻는다 | 편집부

37 소통 | 나사

41 한국의 '좌파' | 마루

43 정치에서의 여성 | 푸름

[시선] 진보와 페미니즘

이 자리에서 다시금 이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페미니즘과 사회주의의 반목은 어디에서 기원한 것인가, 왜 페미니즘은 서구사상 혹은 부르주아적이라고 비판받아 왔으며, 이 비판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러한 비판은 '진보'에 대한 (사회주의의) 해게 모니를 드러내면서 페미니즘의 정치적 힘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戶主制

‘페미니즘 반대 역사’에 대한 잡지를 기획하면서 진보와 사회주의 반목에 주목하게 된 것은 최보은씨의 박근혜 지지주장이나 장상 전 총리서리 인준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좌파와 페미니즘간에 불거진 논쟁 때문이었다. 사실 논쟁이 촉발된 문제들은 여성문제가 제도 정치에서 목소리를 갖게 됨에 있어서 여성 정체성이 우선적으로 중요한가, 혹은 여성인지 남성인지에 관계없이 여성 문제 자체를 관찰시키는 것이 가능한 좀더 ‘진보’적인 성향의 정치가를 찾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정치적 재현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즉, 여성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가가 주로 논의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지면상의 논쟁 속에서 이것은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고 오히려 담론은 사회주의와 페미니즘간의 반목으로 흘렀다. 이로써 문제의 내용이나 맥락은 달라졌지만 결국 ‘진보’적인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주의와 페미니즘간에 있어왔던 기존 담론의 쟁점을 건드렸고, 서로 말이 오고가는 동안 오고간 비판과 주장들이 사실 그것에서 더 나아가지도 못했다. 여성들은 그들의 정치적 세력화를 위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혹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정치 내 세력화를 위한 발판으로서) 박근혜를 지지해야 하는가? 문제의식의 출발점은 이것인데 왜 이 질문은 곧바로 ‘박근혜를 지지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하는 좀더 일반화된 질문을 지나 그를 지지하는 것이 부르주아적인가, 아닌가 라고 판단해야 하는가, 실제 최보은씨의 주장이나 장상 전 총리서리에 대한 페미니즘 내의 입장들은 그 자체로써도 논쟁적인 것이었고, 이러한 논쟁들이 페미니즘이라는 학문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분명 아쉬워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금 이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페미니즘과 사회주의의 반목은 어디에서 기원한 것인가. 왜 페미니즘은 서구사상 혹은 부르주아적이라고 비판받아 왔으며, 이 비판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러한 비판은 ‘진보’에 대한 (사회주의의) 해계모니를 드러내면서 페미니즘의 정치적 힘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와 함께 좌파와 페미니즘 모두에 정치적 관심이 있는 눈으로 본 경험적인 글도 함께 읽는다.

그리고 다시 여성과 정치에 대해 생각해본다. 여성으로써 정치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여성의 혹은 여성 정치가의 선택은 무엇인가? (최보은이 생물학적 여성을 선택했다면 박근혜는 박정희 시대에 대한 이미지로써의 남성적 여성을 선택했다.) 많은 사람들이 장상 전 총리서리를 비도덕성 때문에 비판하면서도 또 한 여성정치가가 정치를 해야 정치판이 깨끗해진다고 말한다. (장상은 여성이 아니던가? 아니면 도덕적으로 깨끗한 여성 정치인만이 ‘여성’이 정치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여성들은 현 21세기 키워드 중 하나이자 남성성의 폐해들을 보완해줄 ‘여성성’을 가지고 정치관행을 뒤엎을 깨끗한 여성정치가가 도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여성이기 때문에 (그 자질이나 도덕성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지해야 한다는 정치적 강령을 발표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자신의 이해를 위해 여성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과 정치가에게 기본적인 자질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위적인 두 가지 요구가 남성 중심적인 정치영역에 함께 적용될 때 어떤 문제를 낳을 수 있는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그’ 페미니즘이 묻는다

기획의도
— 편집부



처음 이 글이 기획이 되었을 때는 최보은씨의 박근혜 지지선언과 뒤이은 진보진영의 몇몇 비판들과 페미니즘의 반박들로 떠들썩하던 때였다. 그때는 잡지란 무엇 담론의 최첨단을 기어야 한다는 생각에 만에 참단이라고 진보진영에서 자칭 총대예기를 청했던 김규형씨에 대한 조금은 차분한 반박글을 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장상총리서리 인준문제 때문에 다시금 이 문제에 불이 붙었을 때에도 이 기획은 그리 낯아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규형이나 신현준의 반박글을 읽는다는 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필’을 한데다가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보니 너무나 산만한 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글은 한마디로 여성/페미니스트들에게 보내는 종합선물세트 같았다. 김규형이 소위 90년대 급진적 페미니즘이라 부르는 일단의 페미니즘담론이 급격하게 평창하던 시기에 내가 짧은 몇 년 동안이나 페미니즘을 고안하면서 경험해보았던 모든 남성들/진보진영의 반응이 다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서구사상이나 들어와 뽀뽀대고, 너무 시끄럽거나 혹은 너무 목소리가 없고, 감정적이고 너무 일상적이거나 혹은 너무 성중심으로 과대 일반화되어 있고...등등. 사실은 그 글들을 굶어다가 한 문장 한 문장 짚어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결정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글썽이의 게으름으로 쓰는 것을 치일피일 마루다가 이리저리 책도 뒤적거리고 남의 반응도 살피고 하면서 나는 이 문제가 장원 씨 사건 때도 100인위가 문제 제기할 때도 불거졌던, 혹은 더 앞서서 여성주의를 소위 ‘진보’ 안에서 고민했던 70-80년대 선배들한테서도 불거졌던, 빛 바래도 한참을 바랜 (심지어는 서구에서도 비슷하게 문제시되었던) 고전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서로간에 아직 ‘화해’ 되지 못했던 사실 꽤나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 특히 사회주의의 고민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있던 여성/페미니스트라면 대개 사춘기 열병을 앓듯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정체성의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은 서로에게 있어 근본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미 너무 많은 말들이 오고가면서 낡고 달아서 헝사리 하나를 더 얹어놓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무엇이 사회주의와 페미니즘을 적대적이게 하는가?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각각이 똑같은 언어를 내뱉고 있는데 그 사이클이 한번하번 돌아갈 때마다 변화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이 내가 그동안 고민해왔던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매우 화해될 수 없는 서로 다른 가정 위에 서있고 그것을 각각의 이론에서 (좀더 정확히는 사회주의 이론은 페미니즘을) 융합시키는 데에도, 실천적으로 그것을 정당하게 고려하는 데에도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다.

근본적인 억압, 보편적 인권

내가 사회학 공부를 하는 도중에 매우 특이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바로 존스 부인이라는 사람인데 그녀는 ‘약간의 땅을 소유하고 있고, 기계기술자와 결혼해서 앞날이 밝은 회계사의 어머니’¹⁾이다. 분명 중산층의 즐거운 나의 집의 우아한 안주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돌연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한 백화점에서 정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한순간 부르주아 여성이 임노동자로 전락한 셈이다. 사회학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 그녀는 정말 임노동자를 선택했는가? 이에 대한 그들의 논쟁은 그것이 정말 선택인가 아닌가를 둘러싼 지루한 것일 뿐이다. 이상한 것은 (적어도 내가 본 책에서는) 존스 부인이 여성이라는 점이 주는 계급 외의 제약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부르주아가 임노동자를 선택한 특이한 예로 나올 뿐이다. 성별적인 사고방식은 이런 문제의 해결에서 매우 흔한 것으로 이로써 그녀가 부



여성도 노동시장에서 자본가, 노동자 행세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남성보다 가치가 적고 아내의 계급적 위치는 언제나 불안정하다.
 부르주아 남편을 둔 부르주아의 생활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아내가 최저임금을 받는 임노동자이기도 하다고 할 때
 그녀는 부르주아인가, 노동자인가?

로주아의 아내로서 자식을 다 키우고 비정규직 서비스업종에
 출리 들어가는 일반적 경향 혹은 구조는 밝혀지지 않는다.

계급을 생각할 때 흔히 잊혀지는 것은 계급이 최초로 남성
 자본가와 남성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는 개념이었다는 사실이
 다. 산업화 초기단계에 형성된 핵가족화와 가족 임금제는 원래
 가족을 노동자와 그의 아내와 아이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경제
 적 단위로 간주한다. 이것은 여성의 가족 안에서 보살핌의 노동
 이 무급이고 이에 따라 여성의 노동은 남성의 것에 비해 가치가
 적어지며 이것이 노동시장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래서 여성도 노동시장에서 자본가, 노동자 행세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남성보다 가치가 적
 고 아내의 계급적 위치는 언제나 불안정하다. 부르주아 남편을
 둔 부르주아의 생활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아내가 최저임금을 받
 는 임노동자이기도 하다고 할 때 그녀는 부르주아인가, 노동자
 인가?

어느 쪽이더라도 계급적대는 그녀의 삶의 소외를 해결해줄
 수 없다. 사실 단순히 위치에 의한 지위인 계급은 인간을 무색
 무취의 "개인"으로 가정하는 매우 근대적인 용어이다. 그리고
 그 개인이 무색무취가 아니며 실제 삶에서 느끼는 소외가 몸 자
 체에 새겨지는 (사실 계급도 몸 자체에 새겨진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지만은) 지위인 성, 인종 등을 고려 할 때만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그 후의 일이고 페미니즘도 이
 러한 통찰의 연장선상에 서있다. 따라서 김규형과 신현준이
 70-80년대 페미니즘과 90년대의 페미니즘을 계급을 갖대로
 평가한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이다. 90년대 페미니즘은 서구
 페미니즘을 이온 "양년들"이 아니라 '진보'라는 가족 안에서 계
 급 위에서 여성문제를 생각하는 것의 한계를 뼈아프게 인식한
 80년대 페미니즘의 딸들이다. <밥·꽃·양>을 보면서 만약에
 진보진영이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가 단순히 연대할 필요성
 을 느꼈다면 여전히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들이 모두

똑같은 노동자였다면 이 문제는 최소의 인원만을 감원시킨 노
 동조합과 사측의 협상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계
 급적대가 선험적 이분법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상
 황에서 다양한 집단 간 타협과 배제의 운동에 의한 것이라는 점
 이다. 자본주의가 항상 남성노동자가 '견딜만한 억압'이 협상되
 었기 때문에 유지되었으며 이것이 여성이나 외국인노동자 등을
 담보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계급논의 만으로는 알고있으면서도
 분석되지 않은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이다.

권력"들" 사이에 찢겨진 주체

그래서 사실 답은 페미니즘에서 더 찾으려고 기를 썼지만
 정확히 말해 질문은 사회주의의 앞에 놓여있다. 다양한 억압의
 근원들을 어떻게 (계급과 통합시켜) 사고할 것인가?

위의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나는 또 하나의 특이한 사람인
 최씨 아줌마를 예로 들지 않을 수가 없다. 그녀는 교육받은 인
 텔리로 돈도 잘 벌고 굳이 구분하자면 자기 자족적인 썸피 부
 르주아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녀는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노동자와 결혼한다. 그는 어쩌면 가장노릇의 으뜸인 경제적 부
 양능력이 아내에 비해 떨어지니 열등감을 느낄 것이다. 그것은
 열등감을 넘어서 애고의 위기일 수도 있다. 가사 일이나 육아
 를 강요할 수도 없고 가정대소사에 대한 의견을 뒤통하게 내세
 우는 것이 힘들 수도 있다. 그 열등감은 아마도 최씨를 상습적
 으로 구타하는 것으로 분출될지도 모른다. 매우 조야한 예이지
 만 이것은 또한 "상류계급 여성이 하층계급 남성에게서 억압받
 을 가능성"이라든가, 그 페미니즘, 페미니즘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계급과 성을 통합하여 사고할 때 대다수가 계급과 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집단 정체성을 부과한다. 부르주아 여성, 노
 동자 남성, 노동자 여성... 이런 식이다. 나아가 이런 집단 구분
 짓기는 그 집단 내 권력 그물망이 명쾌하게 드러난 것처럼 보

이게 하여 그에 따라 일정한 위계질서를 보여준다.

노동자 남성과 부르주아 여성 집단은 각각 노동자 여성을
 억압하고, 부르주아 남성은 그들 모두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억압한다. 이런 단순한 비교 속에서 각 집단의 제약과 자원은
 양적으로 측정되고 그에 따라 부르주아 여성의 징징거림은 노
 동자 남성에게 사치로 여겨진다. 억압의 근원이나 집단 간의
 세력관계의 복잡성은 이러한 "아둔한" 질문에서 드러나지 않고
 따라서 문제의 해결방향을 찾을 수도 없다. 최씨 아줌마의 가
 정에서 두 권력이 서로 교차하면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상쇄시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도 위와 같은 질문은 마치
 한쪽이 상쇄되어 사라진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문제는 권력들의 교차지점이 정확히 결절지점을 만드는 것
 이 아니라 모순을 일으킨다는 데 있다. 단순한 상상으로, 중산
 층 이상의 여성을 위한 정책을 소신을 가지고 펴는 여성정치가
 가 있다고 할 때(사실 여성문제의 사안들이 계급구분으로 정확
 히 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점에서 노동자 여성과 부르주아
 여성의 구분은 구분 그 자체로도 여성의 정치적 힘을 약화시키
 는 효과를 발휘한다.) 여성들은 노동문제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
 라 적대적이기까지 한 그녀를 지지해야 하는가? 비단 계급문
 제만 관련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랍여성들은 민족 정체성을
 위해 처도르를 써야 하는가, 여성인권을 위해 벗어야 하는가?

미국 흑인여성들은 그 시절에 (흑인 인권을 위해)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을 지지해야 했는가, 성희롱을 당했다는 아나타
 힐을 지지해야 했는가? 둘 이상의 권력관계를 밝히는데 있어
 서 정치적 목소리는 보다 근본적인 억압을 밝혀내려는 것이 아
 닌 그 위치의 <모순>을 이해할 때 비로소 드러날 수 있다.¹⁰⁰

100) 이 지점에서 노동자 페미니즘 연구의 시선 일관

각각의 권력관계가 특정한 사안들에서 모순적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합해서 이론화하는 어떤 일반화의 시도도 특정 그룹
 의 부분적 억압을 희석시키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페미

니스트들이 '근본적인 억압'이라든지 '보편적 인권'이라는 때
 잘 좋은 말에 하나같은 목소리로 별때같이 일어나 소름끼쳐하
 는 이유이다.) 똑같은 논리로 이것은 페미니즘 내에서 계급적
 차별과 성적 차별의 체계를 상호교차 시키려고 시도한 이중체
 계론이 풀어나지 못한 부분이기도 하다.

위치에 의해 왜곡되는 목소리

권력관계들 간의 모순이라는 것은 어떤 거대담론도 모든 종
 류의 억압관계를 꿰뚫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때로 사안을 일반화시키는 어떠한 합리적인 설명도 잡을 수 없
 는 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것이 아마도
 페미니스트들이 그렇게 설명하고자하나 설명할 수 없는 그 계
 례침함의 근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꼭 논리성, 합리성
 을 손쉽게 폐기해버리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보진영
 내에서 여성활동가가 당혹감을 느끼게 되는 것도 페미니즘과
 사회주의의 당위성 사이의 외줄타기가 대부분 논리적으로 그들
 에게 흡수되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에 소급해
 보면 현상을 파악하는 다른 시각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들의 논리,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이데올로기 위에서 홀로 하
 는 곡예의 도중에 그것을 짊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어떠한
 담론도 원치 않는 권력관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다. 아랍여성들이나 아나타 힐의 억압에 분노하고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백인여성/페미니스트들이 (의도치 않게) 자신
 들의 인종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드러냈을 뿐이라는 사실을 염
 두 해 둘 필요가 있다. (이것이 김규형의 비판에 대부분의 페미
 니스트들이 수긍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이다.) 이데올로기
 의 시대에는 누가 말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가 중요했다. 그들은 보편적인 정의를 주장했고

성과가 있었으며 그것의 실현은 목전에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위기는 단순히 구소련의 몰락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보편적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는 그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불평등이나 억압은 차이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제거하는 일반화의 논리에서 온 것이고 이에 작동하는 권력은 미시적이며 담론자체에서 힘을 발한다. 그 안에서 주체가 무기력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체(들)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는 효과적인 정치적 목소리와 행동은 오직 그 자신만이 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이의 윤리

다양성을 보편적 담론에 통합시킬 수 없다면, 어떻게 한 목소리를 내어 사안에 대한 정치적 힘을 낼 수 있을 것인가? 다양성 속에서는 어떻게 연대해야 하는 것인가? '차이의 정치'의 목표, 역할, 전략, 전략을 찾는다는 것은,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그것이 있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차이를 다루는 방식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2007년)

대답은 꽤 진부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차이의 정치는 어떤 위치의 미묘한 권력관계를 그 자리에 서보지 않은 사람이 온건히 드러내고 밝혀내는 것은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의 발화는 그 발화 위치에 따른 또 다른 권력의 효과를 낳으리라는 것을 포함한다. 그것이 바로 '정체성의 정치'의 시작이고 발화 위치에 민감하게 되는 이유이다. 이에 따라 연대는 단일한 전선, 단일한 적을 앞세운 동지들이 아니라 사안마다 서로 다른 주체들(각각에게는 타자들)이 내는 다른 목소리들 간의 경합과 타협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한창 김규환의 글 때문에 들쭉날쭉할 때 '페미니즘 전체를

짜집아 비판 하는 게 아닌데도 모든 페미니스트들이 다 그 글에 반발하는 것이 이상하다.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글을 어느 게시판에서 읽은 적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김규환이 〈그놈들과 그년들〉에서 편 논자와 같은 것이기도 하다. 사실 이 글을 쓰게 된 발단도 그런 것이었다. 이들은 페미니즘의 일면을 비판하고 있는데 왜 페미니스트 전체가 분노하게 되는 걸까? 물론 김규환의 글이 (앞에서도 잠깐씩 언급했듯이) 페미니즘 전체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든가 더 근본적으로는 좌파 전체가 (본의 아니게) 기대고 있는 어떤 가정에 의한 것이다. 정치적으로 옳은 목소리는 그 의도가 옳다면 그 발화 위치와 대상간에 주어진 관계와 상관없이 언제나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 '보편적 인권'을 위하는 길은 언제나 모순 없이 절대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연대를 위해서는 동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응당 갈라져야 할 사람들"이라는, "한자-조선족 또는 서민들, 비정규직 30만"이 오직, 그것도 물과 기름처럼 적대적으로 노동자와 자본가라면, 물론, 그 분류 안에 모든 사람들을 잘 구겨 넣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그 안에 무수히 많은 다름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권력 불평등은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따라서 페미니즘의 사회인식은 사회주의의 즉자적 계급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고 있기도 한 것이다.) 한 개인이 전체로서의 정의를 보는 것이 어렵다면 또 다른 개인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우선 사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일단의 페미니스트들이 인식론에 앞서 차이의 윤리를 강조하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른 사회주의와 페미니즘은 이제 좀더 유동적인 목표가 된 "진보"를 위해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한국의 '좌파'

마루 | 인문 99

기억 하나.

한 진보 시민단체에서 모임이 있던 후의 뒤물이. 활동이 왕성한 시민단체였기에, 그리고 시민단체의 성격이 성격인 만큼, 그 자리에는 한국에서 이른바 '좌파' 내지는 '진보' 지식인이란 불리는 인물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뒤물이 자리이니 테이블에 음식과 술이 오가는 것은 당연한 일. 모임이 딱딱하고 고단했던 만큼 술과 음식이 돌아가자, 자리에서는 조금씩 여유 있고 활기찬 이야기들이 채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의 어느 술자리에서 볼 수 있듯, 여기에도 어김없이 어른과 손아랫사람간의 술 주고받기가 있었는데, 모임의 실무를 책임지고 관리했던 간사(여자인)에게 술잔이 건네어질 차례가 왔다. 그 간에 모임에 깊이 간여하며 간사와 많이 일해 왔던 나이 지긋한 교수. 간사에게 술을 따르며 수고했다는 인사를 아끼지 않는다. 인사와 함께 상대의 술잔을 채우던 술병을 떨구며 농담처럼 건네는 한 마디.

"그런데, 간사는 언제 시집가?"

순간, 질문상대자의 어색한 웃음과 망설이는 눈빛, 그리고 보일 듯 말듯한 약간의 고개짓이 함께 하더니, 약간의 시간을 두고서야 간소한 대답이 우겨나온다. "사람이 있어야 가죠."

진보, 혹은 좌파라 불리는 일련의 그룹들에게 '사적인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듯 하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공적인 영역에서의 대단한 일들—정치, 경제이론부터 묵직한 바로 그 것들이며, 그들의 주된 개념은 '계급'이다. 그들은 이것으로 세상을 보고, 이것으로 세상을 묻는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좀처럼 그들의 신경망을 자극하지 못한다. 계급의 '계'자 비슷한 것, 'class'의 'c'자 비슷한 것만 보아도 흥분하여 득달같이 달려드는 그들이지만, 아주 약간, 조금만 거기에서 벗어나도 그들은, 그들이 걱정하라고, 깨어나라고 외치는 그들의 프롤레타리아 형제들만큼이나 무디어진다. 마치 적색망토만

을 맹렬히 쫓는(그래서 그 망토를 쫓는 동안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흥분하고, 아우하고, 소리치는 무수한 군중을 알아채지 못하고, 제 몸 속을 파고드는 창 끝의 예리한 날카로움 역시 느끼지 못하는, 오직 자신의 숨소리와 눈앞의 흔들리는 깃발에만 매달리는) 투우장의 검은 소처럼 말이다.

매우 사소하고 여겨질 한 편의 문답이었건만, 바로 그러한 사소함 때문에, 그리고 이 사소한 문답이 아무런 질문 없이 지나쳐 버렸다는 사실에서, 그 여간사에게 술잔을 건넸던 좌파교수의, 그리고 그 자리에 동석하여 그 문답을 조용히 지켜만 보았던 다른 좌파교수들의 '어떤 것'에 대한 무관심이 여실히 묻어난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한편의 성은 어떤 역할을 하며, 그 역할은 무엇을 요구하고 또 무엇을 제한하는지에 대한 일련의 질문이 그 좌파교수에게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 그리고 그 이전에도 역시 결코 떠오를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계급'이라는 자신의 안경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인자한 웃음과 함께 상대에게 '편안히' 질문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결혼을 언제 할 생각이나 도 아닌 '시집은 언제 가겠냐'고 말이다.

사적인 것에 대한 너무도 평화로운 무관심.

기억 둘.

같은 시민단체. 이번엔 간사들의 모임.

마침가지의 술자리였지만, 동료들간의 모임이었기에 더 소란스럽고 흥겨웠던 자리.

술이 몇 순배 쯤 들었을까. 함께 보고 있던 TV뉴스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 누군가의 이야기에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그 간사가 평소 품고 있던 생각의 타래가 갑자기 풀려났던 것인지

지 정확히 분별이 가지는 않지만, 문득 한 간사가 '성적 프라이버시'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사적인 공간에서, 혹은 공적인 공간에서 개인이 인터넷이나 그 밖의 매체를 통해 포르노 류의 화상물을 열람하는 것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다. 소란스럽고 거친 논거를 거쳐, 이야기를 꺼냈던 그 간사는 그러한 영상물이, 함께 일하는 여성을 회롱하기 위한 것이거나 혹은 동료들 욕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만 아니라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자신의 주장을 내밀었다.

여기에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 이야기 하고자 하는 바는 위에 등장하는 간사의 미숙한 사고, 그리고 그가 한국의 진보 운동영역이라 할 수 있을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아니다. 이야기는 오히려 그 다음에 시작된다.

위 간사의 이야기가 있을 후, 얼마 있지 않아 당연한 반론이 이어져 나왔다. 즉, 성적오락물(이걸 이렇게 말해도 될런지...)을 즐기는 것은, '그것이 직접적인 성희롱으로 이어지는가'가 기준이 아니라, 작정동료, 특히 여성들이 그 오락물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불쾌감이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었다. 성희롱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특수성으로 알미암아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기준을 가져오기 보다는 피해자의 주관에 의지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 이다.

마땅한 주장. 여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순간, 재미있는 주장이 이어져 나왔다. 평소에 재법 사례 깊은 이야기를 하곤 했던 모간사. 솔직한 태도로 질문을 던진다.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 사고를 법적인, 혹은 제도적인 차원으로 수용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고, 피해자의 주관, 인식에 따라 피해기준을 삼는 것은 분명 바람직하겠지만, 때면 사건마다 달라질 그 주관적인 기준과 사항을 형식법에 넣는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피해자, 그리고 '희롱'의 이 모호한 기준을 객관적으로 마련해 놓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말이다.

공적인 것으로의 사적인 것의 한정

질문을 던졌던 그 간사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문제의식을 폄하하려는 바도 아니지만, 이 일련의 문답 역시 앞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진보 영역의 '어떤 것'에 대한 물입과 '또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소홀함이 여실히 묻어나는 대목임은 사실이다. 한국의 '좌파', 그들은 '공적인 것'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사적인 체험이 필요한 때마저도 공적인

기준을 물으며, 개인의 불쾌함마저 '객관'으로 기억하고자 한다. '공공'으로 조율된 그들의 안경에 맞추기 위해선 '사적인 것' 역시 공공의 웃을 입어야만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지적, 언급이 한국의 '좌파'를 어떤 하나의 것으로 규정하고, 그 의미를 제한하는 것으로 흐르는 것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국의 좌파가 모두 '공적인 것'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마치 페미니즘이 '사적인 것'만을 따지자는 것이 아닌 것처럼.) '좌파'라는 이름 속에는 그 이름으로 한정할 수 없는 무수한 갈래의 사고가 녹아 있으며, 그 안에는 '사적인 것'을 사고하는 즐거움까지 포함됨은 물론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몇 가지의 단편적인 이야기를 들어 '한국의 좌파'라는 커다란 개념을 이토록 거칠게 언급한 것은, 그러한 의식적인 사고영역 아래에서 무의식적이고 관습적인 형태로 좌파 운동영역에 어떤 특정한 경향이 스며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명확한 언술 너머에서 자연스러운 행동, 무의식적인 여담과 습관적인 사고를 통해, 그리고 공적인 담론자들과 너머에서 좌파영역의 운동가, 행동가 그리고 실천자들의 일상 속에서 매우 사소한 형태로 배어나오기 때문이다. 모교수의 '시집은 언제가?'라는 평화로운 질문처럼 말이다.

"세상은 단지 그 안에 있는 것들의 총계가 아니라 그것들 사이에 있는 무한히 복잡한 연결망이다." -폴 오스터, <기억의 서>

오스터의 이 말은 의미심장하다. 그것은 곧 여성운동의 첫소절, "사적인 것이 곧 공적인 것이다."를 근거하는 세계관이기 때문이다. 오스터의 말처럼, 사회는 개인이라는 단지(單子)의 복잡한 연결망이다. 그리고 이 연결망을 구성하는 단자는 그저 낱개의 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닌, 보다 큰 것으로서의 세계를 담고 있는 소우주로서의 그것이다. 따라서 이 낱개의 관계, 즉 사적인 영역은 진정 공적인 것이다. 그것은 단자들간의 교류가 그 낱발을 넘어서 끊임없는 사회적 자욱을 남기는 사회적 노출, 그리고 격돌이기 때문이다. 사회는 비단 산술적인 총계, 객관적인 개체일 수 없다. 그것은 일상의 끊임없는 긴장과 역동이며, 따라서 관계이고 연결이다.

공적인 것으로서의 사적인 것, 사적인 것으로서의 공적인 것.

이것이야말로 "사적인 것이 곧 공적인 것이다"라는 말을 통해 여성주의가 말하고자 하는 바이며, 또한 말해야 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것이 '공적인 것'을 말하는 기존의 한국 '좌파'가 보지 못했던(의식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관습에 의해서도), 그리고 그러하기에 묻지 않았던 부분이고 말이다.



무름 | 연세대 인문학부 졸업

정치에서의 여성

장상총리서리 청문회 그 이후

헌정사상 첫번째 여성총리서리가 낙마한 후 여성들의 반응은 대략 두 가지로 갈리는 듯 싶다. '그래도 첫번째 여성총리인데...'라는 아쉬움과 '갑대기만 여자인 사람이 총리가 되었다고 달라지게 있느냐'라는 입장이다. 전자의 경우 장상 씨가 실제로 여성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는다고 해도 '여성도 총리가 될 수 있다'는 하나의 시발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장상 씨를 시작으로 일반 대중이 여성 지도자의 존재에 좀 더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후자 쪽에서는 여성총리라는 명분보다는 얼마나 여성주의적인 인물이 권력을 잡아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둔다. 두 가지 다 일리 있는 주장이기에 여성들은 이런 상황에서 좀더 여성주의적인 인물을 기다려야 할지 차선택을 택해야 할지 당혹스러워진다. 다. 그러나 이 딜레마에 빠지기 전에 우리는 여성이 정치를 한다는 일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무엇이 우리에게 이 내키지 않는 선택을 강요하는지 말이다.

남성성 혹은 여성성이라는 뭇

어린시절, 반장 선거를 떠올려 보면 최대 쟁점(?)중 하나가 남자가 되느냐 여자가 되느냐였던 것을 누구든 기억할 것이다. 동화나 어린이용 TV 드라마에서도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가 반장 선거에서의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의 대결구도였으니 말이다. 남녀 학생들은 편을 갈라 남학생 혹은 여학생을 반장으로 밀기 위한 작전을 짰으며 반장선거는 흔히 성대결로 비화되기가 일쑤였다. 그러다가 아마도 반장선거 자체와는 상관없는 성대결을 보다 못했을 교사들에 의해 남자 반장, 여자 반장을 따로 뽑기도 했으며 아예 남자는 반장, 여자는 부반장으로 뭇을 박아 놓는 경우도 있었다. 신기하게도,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 보였던 이런

모습은 어른들의 세계에서 보이는 여성과 정치의 관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당시의 기억으로 돌아가 '여자반장(후보)'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하나씩 대입시켜 보자. 첫번째, 운동 잘하고 남자 아이들과 잘 어울리든지 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이른바 '대가 센' 여학생이 반장 후보로 잘 나섰다. 그렇지 않으면 성격이 온순하고 '여성스러우면서'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우등생이다.

여성 정치인 하면 가장 흔하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첫번째 여자 반장 이미지일 것이다. 마초 길에 가까운, 목소리 크고 소위 '터프'한 여성 말이다. 그녀들은 여성에게 좀처럼 허용되지 않는 권력에 다가가기 위해 스스로의 여성성을 철저히 부정하고 남성들과 똑같이 행동한다. 수년 전, 남장을 하고 대통령 후보에 나섰던 한 여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전사'가 되기 위해 그녀들이 처음 해야 할 일은 여성성의 부정인 것이다. 여성차별과 싸워 이기기 위해 그처럼 자신을 연마하는 노력은 분명 높이 실망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들이 남성을 따라잡고 동등한 위치에 서기 위해 애쓰는 동안 여성으로서의 정체성마저 망각해 버린다는 사실이다. 높은 자리에 오른 여성들은 그렇지 못한 여성을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피해의식에만 젖어있다'고 비난하거나 여성 역할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해 버린다. 마치 흑인들 중 고위층을 차지한 일부가 '오레오(백인 흉내를 내는 흑인을 경멸적으로 일컫는 말) 화되어 똑같이 흑인들을 억압하듯이 말이다. 그녀들은 이미 생물학적 성을 제외한다면 남성이나 다름이 없다.

반면에, 여성성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강조하는 여성 정치인의 모습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문제이기는 마찬가지다. 여성 집지예, 혹은 지역신문에 깔끔한 양장이나 한복 차림으로 얼굴을 내미는 여성 정치인들을 보면 이들 중 상당수는 업무능력이나 자질보다는 매스컴을 통한 '이미지'를 내세우는데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편, 가족과의 화목한 모습을 부각시키며 자신들이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업무에 있어서도 남성 정치인들처럼 '아동 바둥' 하지 않는다. 맡게 되는 영역도 환경, 교육 등 적당히 품위를 지킬 수 있고 정치라기보다는 집안 살림에 가까운 일들을 수행한다. 이들은 남성 정치인들 사이에서 일종의 '꽃'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들의 존재는 어디까지나 한국 사회가 남녀가 불평등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둘러리에 지나지 않는다.

어쨌든 여성성을 부정하는 쪽이나 부각시키는 쪽이나 여성 유권자들에게는 선뜻 '여성'이라는 이유로 지지하기가 영 찜찜한 것이 사실이다.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그렇다고 이들이 남성 정치인들에게는 환영받는 존재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후자의 경우엔 몇몇 예외 케이스가 있겠지만). 전자의 여성 정치인에 대해서는 아예 무성적 존재로 만들어 버리거나 주로 그녀의 외모를 소재로 해서 자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비웃음이 쏟아진다. 굳이 정치인 뿐만 아니라 군인, 경찰 등 남성의 영역이라고 규정지어진 곳에서 고위직을 차지한 여성이 언론에 소개되면 반드시 그녀의 남편도 같이 소개된다. '저런 여자랑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는 독자들을 위한 배려(?)일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전자보다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눈앞에서는 떠받들어 주니까. 하지만 이들 역시 악외에 한 가십의 대상이 되는 일이 많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장관이었고 한때 부통령 후보로 나서기도 했던 임영신 장관은 정계에 진출할 당시 '임영신은 ~의 첩'이라는 유언비어를 들어야만 했다. 임영신 장관 뿐 아니라 곧 단장하고 나오는 몇몇 여성 국회의원이며 장관들 역시 연애인만큼이나 사생활로 인한 스캔들에 자주 시달려 왔다. 여기서 여성 정치인은 어디까지나 정치만의 장식물이나 가십거리일뿐 그들의 능력으로는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이런 이분법은 여성이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남성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한데 그렇게 여성 정치인을 희화화하는 남성들도 여성이 '정

말'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되면 꼭 자질을 들먹인다. 그러면서 그들은 덧붙인다.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었다'고. 장상 총리서리의 경우, 총리인준을 심사하는 의원들 중 누구도 뗏뗏하지 못했을 문제들에 대해 심할 정도로 추궁을 당했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여성계는 '생각없는 사람들'이라며 비난받았다. 물론 장상 씨가 가독권 엘리트임에는 틀림 없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지하기는 힘듦(앞에서 든 두 가지 이미지에 부합되는) 정치인들 중 하나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장작 여성총리이기 때문에 자질을 생각지 않고 무작정 지지한다는 말은 남성들의 입에서 나왔다.

최근 박근혜 지지논쟁에 관한 몇몇 남성들의 의견이 일리있는 지적이기는 하지만 그 말을 한 주체가 남성이었을 때의 뉘앙스는 달라진다. '왜 박근혜를 여자라는 이유로 지지하느냐?'는 '그녀가 여성인권에 도움을 줄 것이냐?'는 문제제기보다 '왜 그녀의 보수, 파쇼적 성향을 보지 못하느냐?'는 비난에 더 가까운 것이다. 박근혜씨가 여성이면서 남성에게 가깝다는 것은 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들은 거기서 한발 나아가 여성들, 특히 페미니스트들이 자유, 인권과 같은 '더 중요한' 문제들보다는 여성의 권리 신장만을 부르짖는다고 공격한다. 이런 현상은 제도권 정치보다는 주로 진보 진영에서 두드러진다.

여성 정치인은 이처럼 고도의 '상징성'만을 지니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갖는다. 이러니 그녀들은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준남성, 혹은 여성임을 이용해 권력을 잡으려는 기회주의자로 비춰진다. 또한 남성들에게는 단순한 가십거리가 되거나 부르조아 정치인의 모습으로 폄하되고 있다.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기대하는 여성 유권자들을 '합뻑지게 만드는' 이런 모습은 단지 여성 정치인들 개개인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지지할 만한 여성 정치인이 전무하다시피 하고 여성 공직자들이 내외적으로 끊임 없이 공격을 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여성이 정치를 한다는 일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권력이 여성과는 너무나 먼 상황에서 정치권에 나서려는 여성들은 스스로를 남성화하거나 남성의 권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 때문에 '괜찮은' 여성 정치인을 막연하게 기대하기보다는 정치와 여성 사이의 벽을 만드는 매커니즘에 문제 제기하는 것이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더 빠른 길이 될 것이다.

〈강간〉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질안으로 삽입되는 경우 중에서 여성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저항의 흔적이 있는 사건만을 부분적으로 일컫는 말. 여성의 질속으로 삽입되는 것은 반드시 페니스 이어야 하며, 기타 이물질일 경우에는 강간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강력한 저항'이라 함은 생명의 위태로움을 감수할만큼의 저항이므로, 흥기에 위협당하여 저항할 수 없었거나, 수면을 취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일어난 경우 역시 강간에 해당하지 않음. 보통의 경우 이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건은 극히 드물며, 따라서 일단 한번 성사된 강간은 대개 동의된 강간으로 간주되어, 성공한 강간은 처벌할 수 없다는 암묵적 동의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동의는 여성이 성은 남성의 잠재적 소유물이므로 합부로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오래된 전통에 기반한다.

〈아줌마〉

원래는 결혼한 여성을 일컫는 지시적인 용어였으나, 현대에 들어와서는 발화되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함의를 내포하는 상징어가 되었다. 주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매력에 전혀 없는 존재, 백화점 등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뽀뽀를 연상시키는 화술과 악다구니로 원가 이하까지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지닌 존재, 버스타석들과 같이 개인적인 사소한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방위 눈치작전을 마다 않는 존재로 상징된다. 이러한 상징들은 그러한 행위들이 마치 그들의 고유한 속성처럼 간주함으로써, 그 행위가 갖는 의미, 즉 누가, 왜, 그러한 역할을 맡았는가, 그들의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우스꽝스럽게 재현됨으로서 누가 이득을 얻는가 하는

문제를 은폐시킨다. 반대말로는 미시족이 있는데, 이것은 똑같은 상황을 두고 정반대로 이미지화함으로써, 적당한 말바꿈을 통해 필요한 때에만 활용하려는 음모를 가진 고도의 상징어이다.

〈연애〉

소위 말하는 공적 영역을 제외했을 경우,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연애일 것이다.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고, 일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인간이라고 불리는 연모가 갖춰지고 나서 혹은 그 과정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등등등. 사랑과 연애를 어떻게 구분할지 난감하더라도 외화된 관계의 모습으로 정의된 연애란 게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연애의 모습 속에서도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불리는 것대가 되는 '공식'은 의식 깊은 곳에서 쪼리 틀고 있는듯.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사랑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연애에서는 이루어진다. 내가 아닌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는 서로를 위한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주어진 역할이나 규칙을 따르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성 사이에서만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통성에 현오나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에 대한 성별규정 같은 비연애적 요소들에서 '연애'는 자유롭지 못하다.

〈포르노〉

인간의 성적 행위나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성욕을 자극하는 소설?영화?사진?그림 따위의 총칭인데, 여기서 인간이라 함은 으레 그렇듯이 여성 및 여타 성적 소수자를 제외한 이성애자 남성만을 일컫는다. 혹은 포르노를

정치적 억압 또는 성적 억압에 대한 해방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 역시 이성애자 남성만의 해방을 의미할 뿐이다. 주된 등장 인물은 성기가 매우 큰 남자와 가슴이 매우 큰 여성이며, 성교 행위 시에 남녀의 주된 오르가즘은 남성의 성기 삽입(여성의 질 흡입)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때 상대 여성은 매우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이는 남성이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 여성의 질 오르가즘 신화에 의거한 것인데, 이는 여성의 오르가즘은 질이 아니라 클리토리스에서 온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다. 남성 관점으로 하여금 실제 오르가즘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성기 크기에 집착하여 심하면 수술에 이르게 하고, 성교 시에 강박적으로 상대 여성의 질 속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며, 무리한 성기 삽입으로 상대 여성이 아파하는 것을 오르가즘으로 착각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킨다.

〈주부〉

한 끼의 식사를 마치고서, 다른 이들이 무근한 포만감에 가득 차 몽롱한 눈빛을 흘리며 게으른 일과를 준비하려 할 때, 식탁 한 구석에 쌓여진 그릇더미를 보고, 혹은 그 안에 버려진 음식 찌꺼기를 보고 저항할 수 없는 무기력한 긴장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 앞에 놓여진 과제를 하나씩 되짚으며, 순순히 놓여진 수순을 예비해야 하는, 그리고 이토록 익숙한, 그리고 익숙하기에 나쁜 이 긴장과, 예정된 굴레와 반복에서 비롯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마친가지로 익숙한, 그리고 익숙하기에 나쁜 한탄조의 혼잣말을 던지면서, 언제나 그렇듯 대답 없는 답변에 혹여 이번이라도 있을까 잠시간의 응대를 기대하면서도 곧내 돌아 일어 앉아 이미 움직이고 있는 몸의 생각을 잊어버려 자신의 반복적인 업무를 남의 것 인양 무심히 관찰하며, 손에 물을 적시며 일을 해야 하는, 그리고 시간에 쫓려간 기억의 절단을 잊는

갑작스러운—하지만 이것 역시 반복되었기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그러하기에 지루한— 자극—즉, 자신의 일이 끝나가고 있다는, 지금 자신의 오른 팔 부근에 있는 접시에 올려진 거품에만 벗겨내면 지금의 이 과제가 종결된다는—그 놀라운 사실에 자그마한 흥분을 느끼며,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극적인 열의로 손에 부딪혀 오는 물줄기와 함께 그 마지막 그릇을 들어올리려는 찰나, 갑작스럽게 끼여드는 전화벨 소리에 놀라 습관적으로 몸을 돌이킬 준비를 하는, 그러나 그녀와 같은 공간에 있는 그 누구도 지금의 그녀처럼 각성하고 있지 않는, 오히려 무책임한 관성에 무신경으로 앉아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행동과는 어떤 일관성도 찾을 수 없을 법한 빠르고 자극적인 발걸음으로, 전화벨이 마치 10번도 채 울리기 전에 수화기를 들어올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강박적이고 습관적인 ‘여보세요’를 던지고 나서, 언제나 그렇듯 자신을 찾는 목소리가 아님을 확인하고, 바로 옆에 있는, 즉, 전화기를 들고 있는 그녀 옆에서 전화가 울리기 시작할 때부터 그 곳에 태연히 앉아 있었던, 마치 이전까지 어떤 일도 없었으며, 바로 지금 그녀가 수화기를 건네주며 ‘당신 전화예요’라는 말을 듣고서야 그의 전화가 실제로 ‘왔다고’ 생각하는, 방금 마친 식사와 기름때가 베어 있는 졸린 눈을 한 사내에게 수화기를 건네주고, 언제나 그렇듯, 이 일련의 서커스조차 자신의 몸동아리나 되는 듯이, 그렇게 무심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한 번 잊어버리는, 그리고 동시에 습관적으로 돌아가는 주방으로의 자신의 걸음 속에서 방금 전까지 자신을 뒤덮었던 ‘이것만 덮으면 끝난다’는 흥분된 사실을 또 한번 까마득히 잊고서, 과거 그 장소—자신에게 당분간의 희열이나 재공했던 그 역사적인 순간의 그 장소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곧 이 일을 마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버려두고 있던 잠시간의 무기력한 희열을 되찾아 마지막 물기를 닦아내는, 그리고 그 일이 마쳐짐과 동시에 또 한번 망각과 혼돈의, 그리고 무기력과 무신경의 굴레 속으로 걸어 들어가 ‘이제는 뭘 하지?’라는 질문을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그렇게 던져 놓고 잠시간씩 서 있곤 하는, 바로 그런 존재

군가산점제
[논쟁, 논쟁]
위헌 결정



여성에 대한 폭력

군가산점제 위헌 결정이 나왔을 때 많은 남성들이 이 제도의 폐지에 격렬히 반발했다. 제대 군인에 대한 보상책으로서 몇 안되는 제도중의 하나인 군가산점제가 사라졌으니 억울할 만도 할 것이다. 특히 남한 군대에서 이루어지는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일들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반발할 만도 하다. 하지만 반발은 곧이어 여성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그 모습을 바꿨다.

48 男本共和國 | 독

50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간다 | 독

53 여성 이미지에 대한 이중성 | 나윤경

男本共和國

Seoul, In South Korea, 1999. 12. 23

긴급상황발생 심상치 않습니다!!

男本 한국본부 총사령관 각하. 실제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심어는 정보원으로부터 가부장주의 실현과 여성 억압을 목표로 실현하기 위해 음지와 양지를 오가며 투쟁해온 우리 男本 조직에 크나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결정이 곧 내려질 것이라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도대체 적회 조직을 물수로 보는 건지, 군가산점제 대한 여대생과 장애인들의 헌법소원에 위헌결정을 내릴 거랍니다. 현재 가용 정보통을 총 동원해서 이번 사태의 주범인 현재 재판관들과 헌법소원 신청한 사람들의 명단과 주소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사령관님의 명령만 있으면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충성!

자중하고 동향파악에 나서도록

귀관의 보고를 접하고 심히 우려가 되었다. 군가산점은 군필자들을 우리 조직의 최대 지지자들로 만드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제도이다. 군필자들이 사회전반에 퍼져 군대문화의 전사회화란 가치 아래 투쟁해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男本 조직이 있을 수 있었다. 자칫 선불리 행동하다가 조직적 실체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원칙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으니 행동에 신중을 기하고, 이 일이 알려지지 않도록 정보 통제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내부 불순분자 심문중입니다.

총사령관님께, 군가산점 위헌 결정이 男本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왔으나,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가지고 조직적 대의는 저버리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불순분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솔직히 군가산점 별로 도움 안됐다'고 반동적인 얘기를 한 K모 男本과 '군가산점 폐지되면 군생활 보상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다닌 S모 男本을 검거하여 심문 중입니다. 특히 S모 男本의 경우 가택수색결과 '남성과 여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라는 男本지정 1급 불온서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男本 사상 교육에 미흡했던 게 이런 내부 불순분자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남성우월 가부장주의라는 男本 이념에 반하는 종자들을 전원 발본 색원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다짐

男本 한국본부 총사령관으로서 모든 男本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겠다. 모두 알고 있듯이 男本은 남성이 기본이 되어, 널리 남성을 이롭게 한다는 이념 아래 전세계 곳곳에서 조직화의 뿌리를 내리고 男本 국가 건설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특히 男本 한국본부의 경우 백룡 군사정부 전폭적인 지원 아



래 사회 전반으로 男本주의를 침투시킬 수 있었다. 물론 우리는 민주화 운동과 자유사상의 확장이라는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보다 교묘해지고 일상화된 男本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20세기가 끝나가는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총체적 위기 상황에 있다. 우리의 이념인 男本주의는 외부로부터 여성 억압이나 시대착오적인 권위주의, 성차별주의, 비합리주의란 비난을 받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男本와해 전취전술' (男本瓦解 戰術(戰術))에 경도된 일부 男本들의 사상적 이탈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삶으로서의 男本을 실천하는 부단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군대에서 망친 인생, 男本에서 회복하자!'라는 다짐을 일깨우며, 28개월의 삼절이 男本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잉태의 기간이었음을 명심하며 男本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총력을 경주하길 바라는 바이다.

친애하는 사령관님께

저는 N모 통신사의 게시판에서 男本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해온 男本입니다. 저는 지금의 위기의 근원은 군가산점제가 위헌 결정으로 사라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부에서는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공공연한 비밀로 만나는 男本들마다 조심스럽게 이 얘길 주고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순한 내용을 퍼트린 男本이 비밀 처형당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습니다.

제가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렇게 펜을 든 이유는, 男本의 몰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지금의 사태가 男本主意의 실현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사령관님께서도 걱정하는 바이겠지만, 군가산점제 폐지를 접한 많은 군필 男本들이 군생활에 대한 제대로된 보상을 요구거나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군대를 개혁하자는 주장을 하게될 경우, 군대에서 실시한 男本화 교육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번 사태를 성대결로 몰아간 다음, 요즘 기어올라오던 여자들을 공격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남성들의 군대에 대한 반감을 누그러 줄 수 있는 보상책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반감을 역이용하여 반감을 확실하게 풀어 줄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생각해 낸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후한 삼국시대에 제갈량이 촉나라 내부의 반발을 제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킨 예나, 우리 정치인들이 지역감정을 이용해서 사회문제나 정치적 위기를 벗어난 예를 보더라도 분명 효과적인 방법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부디 男本의 무궁한 발전을 기도하겠습니다.

男本 연구보고 1 [급비]

한명의 男本이 탄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코스가 바로 군대이다. 군대에서의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남성들은 스스로를 男本으로서 정체화할 수 있다. '보상심리'와 '보복충동'은 제대한 男本들이 가져야 하는 최고의 덕목이다. 군대의 악몽에 대해 끊임없이 보상을 바라면서, 이에 대한 욕구를 자기보다 약한 존재들에 대한 보복으로서 만족시키는 것이다. 이렇듯 군대를 경험한 정신상태는 男本주의가 가장 쉽게 침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우리 조직의 대다수가 군필 男本인 것만 보더라도, 이러한 접근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총사령관 지시사항

현 위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우리에게 이러한 위협을 안긴 장본인이 여성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번 군가산점 위헌 사태를 가지고 몇몇 男本들이 군생활 보상이나 군대 개선 문제로 왜곡시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단언하건대 사건의 본질은 군대 보상이 아니라, 군대도 안가는 여성들이 군대를 무시한 것이다.

우리 모두 그 암흑 같은 군생활을 회상해보자. 동계훈련에 갈굼, 인격모욕, 삼절.. 이런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여성들이, 감히 '군대'에 대해서 얘길 하는 것을, 대한국군 출신으로서 용납할 수 있는가? 男本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총사령관으로서 군대를 얘기할 자격도 없는 여성을 男本의 주적으로 규정한다. 적의 도발에 대항하여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대적필승의 자신감을 가지고, 이대5적과, 여성단체, 여성운동가들에게 男本의 위대함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가르쳐주길 바란다.

어쩌면 이렇게 해서 디지털화된 남성들의 무수한 성폭력들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백, 수천의 글을 읽고 아이디어를 봤지만 실제로는 단 한명도 만나보지 못했던 얼굴 없는 '남성'들의 실체가 궁금하다. '男本'은 90년대 말에 읽은 글에서 아이디어를 따온건, 출처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죽 | 인문 98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간다

군가산점 논란에서 남성의 가해자로서 정체성 찾기

독 | 인문 98

들어가며

어떤 제도가 없어졌다면 이 제도로 이익을 받아온 집단에선 제도 자체의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떠나서 제도 폐지 자체에 대해서 반발할 수는 있다.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고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을지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었기에 이것이 없어진다는 것에 불만이 나 아쉬움을 느낄 수는 있다. 군가산점제 위한 결정이 나왔을 때 많은 남성들이 이 제도의 폐지에 격렬히 반발했다. 제대 군인에 대한 보상책으로서 몇 안되는 제도중의 하나인 군가산점제가 사라졌으니 억울할 만도 할 것이다. 특히 남한 군대에서 이루어지는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일들을 생각해볼 때 충분히 반발할 만도 하다. 하지만 반발은 곧이어 여성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그 모습을 바꿨다. 어쩌면 반발이 실제로는 전혀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논쟁이나 대결은 없고 단지 강자에 의한 무차별적인 공격만이 존재했다. 군가산점 위한 결정이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게 한 계기가 되긴 했지만, 통신 공간을 통해 나온 남성들의 얘기들은 여성이나 여성단체 혹은 여성운동에 대한 일관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이 '당한다'는 것은

남성은 '좀처럼' 당하지 않는다.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에게 어디서 맞고 들어오는 것은 '계집애'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잘하든 잘못했든 때리고 오라고 가르침을 받는다. 상대애가 너무 강력해서 승부 자체가 너무나 분명한 상황에서도 단 한방이라도 주먹을 휘둘러야 한다. 이러면 일반적으로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내자식끼리의 싸움'이 되고 명과 상처라는 전리품을 얻게 된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세상을 보다 많이 알게 되면서 '대들기식 싸움'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부터는 정말 일방적으로 당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도 때리는 사람은 '같은 남성'이지 다른 경우는 없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당했더라도 이 당함은 '십칠대 일'의 싸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된다. 결국 남성은 결코 당하지 않는다.

간혹 남성들이 당당하게 자신이 당했다고 얘기/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군대에 관해서일 때다. 군대에 관해서만은 모든 남성들이 진실된 목소리로 자신들이 당한 그 행위들의 아주 세세한 모습들과 그 속에서의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고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한다. 분단 국가에



서 징병제 아래서 끌려가듯 군대로 가고, 군대를 가야함에도 빠질 수 있는 사람은 빠지는 그런 군대에 가서, 수모와 모욕 속에서 힘들게 군생활을 보낸 남성들은 피해자의 피해자의 피해자로서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당하는 남성은 없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자로서의 인식은 남성에게서 곧 사라져 버린다. 비록 나쁜 짓일지라도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낫다는 체질적 단순함은 군대에서 경험한 피해자로서의 위치를 전복시킨다. 자신의 피해를 가해를 위한 논리와 수단으로서 사용함으로써, 흡사 자해공갈단이 자신의 몸에 스스로 피해를 입힘으로서 돈을 뜯어내는 가해 행위를 하는 것처럼(비록 군대를 가는 것이 자해는 아니지만), 가해자의 위치로 복귀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당하는 대상으로서 '여성'이 등장해야만 한다. 군대 때문이라면 군대를 '뺀' 가는 사람보다는 군대를 '안' 가는 사람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야 하지만, 군대를 안갈 정도로 권력이 있는 남성들에게는 함부로 덤빌 수가 없

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부딪히고 평소에도 만만한 '여성'을 공격하며 일방적인 싸움을 벌여나간다. 그리고 여성과의 싸움은 대등한 대상과의 싸움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싸움을 선택한 남성의 전략에는 여성 혐오와 비하, 차별적 인식이 유일하다.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가 되길 희망하는 남성들은 '군대는 힘들었고, 이러한 힘들에 대한 보상은 없고,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해야한다'는 생각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군대는 힘들었고, 여자는 군대를 안가고, 그러니깐 여자는 당해도 된다'는 생각에는 절대복종하고 일사분란하게 실천한다. 자신들의 희생을 보상하고 '적'에게 복수하기 위한 성전(聖戰/性戰)을 벌임으로써 싸우는 즐거움과 이기는 기쁨을 모두 만끽하게 된다.

씹을꺼리 1 : 여성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는 싸움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성들이 싸움판으로 선택한 온라인 공간은 이미 남성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곳이었다. 남성들은 확실한 수적 우세 상태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발언 공간도 더욱 많이 확보하고 있었다. 온라인에서 남성들은 남성우월주의나 여성비하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더라도 특별한 비판 없이 오히려 맞장구 쳐주는 반응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여성 관련 내용들은 다양한 남성들에게 거의 유일하게 형성되는 공통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여성들은 온라인 이용자로서 게시판에 글 쓸 자유는 있었지만, 그곳에서 발언할 권리로부터는 배제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여자는 천성적으로 남자보다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글이 올라오고 한 여성이 이 글을 비판한다면, 정상적인 사고 과정으로는 그 글을 쓴 남자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판하는 글을 쓴 여성에게 '남자한테 당하고만 살았냐, 콤플렉스가 있냐, 그래 너 잘났다'라는 얘기들이 쏟아진다. 결국 여성은 침묵할 수밖에 없고, 반대가 배제된 상태에서 여성 차별적인 얘기들만이 논쟁에서 검증받은 진리처럼 받아들여진다.

군가산점제 논란에서는 이러한 여성혐오가 통신공간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나타났으며, 특정 대상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나오지 않던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비하를 정당화하는 얘기들이 다수의 지지 속에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씹을꺼리 2 : 페미니스트

군가산점에 대한 논란 속에서 남성들은 여성을 페미니스트인 여성과 페미니스트가 아닌 여성으로 나눴다. 그리고 군가산점제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들은 페미니스트 여성으로 낙인찍혔는데, 이러한 낙인 이전에 페미니스트에는 자신의 이익만을 찾고, 비합리적이고, 남성을 적으로 여기는 '죽어 마땅할 여자'로 규정이 내려졌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모욕이나 폭력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또 다른 마녀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결국 군가산점 문제 속에서 여성들에게는 '군가산점제를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물음과 함께 '페미니스

트나 아니냐는 물을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폭력적인 물음은 여성들이 군가산점 문제에 대해 더욱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씹을꺼리 3: '이대'

군가산점제 위헌 소송을 제기한 여섯명중 다섯명이 이화여대 출신이었다는 사실은 '이화오적단'만을 공격하는게 아니라 '여자만의 대학 이대'가 공격 대상이 되게 하였다. 위헌 소송을 여성(과 장애인 - 장애인은 군가산점 얘기에서 철저히 배제된다)이 냈다는 사실에 분노했던 남성들은 그 여성들이 모두 이대출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대생이라면 당연히 그럴만도 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이대를 공격 대상으로 했다.

남자들은 끼워주지도 않고 여자들끼리만 다니는 대학을 만들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대는 남성들에게 성역이었고 또한 정복 대상이었다. 군가산점 논란에서 이대는 싸잡아 저서 '여성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실력도 없으면서 잘난 체 하는, 여자들끼리만 있다보니 버릇 나빠진' 여성들의 집단으로 규정된다. 이대에 대한 남성들의 판타지는 역사가 오래된 편인데, 남성이 대부분이었던 PC통신, 인터넷의 자유게시판이나 익명게시판을 통해서 비슷한 유의 얘기들이 다수의 (남성의) 지지 속에 이루어지곤 했다. 그리고 이러한 비이대생 - 이대와는 그 어떤 연관도 없는, 심지어는 알지도 못하는 - 의 이대에 대한 규정은 군가산점제 논란이라는 호기를 맞아 진실인 것처럼 사람들 입을 통해서 오가갔다.

씹을꺼리 4: 여성단체

군가산점제 논란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여성단체는 비이성적이고, 말도 안되는 주장이나 하는 현실감각 없는 여성들이 모여 있는 이익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조리퐁 얘기나, 테트리스 얘기를 하면서 남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여성단체 모습을 만들어놓고, 이를 근거로 여성단체를 비판하고 공격했다. 전에는 여성단체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생각도 없던 사람들이 여성단체에 대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된 것이다.

역사가 있고, 경험이 있고, 논리가 있는 여성단체는 공격하기에 버거운 존재였다. 특히 여성단체가 왜 생겼는지,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한 알 자체가 전무한 상태에서 쉽게 공격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조리퐁 얘기 같이 왜곡시키고 회화화 시키는 얘기들을 통해서 여성단체는 남성들에게 우스갯거리로 전락하였다. '여성단체가 군가산점 없애자고 했습니다. 여성단체요? 혹시 조리퐁 얘기 아세요? 테트리스 얘기도 있군요. 어의가 없죠? 저기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깐 군가산점제를 없애자는 쓸데없는 주장이나 하죠.' 여성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 공간인지, 군가산점제가 왜 문제인지에 대한 생각은 없이, 자신이 우위를 점하고 공격할 수 있는 지점을 찾기 위해 골몰할 뿐이다.

나가며

군가산점 논란에서 군가산점이나 군생활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그렇다고 전혀 새로운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었다. 단지 예전부터 나오던 얘기들이 반복되었고 '군가산점제'라는 이슈를 통해 광범위하게 확장이 되었을 뿐이다. 물론 통신공간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인식이 가시화되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정당화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군가산점제라는 문제를 가지고 군대생활 속에서 남성이 피해자로서 경험한 일들을 얘기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은 철저히 함구되고 단지 여성, 페미니스트, 이대, 여성단체에 대한 공격 수단의 역할밖에 못하였다.

군가산점 논란에서 분명 남성들이 승리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얻은 것은 여성을 일반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얻은 가해자로서의 자기만족 말고 더 있을까? 그토록 고통스러워했던 군생활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으니깐.

나윤경 | 연세대 문화학 협동과정 교수

여성 이미지에 대한 이중성

- 군가산점제도*와 이화여자대학교



군가산점, '대결'은 없었다.

1999년 12월, 평등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내려진 군필자 가산점에 대한 위헌 판결은 지난 38년 간 지속되어 온 위헌적 관행에 대한 사회적 반추를 이끌어 내기는커녕, 마치도 기다렸다는 듯, 사이버 공간에서 목불인견(目不見)의 성 대결로 번지고 말았다. 사실 '성 대결'이라는 표현은 언론에서 사용한 것이지만, 양자(兩者)가 맞서서 이기고 짐, 또는 옳고 그름을 결정할 뜻의 '대결'은 전혀 그 때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지 못하다. 사이버 이용자의 여남 성비가 20:80의 비대칭적 상황에서 진정한 의미의 대결이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일방적 공격'이라는 표현이 그 때의 상황을 정확히 표현한 것이리라. 특히, 이화여자대학교 (이하 이대라 칭한다) 홈페이지에 가해진 남성들의 '집중 사격'은, 이 대학의 설립 취지와 목적하는 사회적 역할과는 전혀 다르게, 이대가 남성 중심적 사회가 만들어낸, 여성에 대한 이중적 이미지의 총화였음을 드러냈다.

이대에 대한 이중적 이미지

이 대학 초대 총장 김활란 박사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접한다면, 이대는 교육부 (당시의 문교부) 최초의 종합 대학 인가를 받은, 여성 교육을 위해 100여 년 간 존속해 온, 세계 최대 규모의 명실상부한 여성 교육의 전당이다. 하지만, 남성 중심적 한국의 문화·사회적 맥락에서 이대의 이미지는, 이 대학이 기꺼이 지려고 한 여성 교육에 대한 역사적 책임감이 무화되면서, 남성 중심적 시각으로 철저히 성별화되더니 (genderized), 마침내 '참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지성(知性)'이 모여 있는 '베비 신부들'의 학교쯤으로 격하된 것이 사실이다. 이대에 대

* 군가산점: 국가 공무원법 및 지방 공무원법상 6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적용되어 온 것으로, 군필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해 주는 제도이다. 38년간이나 지속되어 온 이 제도는 여성과 장애인들에 대한 공적으로의 진출 기회를 차단하는 것으로 1999년에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한 한국내에서의 이러한 이미지는 미국의 한 시사 주간지 기자에게도 포착되어, 고급 외제 승용차로 대변되는 '능력 있는' 남성을 차지하기 위해 이대생들이 혈안이 되어있음을 이미지화한 표지와 그에 대한 자세한 기사로 그 주의 커버 스토리를 장식하기도 했다. 물론 이대는 이 주간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내어 승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에 대한 남성주의적 시각은 이 대학을 '참한 여성'으로 규정해 왔다.

그런데 법원의 군가산제 폐지와 정부의 존치 결정(군가에 의한 한계에 대한 남성들의 정당한 한계에 부딪치기, 정부에 달한 유한 발표 2000년 1월 군가산제 존치 발표)을 본다면,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자마자, 이대는 남성들의 집중 포격 대상이 되고 말았다. 참하고 조신해야 하는 여성으로서의 이대는, 남성들이 만들어 준 '이미지' 속에서만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너 밥길 조심해라" "남자들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여자들을 모두 정신대에 보내라"는 등의 맹백한 협박과 언어 폭력들을 이 대하 사이버 공간에 올리면서, 남성들은 이대와 그것이 상징하고 있었던 군에 가지 않는 모든 똑똑한 여성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준비된 예비 신부인 줄만 알았던 이대는 현모양처로서의 내조는커녕, 남성들을 군으로 내몰려는 마녀가 된 것이다. 군가산제와 관련한 이대의 이미지는 이제 마녀이다.

그들의 '억울함'은 어디로

군가산제의 폐지로 인해 여성들에 비해 불이익을 당한다고 착각하는 남성들은, 그러나 그들의 분노를 올바른 대상을 향해 표출해야 할 것이다. 남성들은 군가산제가 군대를 가야만 하는 대한민국의 남성들에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편리한 미봉책임을 알아야 한다.

국민의 안녕을 위해 이렇다 할 역할을 해오지 않은 국가가 무슨 명목으로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구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우는지, 자연재해는 물론 대규모 인재의 해결사도 왜 군인들이 무상(無償) 동원되어야 하는지, 군대 안에서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참아내는 것이 왜 남성적인 것으로 미화되는지 등, 남성들은 국가와 정부, 그리고 남성문화를 상대로 국방의무와 관련된 그들의 '억울함'을 표출해야 한다. 남성들의 억울함은 그들의 실존적 가치가 침해당한 데에서 오는 심각한 것인 만큼,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겨우 몇 점을 더 주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내 기억으로는 분명히 이대의 군가산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에는 위와 같은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군에 가야만 하는 남성들에게 충분한 연민을 드러내고, 그들과 함께 진정한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의도로 쓰여진 글들이었다.

하지만 여성의 역할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조용한 내조'로 규정해온 한국의 남성 문화는 여성과의 연대나 여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보여지는 연민은 그들이 만들어 준 여성적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으로, 곧 남성성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지 않다면, 이대에 대한 남성들의 집중 포화는 이해되기 어렵다.



예비신부 아니면 마녀

이대를 향한 남성들의 히스테리는 그들의 분노가 이제껏 올바른 대상을 상대로 발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안심할만한 수준의 지성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신부가 자신들은 생각지도 못한 해결책을 제시하자 “누굴 가르치려 들어!”라고 욕박지르는, 똑똑한 여성을 향한 한국 남성들의 전형적인 콤플렉스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만일 주어진 이미지를만 고수한 채, 자신들이 천명한 여성 교육의 선구자, 마녀역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이대는 어쩌면 국내외 우수 시사지 표지에 또 한 번 예비 신부로 등장하지 모른다.

왜냐하면, 남성중심적 한국 사회에서 이대의 이미지는 마녀 아니면 참한 예비 신부감으로 규정되어 왔으므로, 그러니까, 군가산제와 관련한 이대에 대한 남성들의 집중 포화는 남성들이 만든 여성 이미지에 대한 이중성의 표출에 다를 아니다.

나
가
는
길



56 [책읽기] 역사는 누구의 기억인가? 『동맹속의 섹스』 | 나사
58 [영화읽기] '나쁜남자'의 실체 | 김고연주

61 [만화읽기] 『이매진』-두 소녀의 유쾌통쾌상쾌한 성장기 | 싹

역사는 누구의 기억인가

동맹 속의 섹스

『동맹속의 섹스』 캐서린 문

나사 | 사회학과 석사과정

기지촌 여성에 대해 말하기

과거 기지촌을 바라보는 한국정부 혹은 '일반적 한국인'의 시각은 매매춘에 대한 모순되는 두 가지 시선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하나는 매매춘이 남성의 본능인 성욕 때문에 '정상적인' 여성인 아내와 딸을 보호하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필요악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매매춘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이들 정상적인 여성들과 달리 매매춘을 선택할 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다. 기지촌 내에서의 매매춘은 종종 한국 정부에 의해 국가 방어를 위해 애쓰는 미군에 봉사하는, 혹은 GNP 성장에 기여하는 애국의 행위로 보면서도 한편으로 쉽게 돈벌이 위해 미군을 상대로 매매춘을 하는 것을 선택한 기지촌 여성들을 비난받는다. 이러한 시각에 대해 반박하는 주된 입장은 국가 간의 힘의 관계에서 젠더가 어떻게 이용되는가에 초점을 둔다.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미제국주의에 반기를 드는 입장은 제국주의가 제3세계에서 기능하는 하나의 축인 군국주의에 의해 '우리의 딸들'이 짓밟히고 이용당한 것에 주목한다. 마찬가지로 기지촌 여성들을 국가 간의 관계에서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페미니스트들 또한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성적 요구를 약소국에 대한 정치, 경제적 지배와 동일시하였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시각들에서 강대국, 약소국을 하나의 통일된 주체로 보면서 (대문자) 여성의 몸이 이용되는 것(혹은 이용하는 것)에 주목한다. 이들은 어떤 세력간 역학이나 조건들 속에서 특정(매매춘) 여성들의 몸이 국가 간의 이해의 협상에 이용되었는지에 대해 별로 언급이 없으며 따라서 각 집단 내부의 입장 차이(워싱턴의 행정부와 주한미군 간, 남한 정부와 클럽 업주 간)나 그에 따르는 이해의 대

립과 협상의 실제 과정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피해자인 기지촌 여성들은 수동적인 입장으로 묘사될 뿐 이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떤 행위를 취했는지에 대해 침묵한다.

캐서린 문은 기지촌 여성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해 피해자-행위자로서의 그들의 상황과 행동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는 강대국(혹은 그를 뒷받침해 준다고 여겨지는 자본과 군대)이 하나의 통일체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주체가 아니라 각각의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각 역사적, 지역적 맥락에서 행위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적 이해관계 내에서 인종, 계급 등 서로 다른 집단들이 이용되고 있지만 그것이 꼭 종속적인 집단이 집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즉, 여성의 몸이 국가 간 관계에서 이용되고 있지만 그것은 모든 여성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여기에 종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지촌 여성들의 역할과 제약들이 어떻게 그들이 양국의 외교정책의 도구로 이용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저자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 군대와 여성의 관계를 밝혀내면서 여성의 위치와 목소리를 그들의 입장에서 드러낸다.

닉슨 독트린과 기지촌 평화운동

저자가 주목한 사건은 1971-1976년 사이에 일어난 기지촌 평화운동이다. 왜 베트남 전에서의 실패로 인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축을 목표로 하는 닉슨 독트린이 한국에서는 미군의 한국주둔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특히 기지촌 여성들의 몸에 대한 통제, 관리를 결과했는가? 이것은 미군의 남한에 대한 안보정책의 변화(즉, 높은 수준의 정치학)가 미군, 한국군(한국정부), 주민들 사이의 관계의 변화(즉 낮은 수준의 정치학)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으며 여기서 기지촌 여성들은 어떻게 영향을 받고 행동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탐구에 의해 밝혀진다.

1969년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전 철수에 대한 국내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에 의해 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축을 선언하게 된다. 박정희 정권은 북한에 대한 냉전의 유지와 군사적 우위가 그 자신의 정권의 정당성이었기 때문에 미군의 원조가 절실하게 필요했고 베트남전 참전이 이것을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고 여겼다. 그러나 닉슨 독트린을 전후한 사정은 미국의 오키나와 반환이 임박하고 미국이 중국과 우호적 외교로 전

환하는 등 한국정부에게는 미국의 군사지원의 불안정에 대한 위기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남한정부는 코리안 게이트에서와 같이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미군을 남한 내 묶어두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한미군은 남한에서의 군사적 보호의 임무를 매우 중하게 여겼고 이것은 워싱턴에서 한국문제의 개입에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관계없는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입장이었다.

기지촌 여성의 삶의 변화

이러한 70년대 초반의 국내외적 사정은 기지촌 내 주민들의 삶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70년대 초 기지촌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흑백갈등과 성병이었다. 흑백갈등은 미군을 상대하는 기지촌 내 클럽 업주들과 매매춘 여성들이 흑인을 차별한다는 흑인들의 강한 불만이었는데 이것은 백인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그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사실 현지의 흑인차별이 아니라 주한미군 내 흑백갈등이 그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었다. 성병 또한 그 책임의 상당수는 미군에 있었다. 좋지 않은 파견지라 여겼던 한국은 미군의 젊은 군인들이 짧은 기간 머무르게 되는 경우지점으로 여겨졌고 군인들은 기지 밖에서 문란한 성관계/성폭력을 일삼았다. 이는 또한 주한미군 내 조성된 한국여성을 대하는 문화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했다. 철수의 의지가 별로 없던 주한미군은 베트남에서의 종전으로 미국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을 남한에 묶어두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국정부에게 남한 내 미군 잔류를 담보로 주둔 20여년 동안 설득하지 못한 흑인 차별과 성병근절을 위한 기지촌 평화를 관철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되었다. 한국정부 또한 미군의 철수를 막기 위해 이에 동조했고 이로써 기지촌 내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를 통해 주한미군과 한국정부는 동맹을 맺었던 것이다. 가고싶지 않은 쪽과 보내고 싶지 않은 쪽의 이러한 공적 세력의 공모는 민간외교로서 평화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기지촌 평화운동은 그렇다면 실제 기지촌 여성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흑인차별을 없애기 위한 미군과 한국정부의 노력은 손님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빼앗아갔으며 흑인병사를 상대하는 여성에 대한 낙인 또한 심각한 분열을 낳았다.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행동에 대한 클럽 업주, 미 군경, 지역 한국인 지도자, 그리고 흑인 병사와 백인 병사의 감시는 그나마 있었던 기지촌 여성들의 자율권을 앗아갔다. 성병에 대한 관리 또한 미군 병사가 아닌 여성의 몸에 대해서만 이

루어졌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없었으며 접촉확인과 같은 관리는 여성들에게 수치감을 주었고 여성의 건강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절차들은 결국 미 군인들을 위한 절차들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었을 뿐이다. 그리고 검사결과에 대한 등록절차는 보건소의 여성들에 대한 착취를 낳기도 하였고, 등록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간의 심한 갈등을 낳았다. 결과적으로 기지촌 여성들의 삶은 전보다 심하게 통제되었고 여성들간에는 분열되었다. 앞서 열거한 70년대 초의 정치적 불안과 변화는 기지촌 내의 삶에 심한 긴장을 낳았고 이는 다양한 집단을 정치화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흑인들의 불매운동 등에 대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기지촌 매매춘 여성들이 대중적 운동을 통해 저항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지촌 일반 주민들이 가세하기도 한 이러한 저항운동에 매매춘 여성들은 주축이 되었는데 이는 미군이 의도한 평화운동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으며 평화운동의 결과 이러한 목소리들은 묻혀졌다.

기억의 재구성

캐서린 문의 분석의 장점은 어떤 특정 상황에서 두 나라의 군사적 이해관계가 특정한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가를 그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우에노 치즈코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고찰하면서 공공의 기억이 결국 누구의 기억이고 누구의 목소리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기지촌 매매춘 여성을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는 애국자와 도덕적 타락을 선택한 창녀의 사이에 위치시키는 기존의 재현은 기지촌 여성을 능동적 행위자로 둔갑시키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몸을 이용한 국가와 국가의 정치적 재현과 결탁한 일반 '시민'의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제국주의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가부장적 온정주의의 시각은 기지촌 여성의 정치적 목소리와 행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약소국과 강대국간의 관계에서 여성이 기호로서 교환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기지촌 매매춘 여성들에 대한 재현들은 그 자체로 기지촌 여성들의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력 관계가 드러나는 정치적인 효과를 가지는 특정 집단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집단들의 갈등과 동맹관계의 교차 속에서 기지촌 여성들의 피해자-행위자의 위치를 그들의 입장, 그들의 시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캐서린 문의 이 책은 여성의 목소리를 구성하는 페미니즘의 정치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나쁜남자’의 실체

인권과 성대결문제로 치닫고 있는 ‘나쁜남자’



김고연주 | 문화학 협동과정 석사과정

들어가며

우리나라엔 쟁패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들이 유난히 많다. 과거에 쟁패는 사회의 부적응자 내지는 사회악으로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얘기가 좀 달라졌다. 쟁패들의 집단인 조폭은 폭력을 수단으로 검은 돈을 주무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있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권력을 지니게 된다. 돈과 그에 따르는 권력이 있기 때문일까? 한국 영화에서 조폭은 의리와 유머와 용기와 힘과 치밀한 머리를 갖고 있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남성으로 그려지곤 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쟁패 영화인 김기덕 감독의 〈나쁜남자〉는 이러한 달라진 인식을 거부하고 쟁패를 사회의 최하위 계급으로 다시 추락시킨다. 남자로서 쟁패가 사회의 최하층이라면 여자로서 사회의 최하층은 누구일까. 김기덕 감독의 〈나쁜남자〉는 이러한 계급의식에서부터 출발한다.

김기덕 감독의 여성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급이 무엇일까. 대부분의 여성에게는 ‘대학생’ 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의 일생은 대학을 정점으로 해서 급속도로 추락하기 때문이다. 김기덕 감독은 대학생과 매춘부가 계급적으로는 극과 극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성적으로 ‘순결’한 여성인 선화가 자신의 몸을 파는 매춘부가 되는 내용은 거부감을 일으킨다. 그러

나 김기덕 감독은 선화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며 선화가 매춘부가 되는 과정을 납득시키려 한다. 선화는 자신과 한기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이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경멸의 눈빛을 보낸다. 그러나 그런 선화도 서점에서 몰래 책장을 찢고, 누군가 잃어버린 지갑에서 돈을 빼내는 등 그녀의 양심은 순수하지 않다. 이는 김기덕 감독이 계급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저항하려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대학생과 매춘부가 동일한 인간이라는 인간관이라기보다는 선화가 한기가 자신의 계급을 추락시킬만한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선화에게 책임을 일부 전가하는 것이다. 김기덕 감독은 정성일씨와의 인터뷰에서(『씨네 21』 2002/2/14)

“처음에 한기가 선화 있는 벤치에 가 있는 것 그게 정직한 한기의 태도예요. 정직하게 수평적인 사람관계의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식물이라고 치면 나무와 풀이 동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에 상관없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라고 그의 가치관을 설명한다. 그러나 정작 〈나쁜남자〉에서는 김기덕 감독이 매춘부를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김기덕 감독의 말대로 그가 동등한 인간관계를 추구하고자 했다면 ‘대학생과 쟁패의 사랑 이야기’로 그 주제에 부합할 것이다. 김기덕 감독은 선화가 매춘부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더하기 위해 선화가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는 여성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의 순결 이데올로기는 순결에 대한 집착으로 끝나지 않는다. 김기덕 감독은 가부장적 사회가 여성을 성녀와 창녀로 구분하는 극단적인 이분법에서 벗어나 모든 여성이 내면에 성녀성과 창녀성을 동시

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선화를 통해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선화에 대한 혐의 vs 한기에게 주어지는 면죄부

〈나쁜남자〉의 주제는 한기의 마지막이자 유일한 대사에 집약되어 있다. “쟁패새끼가 무슨 사랑이야!” 김기덕 감독은 우리에게 묻는다. 쟁패새끼는 사랑을 하면 안되냐고, 쟁패새끼는 사람도 아니냐고, 그리고 김기덕 감독은 쟁패도 사랑을 하는 인간임을 보여준다. 한기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매춘부로 만들면서 선화와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의 간절한 사랑을 절절하게 묘사한다. 김기덕 감독은 대학생인 선화가 매춘부가 되어야만 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사랑하는 여자가 매춘부가 되는 고통을 감내할 만큼 한기가 선화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인 선화뿐 아니라 한기도 함께 괴로워하는 모습은 관객들이 한기의 사랑을 부정하지 못하게 만든다. 또한 김기덕 감독은 선화가 서점에서 찢어낸 그림을 “두 사람이 뒤엉켜있는, 마치 쇠사슬처럼 서로가 서로에 영적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선화와 한기처럼, 그런 이미지의 그림”(『씨네 21』 2002/2/14)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그림과 함께 한기가 선화를 관음하는 거울에 선화가 붙여놓은 얼굴 없는 두 연인의 사진이 선화와 한기의 얼굴로 채워지는 샷은 선화와 한기의 사랑을 운명적인 로맨스로 만들어낸다. 더욱이 한기가 선화를 자유롭게 해준 후에도 선화가 다시 한기에게 돌아오고, 한기와 선화가 합의하에 매춘을 하며 돌아다니는 결말은 선화에게 다시 한번 혐의를 두게 한다. 선화가 자신을 매춘부로 만든 한기와 매춘 둘 다를 선택했기 때문에 한기의 행동은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김기덕 감독은 최고의 지성을 지닌 여성조차 최하위 계급의 남성에게 자신의 일생을 좌지우지당하는 내용을 자신 있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여성들은 이러한 남성들의 “사랑”에 길들여지고 이를 운명적인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거기서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다.

꼭두각시로 전락한 선화

그렇다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나쁜남자〉의 결말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나쁜남자〉는 그 도입에서부터 결말까지 철저하게 남성인 한



‘나쁜남자’의 실체



기의 시선과 욕망에 따라 진행된다. <나쁜남자>에서 한기는 소시지를 먹으며 등장한다. 선화의 외모가 한눈에 미술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듯이 한기의 모습은 한기와 선화의 앞으로의 관계를 상징한다. 한기가 남근을 떠올리게 하는 크고 붉은 빛깔의 ‘소시지’를 ‘먹고 있는’ 행위를 의도되지 않은 우연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한기는 거대한 남근으로 형상화되는 남성성을 지닌 남자이며 그가 대중들 앞에서 소시지를 먹는 것처럼 선화는 대중들에게 먹히는 매춘부가 되고, 결국에는 한기에게 먹히는 것이다. 선화가 한기를 경멸의 시선으로 봤을 때 한기는 선화의 도도함을 꺾고 선화를 정복해서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한다. 이러한 결심과 욕망이 그의 바람대로 실현될 수 있었던 까닭은 김기덕 감독이 선화를 자유 의지를 지닌 인간이 아니라 한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꼭두각시로 재현했기 때문이다. 선화가 한기의 계략대로 지갑에 손을 대는 것이나, 경찰에게 의뢰하여 누명을 벗지 않을 뿐 아니라 주위의 도움을 받아 돈 2천 만원을 구하지 못하는 것, 법적으로 무효라는 것도 모른 채 신체 포기 각서에 서명하고 매춘을 하게 되는 것, 남자친구를 만나고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탈출해서 집 앞까지 왔다가 다시 끌려가는 등의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들은 선화에게 어떠한 이성이나 자유의지도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반면에 인륜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는 한기를 두둔하기 위해 김기덕 감독은 한기의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킨다. 매춘 여성의 방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부하들을 용서하지 않는 점이나, 사형을 선고받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부하를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쓰려는 모습 등은 한기가 의리와 일말의 양심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강변한다. 그러나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안되지만 매춘을 강요하는 것은 되며, 부하의 인생은 지켜주고자 하지만 한 여성의 인생은 파멸시키는 한기의 모습은 한기의 이중성과 여성 학대를 더욱 부각시킬 뿐이다. 김기덕 감독은 선화가 폭력으로 점철된 한기의 인생을 지켜보면서 한기를 이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한기를 사랑하고, 한기와 함께 매춘을 하며 돌아다니는 것으로 결말을 맺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말이 가능한 것은 김기덕 감독이 선화의 자유의지와 판

단력을 박탈했기 때문이다. 선화에게 이성과 자유 의지를 부여한다면 선화가 결코 한기를 사랑하지 않았을 것은 자명하다.

은폐된 진실

우리 나라에서 유행하는 조폭 영화들은 정태를 영웅시하고 미화하는 것으로 남성성을 더욱 공공히하며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 및 남성의 소유물로 형상화했다. 이에 반해 김기덕 감독은 기존의 조폭 영화의 정형성에서 벗어나서 계급이라는 외피를 벗은 인간 대 인간의 사랑을 그리고자 했는지도 모른다. 김기덕 감독이 “나쁜남자”는 역설적이게도 ‘착한남자’”(〈한국일보〉 2002/8/6)라고 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쁜남자>의 한기와 선화는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신’ 대 ‘꼭두각시’로서 관계를 맺고 있다. 한기가 선화의 인생을 그가 마음먹은 대로 만들어 갈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니고 있는 이성과 자유 의지도 박탈하고 선화의 감정까지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기덕 감독은 이를 계급을 벗어난 인간의 진정성 추구라는 그럴듯한 말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따라서 <나쁜남자>는 인권 문제이며 성대결의 문제이다. 강박적인 계급의식과 그로 인한 피해의식에 젖은 남성이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 여성을 철저하게 파멸시키고 통제하는 육체적, 정신적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는 김기덕 감독의 <나쁜남자>는 조폭 영화의 남성 우월이라는 계보를 잇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어떤 조폭 영화보다도 우리 사회의 가부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영화 <나쁜남자>와 김기덕 감독 관련 기사와 김기덕 감독 홈페이지를 참고로 했습니다.



김기덕 감독 filmography

- 1990 감독 영화 출생
- 1990-92 프랑스에서 회화 전공
- 1993 영상작가 교육원 제3회 창작상 대상 수상(회화와 사형수)
- 1994 영화진흥공사 14 하반기 사내외 공모 장려상(이중노출)
- 1995 영화진흥공사 15 상반기 사내외 공모 대상(유단형)
- 1996 <악마의 계절> 감독
- 1997 <아생동물보호구역> 각본, 감독
- 1998 <파란리본> 각본, 감독
- 1999 <생> 감독, 각본, 미술
- 2000 <살해상행> 각본, 미술, 감독
- 2001 <수취인 불명> 각본, 미술, 감독
- 2002 <나쁜남자> 각본, 감독

만·화·읽·기 『이미진』 IMAGINE

두 모녀의 유쾌통쾌상쾌한 성장기

썸 | 인문 98

여기 어머니와 딸이 있다. 어머니는 딸이 어렸을 때 이혼했다. 딱 이 두 사람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편모솔하에서 자란 딸. 남편도 없이 더군다나 아들이 저 없이 딸만 달랑 있는 어머니. 이 둘의 생활이 만화 속에서 펼쳐진다면 대체 어떤 모습일까? 딸의 아빠 찾아 심리? 엄마의 애인을 둘러싼 모녀의 갈등? 부잣집에 딸 시집보내기 대작전? 엄마에게 새 짝 찾아주기 대작전? 이도저도 아니면 모녀가 한 남자를 또는 한 여자를 동시에 사랑하는 엽기적 스토리? 하지만 <이미진>은 이런 온갖 변한 설정들을 모두 가려버려 재치 있게 전개된다.

<이미진>의 주인공은 어머니 미치코와 딸 유우이다. 이 모녀의 설정이 조금 특이하다. 어머니는 잘 나가는 건축가이고, 딸은 별 볼 일 없는 사무 보조원이다. 게다가 딸은 어머니의 온갖 뒤치다꺼리를 맡아한다. 딸과 어머니의 관계가 역전되어 딸이 어머니의 어머니 내지는 아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딸 유우는 능력을 한껏 발휘하며 자신 만만하고 자유분방하게 사는 어머니와는 대조적으로,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을 뒷바라지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다. 이렇다 할 기술도, 재주도 없고,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지도 모른다.

유우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여성들의 모습이다. 우리는 모두 미치코가 되고 싶어 한다. 사회에서도 “너희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한다. 여성의 시대라고, 여자도 당당히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떠들어댄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가. 지금의 미치코는 그냥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 오기까지 나도 쉽지 않았어”라고 미치코도 말한다. 그녀는 어린 유우를 기르면서 힘들게 자격증을 땀고, 일 하는 여자를 대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다. 오늘날도 그녀는 여자라고 무시하는 현장 감독과 한 판 싸움을 벌여야 한다. 그것은 미치코가 특별한 악바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모든 여성이 미치코와 같은 악바리일 수는 없다. 결국 어느새 유우와 마찬가지로 비전 없는 직장 생활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유우는 점차 변화한다. 달라지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간다. 그 길에 어머니 미치코도 함께 있다. 사실 미치코의 기대와는 다르게 유우가 평범한 직장 여성이 된 것은 유우가 바쁜 어머니를 뒷바라지하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치코가 없다면 유우의 변화는 있을 수 없었다. 미치코는 여자가 즐겁게 당당하게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온 몸으로 보여주는 어머니

인 것이다. 유우가 고민에 빠질 때마다, 힘든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마다 미치코가 던지는 말은 하나하나가 다 정곡을 찌르고 가슴을 후벼 판다. 미치코의 말들을 모아보면 하나의 권좌는 여성학 책이 완성될 것도 같다.

하지만 유우가 미치코가 걸어온 길을 쫓아가는 것은 아니다. 유우는 유우 나름의 방식을 찾아간다. 여자가 잘 살기 위한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다. 미치코의 충고를 받기만 하면 유우는 나중에는 미치코에게 충고를 하기도 한다. 변화를 받던 존재에서 변화를 주기도 하는 존재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마침내 나양한 껍질을 깨고 날개를 달아 날아갈 준비를 하는 유우에게서는 미치코와 비슷한 분위기가 풍긴다. 그것은 유우와 미치코가 목표와 자신감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우는 누구의 딸, 누구의 여자 친구, 누구의 보조자가 아니라 유우 자신으로 다시 선다.

<이미진>에서 변화하는 사람은 유우뿐만이 아니다. 언뜻 완벽해 보이는 미치코도 또 한번 성숙해 간다. 그녀는 외톨이아버지의 성폭력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던 그녀의 어머니를 용서한다. 또 남성과의 진지한 관계에 대한 불안감을 털어내고 결혼을 결심한다. 힘겹



뒤집거나 혹은 거스르거나] 만·화·읽·기 『이매진』 IMAGINE

두 모녀의 유쾌통쾌상쾌한 성장기

게 싸워오면서 받았던 상처들을 하나 둘 치유해 가는 것이다.

두 모녀 주변의 남성들도 변한다. 미치코의 애인 토시히코는 많은 여자 친구를 가진 바람둥이였지만, 미치코와 연애를 하면서 일과 사랑에 모두 진지한 사랑스러운 남자가 된다. 유우의 애인 요헤이는 유우와의 연애와 이별을 통해서, 배려를 가장한 남자다움에 갇혀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다.

그렇게 <이매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좀 더 성숙해지고 행복해진다. 그것도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이매진>은 모두 11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11권을 다 읽다보면 여성들의 온갖 문제들이 다루어진다. 가족, 일, 연애, 임신, 사회적 편견, 성폭력 등등. 그리고 그 문제들이 다루어지고 해결되는 방식들이 지극히 여성주의적이다. <이매진>은 일본에서는 텔레비전 드라마로까지 만들어져 인기를 끌었다. <이매진>의 매력은 바로 이것이다. 만화적 재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올바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추구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 때문에 <이매진>은 신선하고 감동적이다.

<이매진>의 작가 사토루 마치무라는 본격적으로 여성학을 공부하거나 여성운동을 했던 사람은 아닌지, 혹은 페미니스트 가수 지현이 그랬듯이



● <이매진> 명대사 !!!

나는 강한 남자라는 환상을 지키기 위해 여자한테 약한 여자 역을 분담시키는 남자였다.
- 미치코 일은 여성을 남성화시킨다고 말하는 남자를 보며

남자가 결혼을 생각하는 동기는 불순하지. 남자사회 안에서의 경쟁에 필요한 준비를 갖춘 거야. 아내를 가져야 어엿한 어른 남자다. 라는 식이지 결혼해주면 대가로 보호해주겠다는 거래를 하는 거야. - 미치코 애인 토시히코가 자신을 구속하려고 하자

어떻게 된 거야. 내담지 않게 너처럼 피임은 여성의 인권이라는 확실한 의식이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아무런 연애를 해도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중절 수술이란 없어! 라고 잘해줬잖아. - 미치코의 친구인 신부인과의 의사 요코 미치코가 살수원 임신한 사실을 확인하고

몸은 이렇게 착실히 살고 있었어. 딱딱한 머리하곤 별도로 매달 한 개씩 한 개씩. 자연은 굉장히 몸은 굉장히 나는 굉장히. - 유우 미치코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자신의 배란일을 체크하다가

이건 병이 아니 - 미치코 임신을 했으니 가능한 한 조용히 자라는 토시히코의 말에

여자는 이유로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저런 시시한 남자의 억압이 왜야 해? - 유우, 지하철 안에서 치환을 발견하고

아빠님, 어머니, 토시히코를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토시히코를 택했습니다.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행복해지겠어요. - 미치코 토시히코와 결혼을 결심하고 토시히코의 부모에게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페미니스트 만화가라고 선언하지는 않았는지 궁금하다. 어쨌건 간에 <이매진>은 작가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면 절대로 탄생할 수 없었던 작품이다. <이매진>은 페미니즘 만화이다.

나는 페미니즘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친구들에게 이런 저런 책이나 영화를 추천하곤 했다. 이제 <이매진>을 내 추천 목록에 넣어야겠다.

'커밍아웃(coming out)'을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알릴, 밝힐, 드러냄의 뜻을 가지고 있다. 요즈음 커밍아웃이라고 하면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들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릴 것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한 행동이 커밍아웃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한국 사회에 유통시키게 된 데에는 그것이 그만큼 특별한 종류의 고백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나는 성시 새끼를 라면으로만 먹는다. 나는 꼭 도리지만 된다는 고백과 나는 동성애자이다 라는 고백이 갖는 의미는 분명 다르다. 커밍아웃은 왜곡되어 인식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벗어나고자 하는 작업이다.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라는 고백은 어떠한가. 이것은 단순히 나한테 어떤 면이 있어 하는 고백이 아니다. 그것은 나는 동성애자이다 라는 고백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종류의 고백이다. 페미니스트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페미니스트라는 것은 그 사람을 평가하고 구분짓는 가장 큰 기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라는 고백 또한 일종의 커밍아웃이다.

2002년 9월 1일 우리 학교 총학생회실에서 나사, 독, 모비, 씬이 모여 커밍아웃에 대한 난담을 늘어놓았다.



커밍아웃을 하는 우리의 방식

모비 : 여기 모인 우리들은 다 페미니스트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나 페미니스트야'라고 커밍아웃을 했어?

나사 : 난 '나는 페미니스트야'라고 딱 잘라 말한 적은 없어.

모비 : 나도 그런 적은 없어 대신 다른 표현을 쓰지. '난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있어'라거나 '난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아', '여성학 수업을 듣고 있어'라거나 또 '주변에 페미니스트인 친구들이 많아'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버전이 있지.

나사 : 맞아, 맞아, 나도 그래.

씬 : 그리고보니 나도 그렇게 딱 선언한 적은 없는 것 같네. 친구들이 '넌 페미니스트야?'라고 물었을 때 '응, 그래'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정도야. 예전에는 그렇게 물으면 '뭐... 페미니스트라기보다는...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아'라고 얼버무렸지.

독 : 나도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페미니스트라고 인식하고 있어. 여성 문제에 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은 피하기도 하고, 근

데 가족에게는 말하지 않았어. 어차피 가족들이랑은 가끔밖에 안 보니까. 난 가족들이 서울에 있지 않잖아. 사실 자리면서 부모랑 고민을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내가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가.

씬 : 나도 가족한테는 말 안 했어. 나한테 물어보지 않으니깐 그냥 대답 안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만 알아.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몰라. 작년에 우리 학교 총회에서 비디 베이직스 행사 할 때 내가 생리주기 팔찌 만드는 거 했잖아. 그 때 기자들이 취재해 가더니 그날 저녁 뉴스에 나오더라구. 물론 내 모습도 화면에 잡혔는데 내 뒷모습이 크게 나왔어. 나는 옆에 있던 엄마가 날 알아볼까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 전혀 못 알아보더라구. 딸이 저런 행사에 참여한다는 걸 상상도 못 하셨을 테지. 엄마가 알아봤다면 난 줄지에 아웃팅당한 꼴이 났겠지.

우리의 커밍아웃에 대한 그들의 반응

모비 : 우리 가족은 내가 여성주의 운동

을 한다는 것도 알아. 우리 엄마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페미니스트들에게 느끼는 감정을 나한테도 느끼게. 나서는 것 같아서 볼 수가 싫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논리에 감탄하기도 하고. 내가 여성학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엄마한테 얘기해주면 엄마가 감탄을 해. 엄마도 어자로 살아오면서 쌓인 게 많은 데 내가 그런 것은 어떨때까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면 엄마는 속이 시원한 거지. 가려운 부분을 팔이 대신 긁어주는 셈이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너무 드세네, 너무 따지지 말고 살라고 하신 적도 있어.

나사 : 우리 엄마는 텔레비전에 여성학자가 나오면 '너도 나중에 저렇게 되라'고 해서 멋있어 보이신대. 내가 좀 소극적인 성격이라서 페미니스트라 해도 별로 안 드세 보이신 걸까.

씬 : 우리 엄마는 그런 감정 없어. 페미니스트들은 그냥 싫으시대. 내가 그 사람들 얘기 듣다가 남자 보는 눈이 이상해졌다고 걱정해.

독 : 나는 군대에서 갈등이 있었어. 군인들이 텔레비전 보면서 하는 얘기들이 뻔하거든. 여자 연예인을 보면서 재 가슴 크다, 재 따먹어보고 싶다. 그래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내가 고창이 된 이후에도 그런 것을 말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어.

모비 : 김윤아가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다'라고 했잖아. 김윤아는 충분히 페미니스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 김윤아가 이해가 되지는 해.

씬 : 내가 페미니스트라고 밝히는 것은 내가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을 감당하겠다는 의지가 없이는 못 하지.

나사 :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페미니스트까지는 아니구요...'라고 변명하게 되는 거야. 김윤아가 그랬던 거지.

모비 : '페미니스트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하냐'고 반문하기도 해. 근데 그렇게 쉽게 이름 붙이지 못한다는 것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 이 대 공대에 다니는 친구에게 학내 여성주의 단체에 들어가보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이대여, 공대여, 여성학까지 하는 애들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냐'라고 하더라구.

씬 : 내가 대학 와서 처음 커밍아웃을 했을 때 받았던 반응은 '근데 페미니스트들은 왜 그렇게 공격적이지?'는 질문이었어. 마치 페미니스트들에 대해서 진지한 충고를 해주겠다는 식이었지.

나사 : 우리 과에 여성주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 꽤 되거든. 한 사람들이 그 애들을 마음에 안 들어해.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는 식이야. 어차피 페미니스트를 비판하는 방식은 대중이 없어. 가쁜 페미니스트라서 어쩌구, 저쩌구.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까움을 당해.

씬 : 페미니스트라고 하면 사람들이 고깝게 보니까 '페미니스트라니, 매우 이상한 성향을 가진 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 일단 페미니스트라고 낙인이 찍히면 무슨 일을 하건, 무슨 말을 하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페미니스트의 모습 안에서 평가받게 돼 드세고, 말만 많고, 나쁜다는 식으로.

모비 : 상황 자체가 페미니스트가 되기 힘들게 해. 어떤 사람이 사회주의자라고 그러면 그 사람의 정치적인 면을 보는데 페미니스트라고 하면 그 사람의 성격을 먼저 보지. 재가 성향이 나쁘다 하는.

나사 : 페미니스트라고 하면 일단 벽을 그어.

모비 : 페미니스트라고 묻는 것은 '너 그렇게 드세냐? 앞으로 건드리지 말까?'라고 묻는 거나 마찬가지야. 인식이 안 좋아. 내가 여성주의 단체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말했어. 거기 무서운 여자들이 있는 데라고. 근데 그 사람들도 진보 운동한다는 사람들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커밍아웃을 하게 되기까지

씬 : 그렇게 말했는데도 굳이 여성주의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야?

모비 : 난 대학 와서 온갖 동아리들을 다 돌아다녔어. 대학생이 됐으니 당연히 뭔가 진지한 것, 학술적인 것에 치열하게 몰두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다 모비문과대 여학생 모임에도 가게 된 거야. 모비만 딱 마음에 든다고 보기도 해. 아 되기 때문에 한다는 의식이 있었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찾아들은 거지.

독 : 나는 1학년 때 학생 운동 하다가 가을에 총학생회 선거에 참여했어. 그 때는 별로 의식도 없는 상태였어. 문화인류학 수업듣다가 조 프로젝트로 참여한 것 뿐이었지. 그런데 총학생회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좋고 그 사람들 얘기가 좋더라구.

모비 : 독의 성향이 운동권 쪽과는 안



어울렸기 때문일까?

뚝 : 남자한테 왜 여성 운동을 하고 있
나고 물으면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인식
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깨닫는 게 좋기 때
문이라고 말할 거야.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여성 운동 덕분이야.

나사 :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난 먼저 페
미니즘에 있던 선배의 권유로 페미니스트의 활
동을 시작했는데, 내가 여성 운동을 안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페미니즘의
이점은 정체성을 중요시한다는 거야.

뚝 : 난 연애에서 실패를 겪었고 나면서
개인적인 게 정치적이란 것을 깨달았
어. 온전히 개인적이고 자유로운 것은 존
재할 수도 없고,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

도 없어. 그래서 페미니즘에 온거야. 페미
너리 활동을 하기 전에는 스스로 페미니
스트라고 정의내리기 망설이곤 했어. 지
금은 나 스스로가 "나는 페미니스트다"라
고 정의내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된 것
이 참 기분좋아. 아, 정말. 진심으로, 너무
너무 좋아.

모비 : 난 초반 활동을 하면서도 내가
2,3학년 때까지 내가 페미니스트가 아니
라고 생각했어. 페미니스트는 더 많이 알
고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보
기에 나는 아니었던 거야. 집회에 한번 안
나가고, 정보에도 늦고, 페미니스트이기에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 어쨌든
말만 많은 페미니스트가 될까봐. 근데 어

느 순간부터 내가 여성 문제에 대해서 민
감해하는 수준이 높아졌구나, 이런 게 페
미니스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나사 : 그렇게 점차 변화는 거겠지.
1,2학년 때는, 내가 여성 문제에 민감하게
되면서 각성이 됐어. 내가 어떠한 행
동을 하는 게 과연 여성주의적인가, 반대
성주의적인가. 그런데 생각이 여성주의적
인 쪽으로 굳어지면서 다른 눈으로 보는
게 익숙해져갔어. 다른 방식의 생활이 자
연스럽게 된 거지.

모비 : 페미니스트라는 타이틀은 스스
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높은 도덕
성과 자질을 위해, 그래서 사람들이 페미
니스트라고 일컫기를 더 망설이는 거야.

너무 그럴 필요 없는데 안 그래도 되는데.
뚝 : 나도 그런 기준 때문에 전혀 참 힘
들었어. 난 페미니스트가 되고 싶은데, 정말
멋지고 완벽한 여성주의자가 되고 싶은데,
나 자신은 한참 모자라게 느껴지니까. 그치
만 이제는 스스로에게 많이 관대해졌어. 페
미니스트는 어떤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끊임
없이 고민하고 변화하는 과정인 것 같아.
그래서 불완전한 내가 어떤 입지가 많아.

모비 : 페미니스트라면 이렇게 해야 된
다는 전형적인 시각 때문에 장애를 받기
도 하지. 상황을 속에서 기존의 그 패턴
들과 계속 갈등하고 협상해 가야 돼.

■ 정리 : 뚝

만들고 나서



모비 / 김선아

아무래도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건 예매하고
복잡한 일인 것 같다. 하는 짓보면 엉악없는
페미니스트인 사람에게도 페미니스트나라
고 물으면 손사래를 친다.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조금 서운하지만, 별반 다를 바 없기
는 나도 마찬가지야. 나 역시, 내가 페미
니스트가 맞긴 맞는 감이라고 느끼게 된게
볼과 얼마 전이다. 더구나 그 이후에도 여친
히 어디 나가서 나 페미니스트라고 커밍
아웃하는 일은 결코 없다. 마치 나와 같이 페
미니스트를 자임하는 몇몇의 친구들을 제
외하고는 누구도 내가 페미니스트라는 사실
을 몰라야 하는 분위기야.

내가 페미니스트냐? 묻자, 알면... 다쳐
문제가 될까? 단답형으로 답이 나오는 질문
이라면 좋으련만, 결국 망학을 다 바쳐서 잡
지 하나를 만들어야만 했다. 페미니스트하
고 열여 있거나, 페미니즘이라 하면 한마디 거
들지 않을 수 없거나, 페미니스트 때문에
된통 당한 일이 있거나, 타고난 인품이 착
하디 착하여 이 여자들이 너무 무섭게 느껴
지거나, 대중 알선 다 아는데 정리가 안 되
거나... 이 이런저런 사람들과 함께 읽어볼
만한 잡지였으면 좋겠다.

근데,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만드는 거... 이
거 너무 도발적인 거 아니?

나사 / 김주영



졸업하기 전에 뭔가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으로 호기 있게
참여했다가 게으름도 꽤 많이 피우고 글도 꽤 늦게 제출하
고... 그치만 두 달 여간... 많은 생각과 고민들을 하
게 되었다. 과거 어딘가에 있던 나는 세상에서 "올바른 것"
이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혹은 진실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했
었다. 그러나 정작 물어야 할 것은 누가 올바르게라고 생각
하는가, 그 정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진실을 판단하
는 잣대가 무엇이었는가를 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작업은
그에 대한 아주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생각했
다. (아... 소심해짐...)

하하... 모두들... 개강하고까지 작업하느라고
정말 수고했어!!

뚝 / 서민중성



여성운동에 대한 반대의 역사 처음 시작은 이거였다. 별짓도 아닌 것으로 시비거는, 상대할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겨
지던 여성운동, 페미니즘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반대는 그토록 조직적이고 견고했다. 그냥 무시하면 될 것을 왜 그토
록 게거품을 물고서 어떻게 하면 못보아줘서 안달일까. 그리고 스스로 페미니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뒤
에 가서는 다른 얘기로 뒤통수 치는 모습들. 페미니즘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와 너무나 쉽게 내려지는 규정들. 몇 년동
안 여성운동을 함께 해오면서 접했던 이러한 반응들에, 아직 잘 모르니깐 저러겠지 혹은 인간이 될 때서 그러려니 하
면서 참아 넘기기도 했는데, 개인의 단순한 생각으로 폄하하기에는 왠지 껄껄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페미니즘, 페미니스트가 적들의 그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을 인정할 때,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형
성되고 이에 대한 반대나 공격의 주장과 논리를 분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준비 과정에서 여러 미흡함 때문에 '장간준비'로 격하된 '페미니리'지만 그동안의 고민을 바탕으로 보다 나아간
페미니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단단 / 김다영



회의때 때때로 빠지고 만화 하나만 살포시 내려니
필린다. 하지만 올 모임의 첫 책이 나와서 기쁘
기 그지없고 단단 만화의 첫걸음을 뚫어라 실례
이기도 한다. 여성주의적 에너지로 제요를 타
파하는 하루하루야~



뚝 / 김서운

1. 이 학교에서 마지막 학기를 보내게 되다니. 말수없수 이럴수. 이 곳
을 나가면 또 어떤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2. (페미니리)를 만들면서 암살도 많이 받고 게으름도 많이 피웠다. 그
래도 이렇게 후기까지 쓰게 되니 신기하다. (사실 후기도 제일 늦게 썼
다) 페미니스트가 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나는 참 많이 행복해졌다. (페미니리)를 만든 것도 그 과정의 일
부이다. 온전함을 향해 가는, 영원히 끝이 나지 않을 과정.
3. 페미니리를 만난 것은 내 온 몸과 온 마음이 마구 아프던 때였다. 내
게 새 이름을 지어주고, 새 삶이 뜰게 해준 페미니리 사람들, 너무 고마
워. 당신들과 오래오래 연애를 하며 살고 싶어. (아이, 수줍...)

여성주의 VS 작가주의



IS



재들 레즈비언이야,
호모야?

아무렴 어때,
잘만 어울리네.

JUST LOVE!

by 단단